

성숙자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영아 사회화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문화 기술적 연구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권 경 숙

영아 사회화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성숙자 교수지도

이 論文을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0月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유아교육전공)
권 경 숙

논문개요

본 연구는 영아에게 가장 친근한 자연적 환경인 가정을 중심으로 영아와 어머니의 생활사를 들여다봄으로써 영아의 사회화 과정은 어떠한가 하며 영아의 사회화 과정에서 보여 지는 어머니 역할은 상황적인 맥락들과의 연계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 기술적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는 영아 3명과 그들의 어머니들이었다. 연구 기간은 2006년 2월 1일부터 2006년 8월 30일까지로 주 1회, 1회 5시간 이상씩 참여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은 비형식적인 형태로 수시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참여관찰과 어머니와의 면담, 비디오 및 사진 촬영, 어머니들의 저널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을 위해 참여관찰일지, 면담내용 기록, 어머니의 저널 등을 분류, 조직,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관찰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그에 따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자아 개념 형성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은 어떠한가?

어머니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영아의 이름을 불러주거나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소유권을 알려주고 영아 중심의 호칭을 사용하거나 영아의 행동에 대해 말로 해석해줌으로써 영아 스스로 타인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아를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어머니들은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영아의 자기 인식을 지원하였는데

영아들은 이러한 어머니의 역할을 통해 타인과 자신의 경계를 이해하고 남과는 다른 독특한 자기의 존재를 인식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영아의 또래 관계 형성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은 어떠한가?

영아의 또래 관계 형성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또래를 소개하고 서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또래 행동을 칭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또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체적인 접촉과 더불어 ‘우린 친구지’와 같은 언어를 통해서 친구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자 하기도 하였다.

영아들은 또래와 동시에 같은 사물을 갖고자 할 때 갈등이 유발되었는데, 이 때 어머니들은 놀잇감 사용과 놀이방법을 제시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대안적인 행동 제안함으로써 또래 갈등을 해소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들은 영아들이 부정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때, 긍정적 의미의 해석을 통해 친사회적인 행동으로 전환시켜 나가거나 영아의 감정을 인정해줌으로써 욕구불만적인 감정을 해소시켰다. 때론 ‘화’ 감정의 표현과 강압적인 사과시키기와 약속하기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영아의 부정적인 행동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영아의 지식 습득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은 어떠한가?

영아들은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물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물에 대한 지식은 주로 책과 어머니의 언어를 매개로 하여 영아의 경험과 연계하기, 실생활에서 찾아보기를 통해 구체화시켜 나가는 양상이었다. 또한 영아들은 어머니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된 지식들을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구성해 나갔으며 또 다른 경험과의 결합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을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아의 독특한 표현은 점차적으로 사회문화적 기준에 맞는 표현으로 바뀌어 나가는 양상이었다. 또한 어머니들이 이 시기 영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사회적 규범은 인사와 나눔의 의미를 가지는 주기, 두 손 내밀기를 통한 ‘주세요.’와 ‘네’라는 대답의 강조 및 어른 먼저 드리기 등과 같이 예절과 관련된 규범들이었다. 어머니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동적이고 습관적으로 실천하기, 영아의 행동이 출현하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 사회적 규범에 맞게 수정하고 가르치기, 언어적인 격려와 환호성 지르기, 박수쳐주기 등의 긍정적인 격려를 통하여 사회적 규범과 규칙들을 습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문제	6
3. 연구자	8
II. 이론적 배경	12
1. 사회화의 개념	12
2. 영아의 사회화와 어머니 역할	16
1) 영아의 발달적 특성과 어머니 역할	16
2) 영아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역할	21
3. 어머니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24
1) 영아의 개별적 특성	25
2) 어머니의 사회화 양육 신념	27
III. 연구 방법	31
1. 연구 참여자	31
2. 연구 방법과 절차	36
3. 자료의 타당도 작업	44
4. 자료의 분석과 해석	46

IV. 결과 및 해석	48
1. 영아의 자아개념 형성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	48
2. 영아의 또래관계 형성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	60
1) 또래 인식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	61
2)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사회적 기술 습득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	70
3) 부정적 감정 조절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	84
3. 영아의 지식 구성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	97
1) 영아의 사물 지식 구성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	98
2) 영아의 사회적 규범 형성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	107

IV. 논의 및 결론	125
1. 요약 및 논의	125
B. 결론 및 제언	145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배경	36
<표 2> 참여 관찰의 과정	42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연적 존재로 태어나는 인간은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고 발달해 나간다. 즉,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과 자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학습 과정인 사회화를 통해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과 자아를 발달시키고 (조정문·장상희, 2001) 그를 통해 사회적 존재가 된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람은 개인의 욕구와 가치, 규범, 신념, 지적 능력 등의 사회적 기대를 내면화하고 남들과는 다른 자기만의 독특한 성품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화란 자신이 속한 사회에 적절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신념이나 가치, 행동들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Shaffer, 1994)이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자신의 잠재력을 실행해 나감으로써 (부정남, 1988) 한 사회의 문화가 개인에게 내면화되는 것이다(김정호, 2004; 조성일·신재흡, 2004). 또한 사회화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개인이 사회의 역할 기대에 부응하고 그에 적절한 문화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행위자들 간의 부단한 상호 작용의 과정에서 사회의 역할 기대나 문화 규범도 끊임없이 재구성됨을 볼 때(김정호, 2004), 사회화란 모든 사람을 사회적 기대에 따라 같은 형태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 교류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화는 어떤 목적 지점에 다다르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접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인간은 인생 초기부터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 영향을 받으며

(Lewis & Michalson, 1983) 성장해 나가는데, 영아가 태어나서 최초로 접하게 되는 사회 문화적 환경은 가정이다. 즉, 영아는 가정을 터전으로 다양한 환경과 접촉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와 사회 구성원이 요구하는 태도와 사고방식을 형성해나간다. 또한 영아의 사회화는 영아에 의해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영아와 돌보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이재훈, 1999)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Chamberlain & Patterson, 1995). 영아의 사회화 과정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모이며(이영자·유효순·이정옥, 2001), 부모는 영아의 발달적 특성과 자신의 신념 및 사회적 기대와 가치 등을 고려하여 영아를 양육해 나가는데 부모를 통해 형성된 이 시기의 경험은 영아의 성격이나 가치관, 정서능력 및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며 이 후의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Kennedy, 1992; Campbell, Shaw, & Gilliom, 2000). 또한 영아는 가정에서 부모와 상호관계를 맺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함께 놀고 가르침을 받음으로써(Tompson, 1997) 가정의 생활방식에 맞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태도, 가치, 규범 등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인격의 틀을 구축해 나간다. 따라서 영아는 부모를 통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배우며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기의 역할을 인식하고 성인들의 생활양식 및 행동양식을 모방함으로써 사회규범에 맞는 행동을 학습한다.

Freud 이론을 위시한 현대의 심리학 이론들은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는 사회화 과정에서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김혜영, 2001). 영아가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자아를 형성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정립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출생 이전의 생물학적 유전적 잠재력보다 출생 후의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윤형주·조복희, 2004)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는 어머니에 의해 제공되는 양육 환경이다(Bowlby, 1982). 즉,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훈련 수준이나(Howes, 1997) 상호작용의 횟수 (McCartney et al, 1985), 영아의 발달을 촉진시켜 주는 어머니의 언어적 환경(Howes, Phillips, & Whitebook, 1992)과 자율적이고 억압적이지 않은 양육 환경(Dunn, 1994), 양육자와 아동의 긍정적인 관계 (Peisner-Feinberg, Burchinal, et al., 2001)등이 영아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안전하고 적절한 규율이 있는 환경(Clarke-Stewart, 1987)과 포용력 있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촉진시켜준다(Dietz, Jennings & Abrew, 2005). 그러나 억압적이고 부정적인 어머니의 태도는 영아의 부정적인 행동을 증가시키고(Dix, Reinhold, & Zambarano, 1990; Field, 1995) 부정적인 기질을 형성함으로써 또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Schudlich, Shamir, & Cummings, 2004) 걸음마기 영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을 저해하고 어머니와 영아의 관계에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Dietz, Jennings & Abrew, 2005). 이러한 어머니와의 관계는 다른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선행하는 것으로 사회적 적응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Coie & Dodge, 1998) 가정에서 어머니를 통해 습득된 행동은 또래 관계에도 맥락적으로 전이된다(Ladd, LeSieur, & Proflet, 1993; Parke et al., 2001). 위의 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영아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아동 발달간의 관계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 수행된 영아-어머니 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곽금주·김민화·한은주, 2004; 김승경, 1998; 박성연·서소정·Bornstein, 2005; 한지현·이영환, 2005)와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유형(박수연, 2005; 윤형주·조복희, 2004;이형민, 2006)에 관한 연구들 또한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하

고 있지만 영아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다양한 상황적 맥락에 따라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어머니 역할을 탐색 하는 데는 한계를 가진다.

Harkness와 Super(1995)에 의하면 아동의 사회화는 자신이 속한 사회적 상황과 문화적 특성을 수용하는 것이고, 부모들의 사회화 목적과 전략 또한 사회문화적 요구에 따라야 한다. 즉, 사회 문화는 아동의 발달에 대한 부모의 생각을 구성하고, 부모들은 사회 문화적 신념 체계 안에서 자신의 가치나 신념을 공유하고 그에 따라 양육을 수행함으로써 아동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Goodnow & Collins, 1990). 이와 같이 어머니는 아기가 아주 어릴 적부터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기준을 반영하여 지도하는데 이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방식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산물이기 때문이다(Vygotsky, 1978). 일본의 어머니들은 영아의 성에 관계없이 정서적 성숙이나 자아통제력, 사회적인 규범들을 강조하는 반면 미국의 어머니들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한다(Azuma, 1986; Bornstein & Tamis-LeMonda, 1990; Cote & Bornstein, 2001). 또한 중국은 전통적으로 집단의 결속력과 조화를 촉진하는 행동을 중요시하여 돕기와 나누기를 강조하여(Cheah & Rubin, 2003) 게임이나 노래, 춤 등의 활동을 통해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아동의 책과 이야기에든 나누기와 돕기 행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하고 있으며(Orlick, Zhou, & Partington, 1990) 한국의 부모들 또한 사회적 기대를 이유로 나누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볼 때(김예빈·박성연, 2005; 김은지, 2002), 영아의 사회화는 어머니가 속해 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어머니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지식이나 정보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뿐 만 아니라(Goodnow, 1988) 그들이 몸담고 있는 문화의 일부로서 그 문화의

가치와 규범을 반영하여(Goodnow, 1984) 영아를 양육하는 것이다.

사회화는 어느 한정된 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는 과정으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또한 자녀 양육의 경험을 통해 양육에 대한 기존의 가치와 사고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지식체계를 형성하게 되고(윤형주·조복희, 2004)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가치 기준이나 역할, 생활양식 등의 변화를 겪게 되는 등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사회화를 계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어머니도 사회적 상황과 자녀와의 상호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변화를 겪으며 그에 적응하려고 한다. 따라서 사회화 과정은 영아가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연계하여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관계 속에서 살펴보아야 하며 영아를 돌보고 있는 어머니의 가치관이나 신념, 어머니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 및 생태학적인 특성 등과 연계하여 조망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화 과정은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되어 가는 계속적인 과정으로 인간, 사회, 문화의 모든 측면을 상호 관련된 하나의 총체로서 연구되어야 하며, 자신이 속한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상의 다양한 활동을 연구할 때에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활사적 맥락위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구성해 나가는 존재이며 사회적 가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조용기, 2005). 따라서 영아의 사회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정된 실험실 상황에서보다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생태학적 특성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하며(Yarrow, 1989) 특히, 사회화는 영아들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영아가 살고 있는 자연스러운 생활의 현장을 들여다봄으로써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관찰실 상황이나(한지현·이영환, 2005) 구조화된 장난감 놀이 상황(김민화·곽금주,

2004) 또는 장난감 중심의 자유놀이 상황(곽금주·김민화·한은주, 2004)에서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만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의 영아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며 그에 따르는 어머니들의 역할은 어떠한지에 대한 학문적 논의에 한계가 있으며, 영아의 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역할은 어떤 상황적인 맥락들과 연계되어 어떻게 수행되어 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에게 가장 친근한 자연적 환경인 가정을 중심으로 영아와 어머니의 생활사를 들여다봄으로써 영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회화 되어 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즉, 영아의 사회화를 돕기 위해서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탐색해봄으로써 영아의 사회화를 주관하고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역할을 조망하고 이를 기초로 영아의 사회화를 이끄는 바람직한 방법과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영아는 가정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 성장해나가며 영아의 사회화는 상황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전개될까?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비형식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가정’에 주목하고 영아와 어머니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영아의 사회화가 전개되는 양상과 특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가정은 인간의 태도나 성격 등의 기본적인 바탕이 형성되는 최초의 사회화 기관이며 사회화 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영아와 어머니의 일상사를 관찰하고 그들이 접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인간관계 등을 통하

여 영아의 사회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연구자는 본격적으로 사회화가 시작되는 시기인(Erikson, 1963) 16개월~17개월의 영아와 어머니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생활에 참여하였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사회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정에서의 생활 뿐 만 아니라 가정 밖의 여러 장면(쇼핑센터, 어린이집, 동물원, 음식점 등)에도 동행의 형태로 참여하였으며 영아와 어머니가 접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에도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전개되는 사회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탐색 과정에서 연구자는 이 시기 영아의 사회화를 주도해 나가는 주체자는 영아보다는 어머니가 되고 있으며, 사회화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어머니는 자신의 사고와 가치기준, 경험 등에 따라 영아의 행동을 형성시키고자 하였으며 사회적 가치나 규범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영아를 사회화 시켜나가는 현상들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아의 사회화 과정에서 보여 지는 어머니들의 역할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두드러지게 탐색되는 사회화 현상들을 수집하고 순환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 문제를 발견해 나갔으며 이 시기 영아의 발달적 특성과 사회화 이론의 결합을 통해 연구 문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즉, 탐색적이고 개방적인 접근 방법인 문화기술적 연구에서는 처음부터 연구문제를 엄격하게 고정시키기보다는 탐색과정을 통해 연구 문제가 설정될 수 있으므로(Walcott, 1975)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과 분석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보여 지는 현상들을 중심으로 이론과의 연계하여 연구 문제를 설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문제 1. 영아의 자아개념 형성 과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은 어떠한가?
- 문제 2. 영아의 또래 관계 형성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을 어떠한가?
- 2-1. 영아의 또래 인식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은 어떠한가?
- 2-2.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한 사회적 기술 습득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은 어떠한가?
- 2-3. 또래 갈등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 조절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은 어떠한가?
- 문제 3. 영아의 지식 습득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은 어떠한가?
- 3-1. 영아의 사물에 대한 지식 구성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은 어떠한가?
- 3-2. 영아의 사회적 규범 습득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은 어떠한가?

3. 연구자

인간은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태어나 가족 구성원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의 규범을 습득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관계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문화적 상황에 어울리는 적절한 태도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가족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간다. 가정에서의 성장은 또래 집단, 유치원, 학교 등과 같이 좀 더 넓은 세계로 연계되고 그 때마다 아동은 새롭게 접하는 또 다른 세계가 요구하는 가치와 규범, 신념 등을 습득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 간다.

연구자 또한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또래 집단과 여러 단계의 학교, 직장 등의 새로운 세계와의 연계를 통해 오늘날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변화되는 환경에 맞는 적절한

한 사회적 규범을 습득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수행하는 등 끊임없는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도 변하지 않은 연구자의 신념은 ‘가훈’을 통해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어릴 적 연구자 가정의 가치였으며, 이것은 연구자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아 평상시에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내면의 소리가 상황에 적절하게 재생됨으로써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거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내면의 소리를 되새길 때마다 연구자는 연구자 부모의 가르침을 떠올리곤 한다. 즉, 예의바름의 실천을 강조하셨던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워 엄하고 무섭게 예절 교육을 시켰으며 한없이 넓고 자애로운 마음을 지니신 어머니는 너그러움과 웃음으로 버릇없는 연구자의 행동을 감싸 주었었다. 이에 연구자는 부모님의 어떤 가르침이 나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많이 주었을까 하는 의문과 동시에 가정에서 부여되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규범화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유치원 교사 시절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 중심의 사회교육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반복과 연습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반강제적인 반복은 유아들의 사회적 규범 형성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듯 하였으나 교사인 내가 없을 경우 잘 실행되지 않음을 발견하면서 연구자의 교육 방법에 대한 재고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이 시기 연구자가 접하게 된 Vygotsky의 사회 문화적 이론과의 만남은 유아들이 가진 사회적 가치나 규범은 당연히 모두가 동일할 것이라 여기고 있던 연구자의 생각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자는 유치원에 오기 전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습득된 행동 규범과 가치는 유아들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치원에서의 사회화 교육은 각기 다른 유아들의 사회적 경험

에서 출발해야 하며 교육 방법 또한 부모의 가르침을 토대로 할 때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교육기관에 오기 이전에 유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과정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즉, 연구자의 어릴 적 경험과 유치원 교사 시절의 경험의 합치는 자연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영아의 사회화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궁금증을 뒤로 한 채 연구자는 어느덧 세 명의 엄마가 되어 적응력 있고 유능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연구자의 지식과 교사 경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변의 동료들로부터 얻는 정보 등을 결합하여 이 사회에서 기능하는데 필요한 태도와 기술 및 가치 등을 습득시켜나가야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의 이러한 바람은 아이들마다 다른 결과로 이어져 연구자를 고민하게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어릴 적부터 자신의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인사를 절대 안하는 큰 딸과 언급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인사를 행하는 아들, 유치원에서는 또래들이 가지고 논 놀잇감까지 정리 정돈할 정도로 모범생인 작은 딸이 집에서는 절대로 정리정돈하지 않는 이중생활에 대한 의문점 등은 연구자의 자녀 교육법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켰다.

연구자는 ‘같은 가정의 문화 안에서 동일한 부모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왜?’ 라는 반복적인 의문을 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답은 연구자의 큰 딸이 10살이 된 후에야 겨우 찾을 수 있었다. 즉, 사회에서 기능하는데 필요한 가치나 규범 등은 부모의 가치기준이나 신념에서 결정되기보다는 아이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으며 자신의 사회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아이들은 자신의 사회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까?’,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와 규범은 무엇이며 어

떤 역할을 통해 그것들을 습득시킬까?', '아이들은 어떠한 것을 선택할까?' '모두 나와 같을까?' 등의 질문은 인간의 초기 사회화 과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연구자는 영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묘한 사회적 관계를 탐구하거나 사건의 맥락과 가치 체계 및 신념 체계 등을 탐구할 때 효과적인 문화기술적 연구 방법을 통해(Wolcott, 1994)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아의 사회화는 무엇이며 어머니들은 어떤 역할을 통해 영아의 사회화를 돕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머니들의 역할은 다양한 상황과 연계되어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에 대한 다각적인 탐색을 통해 영아의 사회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화의 개념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한 바와 같이 인간은 혼자서 고립되어 살 수 없는 존재로 집단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 그가 속한 사회에서 잘 기능하기 위한 사회 규범과 규칙을 익힘으로써 점점 사회화되어 간다. 즉,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상황에 필요한 행동 규범, 문화, 신념 및 가치 등을 습득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가는 것이다. 즉, 비사회적(asocial) 존재로 태어난 인간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태도, 규범 등을 배움으로써 점차 사회적·문화적 존재로 성장해 나간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집단의 행동 양식, 가치관, 규범과 같은 문화를 학습하여 내면화하고 자기 자신의 독특한 개성과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사회화(socialization)라 한다(김정호, 2004).

Shaffer(1994)에 의하면 사회화는 반사회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등 구성원의 행동을 조절하고 촉진하고 도와주는 것으로써, 아동의 사회화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한 사회에서 기능하는데 필요한 사회 문화적 지식과 기술, 동기, 포부 등을 습득하도록 하여 사회질서를 존속시키는 것이며 자신의 독특한 개성과 자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즉, 사회화란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요구하

는 행동 규범과 가치관, 지식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아동은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점차 적절한 사회적 판단과 자기 조절을 할 줄 아는 책임감 있는 사회의 성원이 되어가는 것이다(서봉연 · 이순형, 1993).

사회화를 폭넓게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화를 바라보는 문화인류학적 측면, 심리학적 측면, 사회학적 측면의 세 가지 관점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각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화의 특징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김동위, 2001).

문화인류학적 측면에서는 사회화를 한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행동양식 또는 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그 사회의 문화 유형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문화화’라 하기도 한다. 즉, 백지상태로 태어난 인간이 특정 문화에 젖어 동질화(enculturation)되어 가는 과정으로(성영혜, 1992) 아동이 문화적 요소를 내면화하는 데는 학습, 관찰, 모방, 상과 벌 등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회화는 이기적이고 충동적인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사회생활을 통해 규범적으로 규제되어 가다가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분별이 생기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생애 초기의 사회적 행동 유형은 변화하기 어려운 것이며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결정적 요소로 본다.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사회화를 사회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동 양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봄으로써 유능한 사회 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에 따르는 역할 수행과 관련된 행동 양식을 습득하는데 초점을 둔다. 즉, 개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으로 규정되어 있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사회화란 발달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미숙한 아동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기대나 기준, 즉 공인된 규범이나 가치, 태도 그리고 생활양식 등을 학습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성숙한 사회 성원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며, 심리적으로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지만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 맞는 정체감을 형성하여 자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홍재호, 2003).

사회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학자 Durkheim(1982)은 아동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백지와 같은 상태였다가 사회생활로 인도되면서 사회의 문화를 습득하게 되는 과정이 사회화라고 하였다. 또 그는 사회화를 교육의 개념으로 보고, 사회화의 대상인 미숙한 아동을 능력 있는 성인이 사회로 인도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 갖추어야 할 언어, 기술, 관습 등을 학습하며 가치와 이념을 내면화하는 것을 강조한다.

사회화를 역할이론으로 설명한 Parsons에 의하면 사회화란 현존하는 사회체제에 동화되는 과정으로 아동은 출생 후 어머니로부터 부모, 가족, 또래, 학교, 사회 등으로 상호관계를 넓혀가면서 사회화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황혜정 · 김경희 · 이해경 외, 2003에서 재인용).

사회화의 개념은 사회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화는 집단을 유지하고 성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집단의 규범이나 가치에 맞는 행동양식을 기르는 역할을 부여하는 동시에 사회 구성원의 행동양식에 유사성을 형성하여 전체 사회의 기능

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더 나아가 사회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화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행동양식이나 언어, 지위에 따른 역할을 습득하고 내면화하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방식을 학습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화는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문화가 세대를 거쳐 계승, 전달되는 것이며 개인의 측면에서 볼 때는 조직화된 생활양식에 적응하면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다(부정남, 1988).

따라서 사회화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되는 과정으로 어느 한정된 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일생 동안 지속되는 교육적인 성장인 것이다. 즉, 인간은 자신의 성장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역할을 배우게 되며 지위에 따라 부여되는 역할 기대와 그 지위로 인한 인간관계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학습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성인도 직장과 연령에 관계없이 새로운 사회화를 계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김정호, 2004).

그러므로 사회화는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사회화과정도 사회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의 상호작용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으로(Richards & Light, 1986) 사회화는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Zigler & Child, 1973). 그러므로 사회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갖는 사회성과 인간과 인간의 정서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탐색되어야 한다.

2. 영아의 사회화와 어머니 역할

1) 영아의 발달적 특성과 어머니 역할

영아기는 영아가 출생하여 언어가 출현하는 만2세까지의 기간으로 사회적인 소속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정신적인 기초가 되는 단계로 정의될 수 있다(Borstein, 2002). 따라서 어느 시기보다도 영아기에 어떠한 환경에서 양육되었는지에 따라 각각에 미치는 영향은 이후의 성장 발달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Thompson, 2000). 그러므로 영아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가정환경과 부모는 영아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영아는 부모를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규범 및 신념들을 습득해나감으로써 사회적 존재로 성장해 나간다.

영아의 성장 발달에 있어 어머니 역할의 절대성을 강조한 Freud(1946)는 먹고 빨고 삼키고 씹는 구강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은 어머니이며 어머니는 이후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owlby(1982)도 유아들의 사회적·정서적 행동을 적절하게 발달시키지 못하는 고아원이나 보호시설 등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어머니의 결손이 아동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통해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어머니에게 있어 아기의 탄생은 기쁨인 동시에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안겨주며 특히 신생아기는 아기의 신체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배려가 가장 중요한 일로서 어머니의 역할은 아기의 생리적 보호에 집중된다(편은숙, 2004). 백일을 전후해 영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활발해지고 신체적 활동과 감각적 경험을 즐기게 되며 어머니는 영아와 눈을 맞추

고 옹알이 등을 통한 놀이 상대자로서의 역할과 말을 가르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김진영 외, 2000).

이 후 영아는 앉고 기며, 서기와 걷기 등의 행동을 학습함으로써 영아의 시계(visual world)가 확장될 뿐 만 아니라 사물들을 조작하는 기회 또한 확대된다. 또한 울음, 옹알이, 한 단어로 첫말을 시작하며 몸짓과 단어를 혼합하여 문장처럼 사용하다가 완전한 문장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주영희, 2001).

따라서 어머니는 영아와의 상호작용 놀이를 통해 영아의 언어발달과 사회화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Snow, 1998). 생후 1년 동안 영아는 자신을 지속적으로 돌봐주는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 즉 애착을 기본으로 신뢰감을 형성해 나가며 이를 토대로 환경을 탐색하게 되고 점차 정서적인 지지자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내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다(Berk, 1994).

이 시기 영아는 외적 사물로부터 자신의 신체적 자아를 분리시키게 되면서부터 남과 다른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자아 인식은 생후 6개월경에 시작하며(Lamb & Easterbrooks, 1981) 18개월경이면 자신의 사진을 알아보고 15개월~24개월 사이에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인지할 수 있다(김태련 외, 2004). 이 시기 영아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15개월이면 자기 이름을 부르며(Lewis & Brooks-Gunn, 1979) 20~22개월경에는 ‘내가’, ‘내 것’ 등의 자기와 관계된 대명사를 많이 사용한다(Maccoby, 1980).

영아의 자아인식은 인지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될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경험도 자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송명자, 1995). Pipp(1992)는 2, 3세 유아에게 자신의 이름과 성, 그리고 다른 과

제들을 통해 자아인식을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유아에게서 자아인식 점수가 높음을 볼 때, 부모의 태도나 표정, 목소리가 이 시기 자아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영아가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수용과 존중을 받을 때 형성된다(Coopersmith, 1967). 즉, 어머니가 수용적이고 온정적일 때 자녀가 안정적이고 자신감을 가지며 자신을 가치롭게 여길 수 있으나(도현심·최미경, 1998)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할 때 자녀들은 낮은 수준의 자아개념을 나타낸다(Lamborn, Mounts, Steinberg & Donrnbusch, 1991). 또한 어머니와의 관계가 안정된 영아일수록 자기에 대한 지식이 높았을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Pipp, Easterbrooks & Harmon, 1992) 영아의 자기인식과 타인 이해에 있어서 어머니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는 아동의 행동을 위한 일차적인 모델로서,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게 하는 일차적인 피이드백 제공자임과 동시에 아동 행동에 대한 이차적인 평가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김문정, 2000).

영아는 또래를 쳐다보고, 미소 짓고, 소리를 내면서 서로 반응을 주고 받는 초보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다가 14~18개월이 지나면 나란히 앉아 노는 단순한 병행놀이를 시작하며(Snow, 1998) 18개월이 지나서야 서로의 행동을 모방한다든지 쫓아다니는 관계적인 행동을 보이며 또래에 관심을 나타낸다(박성연, 2006). 그러나 이 시기 영아들은 대부분 또래의 상호작용 요구에 무심하고 물체중심적인 놀이를 하는 경향을 보이며(Bronson, 1981) 2세가 되면 선호하는 놀이친구가 생기고 점차 또래간 사회적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된다(Howes, 1988). 즉, 돕기, 나누기,

관용 베풀기, 양보해주기, 우정 등의 친사회적인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하여(Bergin, Bergin & French, 1995) 울거나 슬픔에 빠져있는 친구에게 반응하고 위로할 수 있으며(Ann, 1994; 김난실·김용희, 2002에서 재인용)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도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뿐 만 아니라 고통 상태의 타인을 위로하기 시작한다(Radke-Yarrow & Waxler, 1984). 또한 영아들은 사물과 관련되어 상호 교환을 할 수 있는데 우호적인 제의 같은 상호 교환뿐 만 아니라 적대적인 상호작용도 시도한다(Ross, Conant, Cheyne, & Alevizos, 1992).

이 시기 영아들은 자신을 돌봐주는 어머니로부터 독립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하는데 걷기와 같은 이동 능력의 발달은 영아가 주위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하고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과감하게 떨어져 꽤 멀리 이동하려고 하며 어머니는 이를 저지하고자 시도함으로써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Rheingold & Eckerman, 1971). 이러한 행동은 이 시기 영아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의 하나로 어머니들은 영아의 행동을 이해하고, 허용해줄 수 있는 한계를 정해 주어 영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성연·도연심, 2001).

Crockenberg와 Litman(1990)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한계 설정 및 지도 방식과 걸음마기 영아의 순응성, 자기 주장성 및 반항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영아의 순응성은 적절한 통제와 지도의 결합에 의해 촉진되었고 부정적인 통제만이 반항을 초래하였다. 또한 영아의 한계 설정은 가르침(teaching)을 기초로 할 때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였으나 힘(power)을 기초로 할 때는 영아의 자기 통제력이 감소함으로써 이 후의 사회적 유능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잠재된다(Houck & LeCuyer-Maus, 2002). 또한 이 시기 영아의 행동을

언어적-신체적으로 압박을 할 경우 유아기와 학령기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Brenner & Fox, 1998) 부정적인 부모의 태도는 걸음마기 영아의 부정적인 행동을 증가시킨다(Field, 1995).

Bornstein(2002)은 영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아 양육을 신체적인 돌봄과 관련된 보호적 양육(nurturant caregiving), 영아와 양육자 두 사람간의 대면적인 관계 및 참여행동과 관련된 사회적 양육(social caregiving), 영아와 양육자 두 사람 외의 환경에 대한 이해나 관심을 갖도록 언어적 자극을 주는 등 가르치는 양육(didactic caregiving), 그리고 장난감 등 물질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거나 제한하는 물질적인 양육(material caregiving)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러한 양육 유형들을 영아기의 양육에 적용하였다. 즉, 보호를 위한 양육은 영아의 신체적 필요로서 영아의 병을 예방하고 영아의 행복을 증진시킬 책임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회적 양육은 영아와의 상호 대인적 관계에서 부모들이 사용하는 시각적, 언어적, 애정적, 신체적 행동 등을 말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양육은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영아를 자극하는데 사용되는 부모의 다양한 전략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영아 주변의 사건과 사물, 외부 세계를 설명해주고 친밀해지고 관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물질적인 양육은 부모들이 영아의 물리적인 환경을 조직하고 제공하는 방법들을 포함한다.

Hamner와 Turner(2001)는 걸음마기 어머니의 역할 수행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는데, 걸음마기는 자율성이 발달되는 시기인 만큼 자녀가 식사나 옷 입기 등을 혼자 힘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심을 갖게 해주며 간단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녀가 준비되었다고 여겨질 때 배변훈련을 시키도록 하며 실수를 하더라도 혼내지 말고 잘했을 때 격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들은. 또한 안전한 공간과

장난감을 제공해줌으로써 놀이와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영아의 호기심을 격려하며 반복과 모델 제시를 통해 언어발달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2) 영아의 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역할

영아가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가정환경은 가장 중요한 사회화의 환경 변인이며(이병은, 2004) 이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는 영아에게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영아의 성격, 태도,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즉, 아동의 사회화는 부모와 가족 구성원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출현하며(Chamberlain et al., 1995) 부모는 처음에는 돌보는 사람(care taker)으로서, 다음은 통제자(controller)로서, 그리고 사회화자(socializing agent)로서의 역할을 통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영희, 1996).

아동이 세상에 태어나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대상인 부모는 영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보이는 사회적 행동은 가정에서 부모, 그 중에서도 어머니와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Campbell et al., 2000; Ladd et al., 1993; Parke et al., 2001). 또한 출생 후, 영아는 최초로 접하게 되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세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화의 기초를 이루며(김난실 외, 2002) 이 시기의 영아는 대부분 신체적 접촉을 통해 어머니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다(곽금주 외, 2005). 영아기의 다양한 신체접촉은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Stack, LePage, Hains & Muir, 2001) 영아기 때의 신체 접촉 결핍은 아동기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Field, 2003). 즉, 계통발생학적으로 진화해 온 신

체적 접촉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대인간 연결을 이끄는 기능을 함으로써 영아의 초기 사회화 수단이 되고 있다(Schiefenhovel, 1997).

영아의 사회화는 영아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능하는데 필요한 총체적 발달과정을 의미하며(곽금주 외, 2005) 영아는 자신이 속한 문화의 틀에 적응되어 가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Snow, 1998). 영아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으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사회적 유능감 뿐만 아니라 자기 통제 발달 같은 사회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Houck & Lecuyer-Maus, 2002).

부모의 양육 행동과 태도는 영아의 자율적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데(Kochanska, 1997), 영아의 자율성은 영아에게 사물의 선택권을 주고 그 선택에 대해 인정을 해주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허락하고 영아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는 등 영아의 자율적 행동을 인정해 줄 때 이루어진다(Kochanska & Kuczynski, 1991). 그러나 영아의 자율적 행동을 존중해주기 보다 그 행동을 억압하는 어머니의 태도는 오히려 영아의 부정적인 행동을 증가시키고, 부정적 행동에 대한 내성을 갖게 함으로써 부모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며(Field, 1995) 영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지장을 주게 된다(Dietz et al., 2005).

따라서 어머니와의 갈등은 아동의 행동과 정서표현을 예측해주며(Grych & Fincham, 2001) 언어적인 화나 신체적 공격 같은 어머니의 부정적인 행동은 아동에게 내면화되어 문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Cummings & Davies, 2002).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자신의 의도나 동기와는 상관없이 사회문화적인 관습, 관념, 행동규범의 영향을 받음으로써(정현숙 외, 2002) 그 사회문화가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 행동 규범들을 익히도록 하는데, 한국

과 미국 어머니들의 신념을 비교한 Lee(1987)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어머니들은 미국 어머니들에 비해 정서적 성숙이나 복종, 사회적 기술, 자기 의견 확실히 표현하기 등과 관련된 행동이 빨리 발달하기를 기대하며, 자발적·자주적으로 행동하는 아이를 기대하고 의견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란다(임정미·이명조, 2000). 즉, 부모는 자신의 기준과 문화집단의 실제적 생활에 준거하여 영아의 행동을 격려하고 억제시킴으로써 사회화시켜나간다(Harkness & Super, 1995).

다양한 문화에서 자녀 양육의 실재를 연구한 LeVine(1980)에 의하면 부모는 아동이 성장할 때까지 신체적 생존과 건강을 유지시켜 주고 아동이 성인으로서 자기를 유지할 만한 경제력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과 행동 특성을 길러주고자 하며 도덕성이나 종교, 성취 같은 문화적 가치를 익히는데 중점을 둔다. LeVine에 의하면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자녀 양육의 방법은 문화집단마다 다르며, 가정의 환경적 영향을 받는다.

사회 환경에 따라서도 사회화하는 방식이 다른데, 농업이나 목축에 의존하는 사회에서는 순종과 협동, 집단 이익을 강조하지만 수렵이나 어업에 의존하는 사회에서는 독립심, 자기주장, 개인적 목표를 권장하는 형태를 띤다(Barry et al. 1959; 박성연에서 재인용). 한편 산업 사회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들은 복종과 단정함, 청결, 권위에 대한 존경을 가르치지만 자영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들은 야망, 호기심, 창조성, 독립성을 강조하며(Arnett, 1995)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모는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주도성, 성취, 개인적 자기 달성을 권장한다(최순영, 2003).

이와 같이 부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의 테두리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이는 영아의 사회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사회 문화적 인식이 전제되어야하고 부모의 양육 행동과 가족 체계의 맥락, 영아와 부모를 둘러싼 생태학적 체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상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인 기대를 형성하도록 하며, 또래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는(이영·나유미, 1999) 등 부모와의 관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선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동이 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Coie et al., 1998). 따라서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과 연계하여 관계 모델들을 제안하고 있으며(Shimar et al., 2001) 양육자는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상호작용해야 하며 사회 문화적 배경 안에서 의사소통하고(Gonzalez & Mena, 1992) 반응적인 행동을 통해 영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곽금주 외, 2005).

이와 같이 사회화는 부모와의 관계나 부모의 양육 태도, 행동 및 사회문화적인 환경 등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맥락에서 부모와의 상호 관계를 통해 그 사회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행동이나 태도를 습득하고 사회 가치에 어울리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식들을 습득해 나간다.

3. 어머니 역할에 영향을 주는 변인

어머니와 영아는 서로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기보다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인식되면서 최근에는 어머니와 영아 모두를 고려하여 양육 행동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Bornstein, 2002). 즉, 어머니가 영아에게 영향을 주듯이 영아 또한 어머니가 제공하는 자극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서 상호작

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어머니 역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머니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영아의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의 근원이 되는 양육 신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아의 특성

아동의 사회화는 양육자와 아동의 상호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Bell, 1968; 황혜정, 2003에서 재인용)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자녀도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녀의 특성 중 대표적인 것이 기질과 관련된 것이다. 즉, 아동은 기질 특성에 따라 사회적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기 발달의 근원을 제공하기도 하며(Lerner, 1984) 자신의 사회화에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요인이 된다(Corsaro, 1997; Mayall, 2002).

따라서 기질은 부모와 아동의 사회적 교환에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부모의 가치관이나 양육 신념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소이며 아동의 의지에 따라 어머니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게끔 하는 도구이다. 즉, 융통성 있는 아동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요구가 많지 않아 부모가 근처에 있다면 혼자서도 잘 노는 편이나 까다로운 아동은 예민하거나 요구가 많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큰 소리로 울고 잘 달래지지도 않음으로 인해 부모들로 하여금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한다(황혜정 외, 2003). 특히 영아가 까다롭거나 짜증을 잘 낼 경우 어머니들은 영아들과 상호작용을 덜 하였으며(Crocken & Acredolo, 1983)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의 부

모는 순한 기질을 가진 아동의 부모에 비해 바람직하지 못한 훈육방법을 이용하며 자녀 훈육 시 더 과잉적으로 반응하였다(문혁준, 2000).

영아의 기질에 따라 영아 어머니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한지현·이영환(2005)의 연구에서도 영아와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는 영아가 순한 기질 유형일 때 더 많이 나타났으며, 까다로운 영아의 기질은 어머니에게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까다로운 영아의 어머니는 쉽게 화를 내고 처벌적 훈육을 하게 됨으로써 영아는 까다로운 기질을 계속 유지하고 사춘기에는 문제행동을 많이 보였으나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한 경우에는 아동기나 청년기에 더 이상 까다로운 기질을 보이지 않았다(Chess & Thomas, 1984).

따라서 Thomas와 Chess(1977)는 영아의 기질과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한다는 ‘조화의 적합성(goodness-of-fit)’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영아의 이상적 발달은 영아의 기질과 부모의 기질이 얼마나 적합한가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영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박성연과 서소정(2005)에 의하면 어머니와 영아 31쌍을 5개월과 13개월에 걸쳐서 관찰한 결과 어머니는 영아가 생후 5개월일 때는 가르치는 행동과 사회적 행동이 비슷한 수준으로 보였으나, 13개월에는 영아에게 물체지향적인 가르치는 양육행동을 좀 더 보이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는 영아에게 상대적으로 물체에 더 관심을 두게 한다는 선행 연구들(Belsky, 1984; Bornstein & Tamis-LeMonde, 1990)과 일치하는 것으로 영아의 발달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달라짐을 시사한다.

자녀의 성 또한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한 해석이나 자녀에 대한 기대 및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딸보다는 아

들에게 성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아들에게는 야망이 있고, 지적이고 독립적이며 열심히 일하는 것을 기대하는 반면에 딸에게는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결혼을 잘 하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기대한다 (Okagaki & Divecha, 1993).

따라서 부모는 여아에게 의존성을 더 허용하며 온정적, 설명적이고 (양정선, 1997), 남아에게는 성취기대가 높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Someya, 2000; 윤은미, 2004에서 재인용).

우리나라 어머니들 또한 아들에게는 자유로운 생각과 감정 표현을 격려하며, 딸에게는 순종을 강조하고 (김희진, 1995)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서희정, 1995) 아버지는 딸보다 아들의 사회화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동성의 자녀 지도에 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Gecas, 1976)는 연구들을 통해 볼 때 자녀의 성 또한 어머니의 역할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어머니의 사회화 양육 신념

부모 역할이란 부모가 되어 실제 양육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대되어지는 특징적인 행동이며 (현은강, 1994) 부모로서 갖게 되는 지식, 태도, 기술 등으로 표출되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양육 태도 또는 양육 행동 등으로 부모 역할을 총칭하기도 한다 (현미숙, 2004).

따라서 어머니의 역할은 영아를 양육하는 행동으로 표출되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신념에 의해서 생성되고 나타나는 것으로 (Bornstein et al, 1996) 부모의 신념은 한 문화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부모가

아동 발달 전반에 가지는 목표나 가치관 등 인지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육행동 자체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안지영, 2001). 또한 부모의 신념은 무의식적인 경로로 사회 문화에 의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가치이며, 부모가 지닌 과거의 경험 뿐 만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줌으로써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김경혜, 1993).

부모의 신념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부모의 신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 처리적 관점에서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양육신념을 관련지어 연구한 Mills와 Rubin(1990)은 사회화에 대한 부모의 신념을 주도적 신념과 반응적 신념으로 구분하였다. 반응적 신념이란 사회 부적응적인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신념이며, 주도적 신념이란 아동을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신념으로 주어진 사회적 상황(나누기, 부정적 감정 조절하기, 도와주기)에 대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사회적 행동을 잘하거나 못 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사회적 행동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의 내용을 포함 한다.

비교 문화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양육 신념에 대한 차이를 연구하였는데, 12개월~15개월의 첫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Harwood, Schoelmerich, Schulze & Gonzalez, 1999) 의하면 개인주의적 성향을 강조하는 앵글로계 어머니들은 언어를 통해 아이에게 제안을 하거나 격려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영아의 행동을 지도하였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신념을 가진 푸에리토리코 어머니들은 행

동을 지시하거나 음식을 떠먹여 주는 등 영아의 행동에 직접 관여하거나 부모의 행동을 따르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Bornstein & Tamis-Lemonda(1990)에 의하면 일본 어머니들은 아기의 성과 관계없이 정서적인 성숙이나 자아통제력, 사회적인 규범을 강조하는데 반해 미국 어머니들은 자율성과 독립성 주장성을 강조해서 자녀를 양육한다. 즉, 서양에서는 양육 목표에서 독립심을 강조하는 반면 동양에서는 자녀를 부모의 분신으로 보며 양육과정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박성연 외, 2005).

중국과 미국 부모의 양육신념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도 중국의 어머니는 사회적인 관습을 이유로 미국의 어머니보다 주기와 정서 조절하기, 돕기를 모두 중요한 사회적 기술로 생각하였으며(Cheah & Rubin, 2003) 전통적으로 사회 체제 안에서 성인에 의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사회화를 시키고 있음을(Stimpfl, Zheng & Meredith, 1997) 볼 때 사회 문화에 따라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회화 목표나 신념의 내용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우리나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회화 양육 신념을 연구한 김예빈과 박성연(2005)의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사회적인 관습을 이유로 부정적인 감정조절보다 나누기와 돕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여아의 어머니는 남아의 어머니보다 나누기 행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성연(2003)의 연구에서도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보다 나누기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함으로써 우리나라 부모들은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인 행동을 잘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Gretarsson와 Glefand(1988: 김혜경, 2005에서 재인용)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는 여아가 남아보다 선천적으로 더 남을 돕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며, 남아의 행동보다 여아의 행동이 좀 더 내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에 따라서도 어머니들의 사회화 양육신념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가 4~6세까지 부모의 신념을 종단적으로 연구한 결과(Rubin & Mills, 1992; 안지영, 2001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부모의 신념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영역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데, 이와 같은 변화는 자녀의 능력이 발달하거나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설명된다. 따라서 자녀의 연령이나 자녀의 발달단계는 부모의 신념에 변화나 수정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들의 사회화 전략에 대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어머니들은 나누기와 돕기를 지도할 때 모델링 행동을 많이 선택하였으며 부정적인 감정 조절에서 여아의 어머니는 모델링을, 남아의 어머니는 교육과 추론을 더 많이 사용하고자 함으로써 아동의 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박성연, 2003; 김예빈 외, 2005; Cheah et al., 2003). 또한 우리나라 부모들은 나누기와 돕기를 지도할 때, 아동의 능력을 약간 높게 보고 실제상황에서 나누기와 돕기 행동을 지도하는 한편, 감정 이입 등의 감정 조절은 불쌍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방법으로 지도한다(이은화, 1987).

이와 같이 어머니의 사회화 양육 신념은 문화와 영아의 성, 연령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화 내용과 자녀의 성에 따라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전략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영아 3명과 영아의 어머니 3명이며 이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웃들이다. 연구 참여 영아들은 16개월경부터 연구에 참여하였는데 Erikson(1963)에 의하면 이 시기가 본격적으로 사회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따라서 어머니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영아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데 많은 관심을 두고 양육을 하기 때문(Fagot & Kavanagh, 1993)에 영아의 사회화과정과 그 과정에서 보여 지는 어머니의 역할을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본 연구자들을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자는 일반적인 평범한 가정에서의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화 과정과 어머니 역할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연구 참여자들은 흔쾌히 수용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할 것을 승낙함으로써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준석이와 어머니

준석이는 2004년 9월생 남아로 영아가 17개월 되는 시점에서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연구 참여 중반까지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주로 생활을 하다가 동생의 출산으로 후반기인 5월부터 영아전담 어린이집에 다

니기 시작하였다. 준석이는 오전 9시에 등원하여 낮잠을 자고 일어난 오후 3~5시경에 하원하였으며 이후에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생활하였으며 안산시에 소재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다. 회사원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구초기의 가족 구성원이었으나 6월 중순 경에 동생이 탄생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이 변화되었다. 준석이는 연구 참여 영아들 중 몸집이 제일 크고 몸 움직임이 빠른 편이었으며 자동차 타거나 미끄럼틀 타기 등의 움직임이 많은 놀이를 즐기는 편이었다. ‘아빠’라는 단어만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 발달이 같은 또래에 다소 느린 편이나 책보기를 좋아하고 관찰한 것은 그 즉시 찾아보고 확인할 정도로 호기심이 많고 매우 활동적이었다.

준석이의 어머니는 결혼을 해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영아를 낳은 후 가정에서 양육만을 담당하고 있는 전업주부로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활달하고 자신의 생각을 담아두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준석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랜 교제 끝에 결혼을 했으며 자녀를 셋 정도 낳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녀 양육의 문제를 비롯한 모든 가족사는 대화를 통해 함께 공유해 나가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은 모든 일에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준석이가 찾으면 모든 일이 올 스톱이야. 설거지를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준석이가 엄마를 부르면 그대로 놓고 달려가. 그래서 준석이가 아빠한테도 그래. 준석이가 전화하면 아무리 바빠도 만사를 제쳐놓고 받아야 한다고 말해. 회사일 보다는 아들이 더 중요하잖아.

(엄마들의 이야기. 2006. 4. 2)

준석이의 어머니는 집에 혼자 있기보다는 영아들이 함께 모여 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2) 수지와 어머니

수지는 2004년 10월생의 여아로 1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수지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온 종일 생활하고 있으며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한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회사원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족 구성원이며, 태어난 후부터 계속 어머니가 가정에서 수지를 양육하고 있다. 수지는 연구 참여 영아들 중 체격이 제일 작았으며 움직임이 작고 조용한 편이었다. 그러나 음악이 나오면 신나게 춤을 추고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도 할 정도로 활발한 면도 있었으며 주로 엄마와 함께 책을 보거나 조용한 놀이를 즐겼다. 자신의 생각을 문장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발달이 같은 또래에 비해 빨랐으며 관찰 중기(4월)부터 간혹 사물, 동물, 신체 부위에 대한 단어를 영어로 말할 정도로 기억력도 좋은 편이었다.

영아의 하루 일과는 가정에서 어머니와의 놀이를 중심으로 낮잠과 식사를 하고 오후 시간은 바로 앞집에 사시는 외할머니 댁에서 대부분을 보내고 저녁 10시경에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와 함께 일주일에 2번 이상 친구를 만나거나 모임에 나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수지의 아버지는 회사원으로 귀가시간이 이르면 밤 10시이고 대부분은 밤12시경으로 평일에는 수지가 아빠 얼굴을 볼 시간이 없을 정도라고 하였으며 따라서 수지의 어머니는 남편에 대한 불만을 자주 토로하였으며 아빠가 수지와 많이 놀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빠

도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자신의 생활 습관 (예, 텔레비전을 틀어 놓고 자는 습관)을 고치려고 하거나 수지와 놀아주려는 시도를 많이 하였다고 한다.

어머니는 결혼 전에 간호사였으나, 결혼 후에는 가정에서 수지 양육만을 담당하고 있는 전업주부로 침착하고 차분하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둘째 자녀를 언제 낳아야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형편이 된다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수지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아이의 모든 게 문제인 것만 같았어요. 친정 엄마가 가까이 있지만 워낙 사회가 달라져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수지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도 있고 수지 하고 하루 종일 씨름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면담. 2006. 2. 23)

3) 태현이와 어머니

태현이는 2004년 9월생 남아로 17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태현이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온 종일 생활하다가 20개월경부터 영아 전담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21개월경에 어린이집을 그만두었다. 태현이의 어머니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또 하루 종일 태현이를 돌보는 일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오전 9시경에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오후 간식을 먹고 난 후인 오후 5시경에 귀가하였으며 귀가 후에는 함께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네 집에서 놀거나 태현이가 할아버지를 무

척 좋아하여 할아버지 댁에 놀러갔다가 저녁시간에 돌아올 때가 많았다. 회사원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족 구성원이며 안산시에 소재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태현이의 몸집은 참여 영아들 중에서 중간 정도였으며 움직임이 적고 조용한 편이었고 자동차를 매우 좋아하여 항상 자동차를 손에 쥐고 있거나 자동차 그림이 있는 책 보기 활동을 좋아하였다. 낯선 곳에 가거나 타인을 만나면 한참 동안 탐색을 하고 난 후에 만져보거나 놀이에 참여하였으며 예민하고 고집이 센 편으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몸부림치며 큰소리로 울기도 하였다. 그러나 평소에는 말이 없고 조용한 편이며, 놀이를 하다가 어머니를 자주 쳐다보며 미소 짓고 눈을 자주 마주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태현이의 어머니는 결혼 후 가정에서 자녀 양육만을 담당하고 있는 전업주부로 침착하고 차분한 편이며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스스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연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를 간간히 표현하였으며 연구 참여가 즐거웠으며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였다.

연구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즐겁고 재미있는데 선생님한테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아서.....이런 기회를 통해 저도 마음이 많이 편해졌고 태현이도 너무 좋아졌어요.

(면담. 2006. 6. 10)

연구 참여자들의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표1 > 연구 참여자의 배경

연구 참여자	생년월일	가족 구성원 및 배경
준석이와 어머니	준석(남): 2004년 9월 25일생 (17개월~22개월까지 관찰)	· 가족구성원: 아버지, 어머니, 영아, 남동생 · 경기도 안산시의 단독주택에 거주, 어머니에 의해 양육, 20개월경부터 영아 전담 어린이집에 다님.
	어머니: 1974년생	
수지와 어머니	수지(여): 2004년 10월 1일 (16개월~22개월까지 관찰)	· 가족구성원: 아버지, 어머니, 영아 · 서울시 송파구 소재 빌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 양육자는 어머니이나 앞집에 사시는 할머니와의 교류가 잦음.
	어머니: 1975년생	
태현이와 어머니	태현(남): 2004년 9월 10일 (17개월~23개월까지 관찰)	· 가족구성원: 아버지, 어머니, 영아 · 경기도 안산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 어머니에 의해 양육, 20개월경부터 영아 전담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2개월만에 그만둠.
	어머니: 1974년생	

2. 연구 방법과 연구 절차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영아와 어머니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 내에서 이루어진 영아의 사회화 내용에 대한 탐색과 그에 따르는 어머니의 역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아의 사회화 과정에 기여하는 어머니 역할의 역동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 적절한 대상은 가족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규범들을 생성해

나가는 생활과 경험의 장인 가정이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영아와 어머니가 주 대상자이다.

가정에서 영아와 어머니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생태학적 특성 즉, 사회문화적 환경과 가족과 친족 변인, 또래나 이웃 등에 영향을 받으며 갈등과 고민을 하고, 사회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가치와 신념들을 재구성해 나감으로써 사회에 적응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영아와 가족 구성원에게는 또 다른 사회화의 경험이며, 이러한 것은 다양한 가치와 상호 관계 속에서 부딪치는 갈등과 고민, 문제 해결과 의사소통의 과정,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그에 따라 변화되는 모습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봄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것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 속에 들어가서 영아와 어머니의 생활을 직접 보고 또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봄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상호작용의 역동성이나 문제 해결의 과정, 또는 비언어적인 몸짓을 통한 의사소통 과정과 사회 규범과 규칙 습득의 과정은 직접 관찰하고 얘기해 보지 않으면 생생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또 양적으로 측정될 수 없는 삶의 질적 측면이기 때문에 문헌 자료를 통한 개념적 분석이나 질문지를 활용하는 통계적 분석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문화 기술적 연구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문화 기술적 연구방법은 구성주의 혹은 해석주의의 인식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 관점에 따르면, 세계의 질서는 사람들의 집단적 사고와 경험에 의해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성격의 것으로 참여자의 지식, 이해, 신념체계, 관점들에 초점을 맞춘다(이용숙·김영천, 2005). 또한 문화기술지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생활 세계에 들어가 참여 관찰을 통하여 그 구성원들의 가치, 지식, 규범들을 정리한 것으로(조용환, 1999) 문화 기술적 연구자에게 중요한 것은 미리

가정된 가설의 진위를 검증해 보는 일이 아니라, 그 상황의 복잡성을 밀도 있게 기술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내부자적 관점에 대한 서술과 이해에 덧붙여, 보다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분석과 해석을 위하여 연구자의 외부자적 관점이 덧붙여져야 한다(이용숙, 2005).

문화 기술지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기법은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으로 참여 관찰은 현장 관찰과 자료기록을 위하여 요구되는 관찰자로서의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연구대상의 생활에 참여하는 현장 활동으로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통해 연구 대상의 다양한 생활방식과 의식, 감정, 신념의 특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하게 된다(Bogdan & Biklen, 2003). 참여와 관찰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배합이 요구되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의 활동으로(Spradly, 1980) 연구자는 참여관찰과 비참여관찰을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영아들의 경우 자신들의 경험을 글로 쓰거나 언어로 상세히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맥락적 이해가 요구되므로 참여관찰은 영아들 경험에 접근하는 적합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된 자료가 ‘살아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사건의 일부로서 참여했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언어적 표현이 불가능한 영아의 경우 의미 파악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를 줄이고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로부터 정보나 의견, 신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언어적 의사교환 또는 목적을 가진 대화로(김영천, 1998) 연구자는 심층 면담을 통해 참여 관찰의 과정에서 들었던 의문들을 해소하고 또 연구 대상자들의 내면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연구자가 파악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영

아와 어머니의 생활사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의문들을 즉시로 해소하고 연구 참여자들과의 자연스런 대화의 장을 열기 위해 면담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형식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문화 기술적 연구 방법은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을 단선적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순환적으로 반복하는 특성이 있다. 영아의 행동 특성을 익히는 기초적인 참여관찰을 통해 나는 무엇에 주목할 것인가에 대해 계속적으로 질문하며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상황과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함으로써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참여관찰과 심층 면담 외에도 연구자가 관찰할 수 없었던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 어머니와 연구자간 대화장을 육아일기의 형식으로 만들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자료에 대한 해석과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영아의 활동 상황을 비디오와 사진으로 촬영하였으며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녹취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에서의 참여관찰과 비형식적인 심층면담을 중시하는 것은 현상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기술하기 위해서였다.

2) 연구 절차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영아와 어머니의 생활과 경험이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어떻게 상호관계를 맺으며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 그 의미를 이해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대상

은 어머니와 영아가 있는 가정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영아가 있는 가정을 찾던 중, 연구자 이웃집에서 연구 승낙을 하여 2005년 9월부터(영아 월령19개월)~12월까지 참여관찰을 실시하여 예비연구를 하였으며, 예비연구를 기초로 영아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역할이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는 양상이 보임으로써 연구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따라서 다른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하게 되었다. 즉, 같은 연령대의 다른 연구대상을 제외하여 연구 의뢰를 하였고 자녀 양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영아 어머니들의 승낙을 받고 관찰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참여자는 3명의 영아와 어머니로 연구자의 연구 필요성과 어머니들의 자발적 참여의지의 합치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2) 참여관찰

본 연구의 참여관찰은 두 국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참여관찰은 2006년 2월부터 3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은 관찰 대상이 되는 사회적 상황을 가능한 한 모두 기록함으로써 표면적인 조사를 위한 서술적 관찰(Spradley, 1980)의 형식을 취하여 연구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영아의 행동 특성 및 영아-어머니 상호간의 특성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연구 허락을 구한 후, 2월 1일부터 수지네 집에서 함께 이루어졌으며 주 1회, 1회 5시간 이상씩 참여 관찰을 하였다. 처음에는 영아의 가정 안에서만 관찰이 이루어졌으나 다양한 생활의 장에서의 사회화 특성과 그에 따른 어머니 역할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영아와 어머니가 쇼핑을 가거나 친구 집을 방문할 때, 산책할 때 등 여러 상황에

함께 동행 하는 형태로도 참여관찰이 이루어졌다.

관찰이 처음 실시될 때 영아의 어머니는 연구자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영아에게 자주 말을 걸거나 책을 읽어 주고 영아에게 질문하기 등 의도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관찰 횟수가 많아지면서 영아의 어머니의 의도적인 행동들은 감소되었고 점차적으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갔다. 연구자 또한 참여 관찰자의 입장에 있기 보다는 친구같은 이웃, 자녀를 키우는 동료자의 입장으로 존재하고자 하였으며 점차로 자녀를 키우는 동료자의 입장으로 변화되어 갔다.

관찰 내용은 현장일지에 간단한 메모로 기록되어 관찰 당일 집으로 돌아와 즉시 전사되었다. 연구자는 관찰일지에 영아의 행동과 언어, 가족(어머니, 아버지, 언니)의 상호작용에 대해 기술하고, 관찰자가 참여했던 일과 그에 대한 아이디어,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들려주는 영아의 특이한 일상사나 행동, 연구자의 느낌이나 연구에 대한 의문 등은 따로 메모하지 않고 기록 노트에 함께 기록하였다.

2차 참여관찰은 2006년 4월에서 8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영아와 어머니들 둘러싼 다양한 환경 속에서의 영아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에 따른 어머니들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을 위해 2차 관찰은 준석이와 태현이네 집에서 번갈아가며 모여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2차 관찰은 주 1회, 1회 5시간 이상씩 이루어졌으며 1차 관찰을 통해 얻어진 자료 수집의 경험과 영아와 어머니의 적극적인 참여와 친구 관계인 영아 어머니들의 친숙도로 인해 내포 형성이 원활하고 빠르게 이루어짐으로써 자료수집이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2차 관찰은 영아-영아, 영아-어머니, 어머니-어머니, 영아-연구자, 어머니-연구자 등의 상호작용과 비형식적인 대화를 기록하고 전사함으로써

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어머니들의 육아일지 형식의 저널과 관찰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 연구자가 관찰하지 못한 영아의 행동 특성이나 어머니들의 고민거리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관찰을 통해 모아진 자료의 분석은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나타나는 의문들은 메모하였다가 다음 관찰을 갔을 때 물어보는 방식을 취하고 또 관찰을 실시하는 동안 연구자가 이해되지 않는 영아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즉시로 묻는 등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면담을 비형식적으로 실시하여 자료를 보완하기도 하였다.

< 표2 > 참여 관찰의 과정

관찰기간	관찰내용
2006년 2월 ~ 2006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면적 관찰과 집중 관찰의 시기 - 영아들의 행동 특성 이해하기,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 관계 특성 및 내용, 사회적 행동과 언어 등
2006년 4월 ~ 2006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 관찰 및 정선 관찰의 시기 - 영아의 사회적 행동과 행동 간의 관계, 상황에 대한 사회문화적 맥락 파악, 사건의 원인 그에 따른 어머니 역할 등 파악

(3) 심층 면담과 어머니들의 이야기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면담보다는 비공식적인 자연스러운 대화가 더 큰 비중으로 다루어졌다. 왜냐하면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어머니들의 관점과 생활 세계, 그들의 의식, 주관성, 감정,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 등은 상황에 따라 자연

스럽게 표출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담은 참여 관찰을 하는 동안 비형식적인 대화의 형태로 상황에 따라 수시로 실시되었으며 어머니들끼리의 대화를 통해서도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어머니와의 면담을 통해 연구자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많은 영아의 행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또한 연구자가 의문이 생길 경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도 면담을 실시하였고 영아의 어머니 또한 자연스럽게 기억나는 영아의 생활사를 들려주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어머니들의 대화를 통해 영아와 어머니의 가족사나 영아의 생애사 및 결혼과 육아에 대한 갈등, 스트레스 등에 대한 자료를 자연스럽게 수집할 수 있었다.

(4) 저널 쓰기

참여 관찰이 이루어지는 시간보다는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에 대한 극복과 연구 대상자인 어머니와의 대화를 위해 육아일기식의 저널 쓰기를 실시하였다. 이 저널 쓰기는 어머니들과의 협의 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어머니들은 그동안 육아일기를 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잘 안되어서 고민을 하였으며 이 연구를 기회로 육아일기를 한번 써 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연구자 또한 관찰되지 않은 많은 상황에 대한 자료를 어머니를 통해 자연스럽게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되어 동조하게 되었다. 저널은 각 어머니 당 2권으로 이루어져 연구자와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환하여 기록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통해 얻어진 자료와 어머니들이 영아에 대해 기

록해 놓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연구자의 생각과 느낌 등을 기록함으로써 육아일기는 연구자와 어머니의 대화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아 어머니들은 특이한 사건이나 영아의 행동, 또는 양육에 대한 갈등과 고민, 스트레스 등을 중심으로 육아일지를 써 나갔으며 이에 대해 연구자는 학자들의 이론을 검토하거나 연구자가 자녀를 키울 때와 유사한 사항일 경우 연구자의 양육 경험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어머니들이 양육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5) 기타 자료

연구 주제와 관련지어 관찰 내용의 분석을 위해 또한 영아와 어머니, 또래,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나 가정에서의 생활상, 영아의 부정확한 발음이나 사건의 앞 뒤 맥락에 대한 확인을 위해 비디오를 촬영하여 참여 관찰을 통해 얻어진 자료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보충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두 명의 영아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린이집에서 보내오는 연락장도 자료로 수집하여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3. 자료의 타당도 작업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성 개념은 양적 연구와는 그 개념이 다른 것으로 타당도 작업에 대한 일련의 학자들의 제안을 참고로 타당도 작업을 실행하였다. Wolcott(1994)은 질적 연구의 타당성이란 사실의 발견이나 궁극적인 대답을 추구하기보다 중요한 요소들을 좀 더 풍부한 해석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으며, Marriam (1998)은 타당성과 신뢰성의 준거

로 해석의 왜곡 방지와 래포의 형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 동안의 집중적인 관찰, 삼각측정법,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심층적 기술, 참조 자료(사진, 비디오 등)의 사용, 동료 연구자에 의한 조언과 지적,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의 평가 작업, 연구 국면에 대해 계속 묻고 평가하는 자기 감시 과정 등 7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뢰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1) 삼각 측정법

본 연구는 연구방법의 트라이 앵글레이션으로-참여관찰, 심층면담, 사진 촬영, 비디오 녹화, 어머니의 저널 쓰기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해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해석의 판단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2)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의 평가

연구 참여자이면서 정보 제공자인 어머니에게 저널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해석과 설명에 대한 검토를 거침으로써 자료의 의미와 분석에 대한 왜곡을 피하고자 하였다.

3) 심층적 기술-세부적 묘사

본 연구자는 세밀한 묘사를 위해 가능한 관찰 기록지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남기도록 했으며 세부적인 묘사를 위해 행동이 일어나는 전과후의 맥락적 정보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4) 참조자료의 사용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한 참조 자료로 사진 촬영을 실시하였으며 4회의 비디오 촬영을 통해 연구자의 현장 기억을 보조할 수 있는 자료로 삼았다.

5) 다른 동료 연구자들과 논의해 보기

연구자의 지도교수 및 질적 접근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쓴 몇몇 동료 연구자들에게 조언과 비평, 새로운 견해를 제시 받음으로써 연구자의 편견을 줄이도록 하였다.

6) 자기반성 과정

자기반성은 연구자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과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던 편견이나 모습을 들여다봄으로써 주관적으로 대상자들의 의미를 단정 짓지 않고자 하였다.

4. 자료의 분석과 해석

영아와 어머니들의 활동에 대한 참여관찰과 면담, 어머니들의 대화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모두 녹음하여 전사하였으며 이 외에도 어린이집에서 보내오는 교사와 어머니의 대화장, 저널 등의 문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현장노트, 면담 내용 사본, 육아일기식 저널, 어머니들의 대화를 수집한 이야기장, 비디오테이프이다. 문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는 질적 연구과정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그와 동시에 수시로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Spradley, 1980). 그러나 수집된 자료를 전사하는 시간으로 인해 분석과 해석을 수시로 하기 어려운 관계로 현장 노트에 메모된 자료와 녹음된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전사하여 연구일지를 정리하였으며 정리된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단어나 문장, 다양한 상황에서 느껴지는 연구자의 느낌 등을 메모

하고 약호화하여 즉각적인 예비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전사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즉, 관찰하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연구자의 의견을 자주 기록하였고 전사 과정에서 연구자의 의견을 토대로 논의의 여지가 있는 주제는 연구일지에 따로 표시를 하여 기록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자의 느낌이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됨으로써 연구자의 편견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의문점이나 사실 확인을 위해 부모와 면담을 하거나 문헌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의 초점을 맞춰 나갔다. 또한 보고 경험한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들려고 시도하면서 좀 더 심층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의 과정을 반복하면서(LeCompte & Preissle, 2003) 연구자는 자료 수집의 계속적인 부분으로서 모든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자주 관찰되는 현상들을 통해 연구 문제를 발견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해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가정을 중심으로 영아와 어머니의 자연스러운 일상사를 들여다봄으로써 영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회화 되어가며, 그 과정에서 어머니 역할은 상황적 맥락과 연계되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탐색을 통해 어머니 역할의 역동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참여 관찰과 면담, 어머니의 저널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른 결과 및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영아의 자아개념 형성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

: 사회적 관계 중심의 자기 인식 지원하기

자아개념이란 일반적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갖는 신체적 특성이거나 능력, 심리적 느낌이나 태도를 포함하는 개인적 견해를 말하는 것이다(Shaffer, 1994). 그러나 인간은 초기에는 자아개념이 없으며 자아개념은 자기 인식으로부터 싹트기 시작한다. 자아개념의 기본 요소는 자기인식이며 영아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남이 다르다는 것을 점차 인지해 나가기 시작함으로써 자아에 대한 상을 형성해 나간다. 자아는 ‘나(I, Me)’로 간주되며 ‘나’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보는 모든 것 즉, 자기 이름이나 소유물 또는 생김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Cooley, 1930) 자아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 발달되어 간다(Mead, 1934). 즉, 의미 있는 타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와 같은 사회적 경험은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

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들은 가장 중요한 타자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영아의 이름을 불러주거나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소유권 알려주기, 영아 중심의 호칭 사용하기, 영아의 행동에 대해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해주는 등의 역할을 통해 영아가 자기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음이 보여 졌다. 즉, 어머니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남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인식하도록 영아들을 유도하고 있었다.

1) “준석아, 멋진 신준석!” : 영아 이름 불러주기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이름을 가지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는 기준을 갖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이름을 묻게 되며 이름을 통해 사람들을 구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이름은 사람과 사람을 구별해주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어머니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영아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고 많은 상황에서 영아의 이름을 통해 상황들을 언급하였다.

태현이가 쇼핑카 안에서 마이크를 찾아 들어 입에 대고 “아. 아. 아.”

태현모: 우리 태현이 가수네.

태현: (더 신이 나서) 아. 아. 아.

준석이가 태현이 곁으로 다가 간다.

준석모: 준석이 마이크 제일 좋아하지? 준석이 노래하자.

(관찰, 2006. 3. 9, 준석·태현: 18개월)

수지가 사과 한 개를 엄마에게 갖다 준다.

수지모: 수지가 가져왔어? 엄마 먹으라고. 고마워 수지야.

(관찰, 2006. 4. 12, 수지:18개월)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어머니들은 영아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마다 영

아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불리지는지를 알려주었다. 즉, ‘너’, ‘네가’ 등의 대명사가 아닌 ‘준석이’, ‘태현이’, ‘수지’ 라는 구체적인 명칭의 사용을 통해 다른 사람과는 다른 자신만이 가지는 독특성을 깨닫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들은 생활 속의 작은 사물이나 사건을 통해서도 영아의 이름과 연계지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창문 아래쪽에 성에가 끼어 있어 뿌엩다.

엄마가 창문에 손가락으로 ‘유수지’라고 글씨를 쓰며 “수지야 이거 봐라. 유---수----지, 네 이름이야.”

수지: 수지?

수지모: 그래. 수지. 네 이름이잖아. 예쁜 네 이름.

(관찰, 2006. 2. 16, 수지:16개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지의 어머니는 창문에 낀 성에에 수지의 이름을 써서 보여 주며 이름을 한자 한자 강조하여 불러준다. 수지는 엄마가 불러주는 자신의 이름을 따라 그대로 불러봄으로써 남과 다른 자신의 이름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성을 새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영아들은 가정에 있는 사물 즉, 거울이나 장식장의 유리, 텔레비전 등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웃기도 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는 현상이 보여 졌는데, 이 때 어머니들은 사물 속에 비춰진 영아가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 등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영아가 자신의 신체를 탐색함으로써 자신을 의식하도록 돕기도 하였다.

준석이 거울을 들고 쳐다본다.

거울 속의 모습을 보고 “하하하~”소리 내어 웃는다.

준석모: 준석아 거울 속에 누가 있어?

준석: 응.

거울을 잡아당겨 더 가까이에서 본다.

준석모: (준석이의 신체 부분을 가리키며) 준석이 얼굴, 코, 눈, 입....

준석이는 웃으며 엄마가 가리키는 신체 부위를 따라서 가리킨다.

준석모: 준석이지? 멋진 신준석. 신준석 해 봐.

준석: (웃으며) 응.

(관찰, 2006. 3. 16, 준석:18개월)

위의 사례에서 준석이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생김새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에 엄마는 거울 속에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묻고 준석이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준석이의 신체 즉, 얼굴, 코 입 등에 대해 언급해주었다. 이를 통해 준석이는 자신의 이름과 거울 속에 비쳐진 자신의 모습을 연결함으로써 자신의 상을 정확하게 깨닫고 남과 다른 자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들은 영아의 이름을 언급해 줄 때 이름 앞에 ‘예쁜’, ‘멋진’, ‘잘 생긴’ 등의 수식어를 붙여 불러주었으며, 그럴 때 영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따라하거나 엄마와 사물에 비쳐진 자기의 모습을 번갈아 쳐다보며 웃기도 하였다. 이 때 영아들이 보여주는 웃음과 미소는 자신의 이름 앞에 붙여지는 수식어가 주는 긍정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쁨의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경험들은 영아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 개념 및 자아 존중감을 확립하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영아와 생활하는 가운데 종종 집 안 곳곳에 전시 되어 있는 가족사진 속에서 영아를 찾아보게 하거나 영아의 사진을 가져오도록 제안함으로써 자신의 이름과 생김새를 연결하는 경험을 제공 하였다.

태현모: 태현이 어디 있지?

태현이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킨다.

태현모: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아니 여기에도 태현이 있네. 어디 있나 찾아보자.

태현이 사진을 쳐다보더니 손가락으로 자신의 모습을 가리킨다.

태현모: 태현이가 거기에 있었네.

(관찰, 2006. 3. 16, 태현:18개월)

위의 사례에서 태현이 엄마는 자주 생활 속에서 ‘태현이 어디 있지?’와 같은 질문을 하였으며 태현이는 자신을 가리킴으로써 ‘태현이’라는 소리가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집 안 곳곳에 있는 사진 속에서 태현이를 찾아보게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아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 봄으로써 남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통해 독특한 자아상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사례 1>

수지는 거울 앞으로 가 자신의 모습을 비쳐본다.

수지모: 거울에 비친 모습 누구예요?

수지: 수지

수지모: 재는 참 이상해요. 수지를 가리키며 누구냐고 물으면 꼭 ‘수지’라고 대답해요. ‘나’라고 대답하지 않고.

태현모: 우리 태현이도 그래. 꼭 태현이래. 태현이 장난감 가리키며 ‘누구 거야?’하고 물으면 ‘태현이’하고 말해. 나는 나라는 말을 못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말 잘하는 수지도 그런 것 보면 그게 아닌가보다.

(관찰, 2006. 4. 6, 수지:18개월, 태현:19개월)

<사례 2>

수지모: (수지를 가리키며) 누구야?

수지: 수지.

수지모: (태현이와 준석이를 번갈아 가리키며) 누구야?

수지: 아기!

수지모: (다시 수지를 가리키며) 누구야?

수지: 수지.

수지모: 너는 수지고 준석이와 태현이는 아기야? 친구잖아. (준석·태현을 가리키며) 준석이고 태현이잖아. ‘준석(태현)아’ 해 봐.

수지: 아기.

(관찰, 2006. 3. 12. 수지: 17개월)

이와 같은 경험들을 통해 영아들은 어머니에 의해 알게 된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수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위의 사례 1에서 보듯이 수지의 엄마는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 수지에게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다. 그러자 수지는 ‘나’가 아닌 구체적인 자신을 지칭하는 이름 즉, ‘수지’라고 대답한다. 태현이 또한 어머니나 다른 사람에 의해 불리지는 ‘태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세 영아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사례 2에서 수지 엄마는 수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또 준석이와 태현이가 누구인지를 물어본다. 이에 수지는 자신을 가리킬 때는 ‘수지’라는 자기의 이름으로 대답을 하지만 또래인 태현이와 준석이에 대해 물었을 때는 ‘아기’라고 대답함으로써 ‘수지’라는 이름은 자기만을 지칭하는 것이며 영아는 이름을 통해 자기에 대한 상(象)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이 시기 영아는 이름에 의해 자기의 존재를 인식할 수는 있지만 타인의 존재까지는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2) 영아 중심의 호칭 사용하기

어머니들은 생활 속에서 직접 만나는 사람이나 텔레비전이나 책, 그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오빠, 언니, 누나, 형, 이모, 삼촌 등과 같은 친족 호칭을 사용하였다. 이 때 어머니들은 영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자신의 관점이 아닌 영아의 관점에서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사례 1>

책에서 여자 아이의 그림이 나오자,

수지모: 언니다. ‘언니’ 해 봐.

수지: 언니.

여자 어른의 그림을 보고,

수지: 이모.

(관찰, 2006. 2. 9. 수지:16개월)

<사례 2>

수지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남자아이를 가리킨다.

수지모: 오빠 나왔어? 오빠네.

수지와 엄마는 함께 책을 본다. 책에 여자아이의 그림이 보인다.

수지모: 누구야?

수지: 아가.

수지모: 아가? 수지 보다 언닌데. 언니지 언니.

(관찰, 2006. 3. 12, 수지:17개월)

<사례 3>

태현이와 준석이가 길에 놓여있는 자전거를 타려고 한다.

그 때 자전거의 주인인 유치원생이 다가온다.

태현모: 태현아 누나 자전거인가보다. 누나 줘.

태현이 유치원생을 쳐다보더니 다른 곳으로 간다.

(관찰, 2006. 6. 10, 태현:21개월)

사례 1과 2에서 보듯이 수지의 엄마는 여자 아이의 그림을 보고 ‘언니’라는 호칭을 가르쳐주고 남자 아이의 그림을 보고는 ‘오빠’라고 수지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태현이 엄마 또한 태현이의 관점에서 유치원생에게 ‘누나’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칭은 자신의 관점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지만 영아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영아들의 관점에 적절한 호칭을 사용해줌으로써 호칭 사용에 대한 모델링을 보임과 동시에 영아가 자신의 관점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3) 사물에 대한 소유권 알려주기: 자기와 타인의 경계 알게 하기

영아들은 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물을 접하고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기도 한다. 때로는 그러한 호기심으로 이 이러한 호기심을 보일 때 어머니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내 것과 남의 것의 소재를 알려주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타인과 자신의 경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조장하였다.

<사례 1>

수지네 집에 손님이 오셔서 수지의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수지 손님(아주머니)의 가방으로 가더니 가방에서 필기도구 한 세트를 꺼내 가져온다.
수지모: 아줌마 꺼야. 수지야 꺼내면 안 돼. 수지 것은 여기 있네.
수지의 책장 위에 놓여있던 색연필을 꺼내준다.

(관찰, 2006. 2. 8, 수지:16개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지는 자기 집에 온 손님의 가방에 들어있는 필기도구를 꺼낸다. 이에 엄마는 수지에게 가방에서 꺼낸 필기도구는 다른 사람의 것임을 알려주고 수지의 색연필을 꺼내 줌으로써 자기와 타인의 물건을 구분하게 하였으며 수지는 이러한 어머니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수지는 각 사물과 사람을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어머니들은 영아들에게 사물을 줄 때 따로 나누어 줌으로써 자신의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도록 하였다.

준석이 엄마가 포도를 가지고 나온다.

준석모: 자 포도 먹자. (접시를 하나씩 영아들 앞으로 주며) 이건 태현이 것, 이건 준석이 것.

태현이 양손으로 두 접시를 감싼다.

준석모: (웃으며)아니야. 이건 준석이 것이고 이건 태현이 것이지?
그러자 태현이 한 손을 내린다.

(관찰, 2006. 5. 25, 준석·태현:20개월)

애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하나에 주면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따로 나누어 줘요. 그러면 자기 것하고 친구 것하고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주면 우리 준석이는 절대 남의 것은 안 건드려요.

(면담, 2006. 5. 25)

사례에서 보듯이 준석이 엄마는 포도를 두 접시에 나누어 각자에게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태현이는 두 접시 모두 차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본 준석이 엄마는 준석이 것과 태현이 것이 따로 있음을 알리고 서로의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태현이는 준석이의 엄마의 제안을 수용하여 자신의 손을 접시에서 떼었다.

영아들은 남과 다른 자신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과 자신의 존재를 점차적으로 인식해 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즉, 영아들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남의 것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소유물을 통한 자기 존재 인식을 보여주었다.

<사례 1>

태현이가 젓병을 물고 누워서 우유를 먹는다.

준석이 엄마에게 가서 “응”하고 소리친다.

준석모: 너도 달라고?

준석이 우유병을 물고 누워 있는데 수지가 우유병 뚜껑을 만지작거리자
준석이 손가락으로 뚜껑을 가리킨다.

준석모: ‘그거 내꺼야?’ 하는 거야? 그래. 준석이 것이지?

수지는 우유병 뚜껑을 놓고 엄마 품으로 달려든다.

(관찰, 2006. 3. 2, 태현:18개월, 수지:17개월)

<사례 2>

수지의 물병을 보고 준석이 먹으려고 한다.

수지모: 수지 것인데 준석이 먹을래?

준석이 먹으려다가 수지에게 준다.

(관찰, 2006. 4. 12, 준석:19개월, 수지:18개월)

사례 1에서 준석이는 자신의 소유물인 우유병 뚜껑을 수지가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동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한다. 이에 수지는 우유병 뚜껑을 제자리에 놓아둠으로써 자신의 물건이 아님을 인정하였고 준석이의 주장을 수용하였던 것이다. 사례 2에서도 준석이는 수지의 물병을 보고 먹으려는 행동을 한다. 이를 본 수지 엄마가 수지의 물병임을 이야기하자 얼른 수지에게 돌려줌으로써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어머니들은 사물에 대한 소유권을 영아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자신의 소유물과 타인의 소유물을 구분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영아는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소유권 주장을 통해 사물과 자기 존재간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과 존중은 도덕성의 기초를 이루기도 한다.

4) “일 썼네. 일!”: 영아의 행동과 사회적 의미 연결하기

영아는 호기심을 갖고 주변을 탐색하며 또 탐색을 통해 행동을 모방해보고자 시도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경험 세계를 확대해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여 지는 영아의 단순한 행동에 어머니들은 행동이 일어난 상황적인 맥락에 의거하여(장유경·김소연, 2005) 영아의 행동을 해석해 줌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를 통해 영아는 자신이 된

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준석이 벽을 잡고 자동차에 올라가다가 부엌의 전기 스위치를 우연히 누른다.

준석이모: 준석아, 불 켜어? 캄캄하네. 이제 환하게 켜보자.

준석이 웃더니 스위치를 다시 누른다. 불이 켜진다.

준석이모: 와! 환해졌네. 준석이가 불을 켜구나.

준석이는 계속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켜다 껐다를 반복한다.

(관찰, 2006. 5. 25, 준석:20개월)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준석이는 우연히 전등의 스위치를 끄게 되었고 이모는 준석이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야기한다. 이에 준석이는 스위치를 누르는 자신의 행동이 흥미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고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봄으로써 자기 존재와 능력을 깨달아가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들은 영아의 행동을 해석할 때, 자신이 가진 사회적 가치 기준에 의거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영아의 단순한 몸짓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으로 전환되어 갔다. 즉, 영아의 단순한 움직임이나 몸짓을 보고 어머니는 자신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사회적 의미를 부여해주었으며 이를 통해 영아는 자신의 행동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깨닫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를 형성해나가는 것이다

<사례 1>

수지가 필통에서 펜을 꺼내기 시작한다.

엄마: 수지야 쓰려고?

스케치북을 수지 앞 쪽에 놓아준다. 수지가 펜을 들어 아래로 짝 긁는다.

수지모: 일 썼네. 수지가 일을 썼구나. 아래로 짝!

수지는 몇 번 선을 더 긁는다.

엄마: (펜을 들고 아래로 그으며) 일. 일. 일! 수지도 엄마도 일!

(관찰, 2006. 2. 23, 수지:16개월)

<사례 2>

가방을 내려놓고 매트 인형을 눕혀서 안고 있다.

엄마: 자장 자장하는거야?

그러자 수지는 인형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살짝 두드린다.

(자장자장 하듯이)

(관찰, 2006. 2. 26, 수지: 16개월)

위의 사례 1에서 보듯이 수지의 엄마는 필통에서 펜을 꺼내는 수지의 행동을 보고 펜의 활용성을 준거로 해서 쓰는 행위를 하려는 것으로 파악하여 수지에게 질문을 한 후, 수지가 쓸 수 있도록 종이까지 준비해 준다. 또한 수지가 종이에 아래로 긁는 선을 보고는 ‘일’을 썼다는 칭찬을 통해 아래로 긁기 활동을 강화시켰을 뿐 만 아니라 아래로 긁는 선의 사회적 의미는 숫자 ‘일’과 ‘쓰기’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사례 2를 보면 수지의 어머니는 인형을 눕혀서 안고 있는 모습에서 잠을 자는 행동을 연상하여 ‘자장자장 하는 거야?’라는 질문을 통해 자장자장 하는 수지의 행동을 이끌어냄으로써 두드리는 행동이 우리 사회에서 잠을 재우는 행동임을 깨닫게 했던 것이다.

또한 어머니들은 사물의 모양이 주는 이미지를 통해서도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여 영아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사례 1>

글자 붙이기 놀잇감의 ‘ㅇ’을 손가락에 끼워 엄마에게 보여준다.

준석모: 준석아 이게 뭐야? 반지구나. 우리 준석이 반지 껴네. 예쁘다.

(관찰, 2006. 3. 2, 준석:18개월)

<사례 2>

수지가 둥그런 테이프를 손목에 끼고 돌리고 있다.

수지모: 수지야 팔찌 샀네? 예쁜 팔찌.

수지: 팔찌? 응.

수지모: 수지 팔찌 예쁘다.

(관찰, 2006. 3. 9, 수지:17개월)

위의 사례1에서 보듯이 준석이의 엄마는 준석이가 글자판에서 ‘ㅇ(◎ 모양으로 되어 있었음)’ 글자를 떼어 손가락에 끼는 행동을 보고 ‘반지 꼰네’라고 영아의 행동을 해석해주었다. 준석이는 어머니의 해석에 의해 동그란 모양을 손가락에 끼운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서 반지 끼는 행동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사례2에서도 수지의 엄마는 동그런 모양의 테이프를 손목에 감고 있는 수지의 행동을 보고 팔찌를 차고 있다고 해석해 주었으며 수지는 엄마의 말을 그대로 따라해 봄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만들어 낸 사회적 가치를 되새겨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영아의 인지발달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인생초기부터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들은 영아의 행동을 언어로 해석해 주거나 표현해 줌으로써 영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들여다보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아는 자신의 행동과 사회적 의미를 연결할 수 있게 된다.

2. 영아의 또래 관계 형성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

또래 관계는 사회화가 일어나는 미시체계의 하나로 아동은 또래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뿐 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황혜정, 2003). 따라서 영아는 자신과 동등한 수준의 또래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대인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즉, 협동심이나 타협을 필요로 하는 또래관계를 통해 영아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나 행동은 줄어들고 점차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규범을 배워나가게 될 것이다(Rubin, Bukowski, & Parker, 1998).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영아들은 또래와 사물을 두고 갈등을 하거나 서로의 힘을 견주는 경험들을 통해 또래를 파악하고 또래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한 많은 기술들을 습득해 나가는 양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영아들에게 또래관계에서 필요한 기술을 제안하거나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또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은 어떠한지, 또래 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 습득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은 무엇이며 어머니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영아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도록 유도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1) 또래 인식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

: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또래 인식 조장하기

영아들은 또래를 처음 만나 서로를 쳐다만 보거나 장난감만을 가지고 놀았으며 또 주변을 탐색하는 가운데 또래를 탐색하는 등의 행동으로 서먹서먹한 관계를 보이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영아가 또래와 빨리 친해지기를 위하여 서로 접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함께 놀이하도록 유도하였다. 즉, 어머니들은 영아를 소개하고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친구의 행동을 칭찬하도록 유도하고 서로 다툼이 생길 때는 행동적인 표현을 통해 친구의 개념을 가르쳐 주고자 하였으며 영아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또래를 알아가는 양상이었다.

(1) 또래 소개하고 서로를 파악할 기회주기

태현이와 준석이는 연구자를 만나기 이전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지만 수지와는 아기 때 한 번 보고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었다. 수지와 수지의 엄마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준석이와 태현이를 맞이하였다. 수지의 엄마는 자신의 집에 처음 오는 태현이와 준석이를 수지에게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소개해 주었다.

수지모: 수지야 애가 준석이야. ‘준석아’ 해 봐.

수지: 준석아.

수지모: 태현이도 왔네. 수지야 태현이야. 태현이.

수지: 태현이?

(관찰. 2006. 3. 2, 수지:17개월)

준석이는 수지네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수지를 한번 쳐다보고는 쇼핑카를 밀고 나오더니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장난감들을 꺼내오고 수지는 준석이를 쫓아다니며 쳐다보았다. 태현이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탐색을 하고 있었다. 즉, 준석이는 수지네 집에 있는 장난감을 직접 꺼내서 만져보고 굴러보기도 하였으며 태현이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수지와 준석이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래의 사례와 같이 수지가 색연필을 꺼내 그림을 그리자 준석이도 다가와 색연필 한 자루를 잡는다. 이를 본 태현이도 일어서서 다가와 색연필을 잡지만 수지는 태현이의 행동을 제지시키고자 하였다. 수지 엄마는 수지에게 태현이에게도 나누어 줄 것을 제안하지만 태현이 엄마는 서로를 파악하기 위한 행동인 것 같다며 그냥 놔두자고 제안하였다.

수지가 색연필을 꺼내 그림을 그리자 준석이 다가와 색연필 한 개를
집어 든다.

그때서야 태현이도 일어서서 걸어와 색연필을 잡는다.

수지는 준석이 색연필 만지는 것은 가만히 두더니 태현이가 만지자
뺏는다.

수지모: 수지야 태현이도 주는 거야. 준석이는 주고 왜?

태현모: 그냥 놔 두자. 지금 서로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애.

그러나 태현이는 뺏기지 않으려고 힘을 주었고 수지는 빼앗지 못한다.

(관찰, 2006. 3. 2, 수지:17개월, 준석:18개월)

또한 어머니들은 또래와의 문제 상황은 서로를 파악하는 기회가 될
뿐 만 아니라 또래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
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준석이 태현이의 자동차를 뺏으려고 한다.

태현이는 “아니”하며 뺏기지 않으려고 몸을 이리저리 움직인다.

준석모: 재네 봐. 자기들끼리 해결하게 그냥 놔 두 보자. 그래야 서로를
알지.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것도 배워야 돼.

태현이는 자동차를 지켰고 빼앗지 못한 준석이는 태현이를 쳐다본다.

태현모: 그래 잘했어. 뺏기지 마.

준석모: 애(준석)이 봐. 태현이가 가지고 노는 놀잇감은 뺏으려고 하지만
수지 것은 빼앗지 않잖아. 수지는 처음 봐서 아직 낯선 거야. 조금 있으
면 달라질 걸.

(관찰, 2006. 3. 2, 준석·태현:18개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준석이는 태현이의 자동차를 빼앗으려고 하였
으며 이를 본 준석이의 엄마는 지켜봄으로써 영아가 서로를 파악해 나
가고 그를 통해 문제 상황도 해결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준석이는 처음 만나는 수지에게는 선뜻 다가가
지 않았으며 몇 번의 만남이 있었던 태현이의 장난감을 빼앗으려는 시
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으며 그 때마다 어머니들은 지켜보기만 하였

고 태현이는 꼭 쥐고 있는 방법을 통해 장난감을 지켜내었다. 서로를 만난 지 한 시간 정도가 지난 후 준석이는 드디어 수지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지 또한 준석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것을 지키려 하였다.

수지가 피아노 건반을 두드린다.

준석이 다가와 수지의 손을 친다.

수지도 준석이의 손을 치며 건반을 만지지 못하게 한다.

그러자 준석이 수지의 얼굴을 때린다.

수지는 준석이의 손을 친다.

준석이 다시 수지를 때리고 수지도 준석이를 때린다.

그러자 준석이가 문(미닫이) 있는 곳으로 간다.

(아래의 사례와 연결되는 상황임)

준석이는 건반을 두드리고 있는 수지의 손을 침으로써 수지의 반응을 살피고 수지는 준석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방어하였으며 몇 번의 반복 끝에 준석이 한발 물러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영아들의 행동을 그대로 두고 지켜보았으나, 영아들이 점차적으로 더 강한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들의 개입은 시작되었다.

잠시 후, 준석이 다시 다가가 수지의 손을 친다.

그러자 수지가 준석이의 머리를 때린다.

수지모: 수지야 그렇게 하지마. ‘준석아 미안해’ 해.

그러자 수지 준석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엄마 품으로 달려들며 “엄마 찌찌” 한다.

(관찰, 2006. 3. 2, 수지:17개월, 준석:18개월)

수지는 준석이 자꾸 다가와 자신을 괴롭히자 좀 더 강하게 준석이의 머리를 때림으로써 하지 말라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고 이를 본 엄

마는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준석이에게 사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수지는 엄마의 판단이 불공정하다고 여겨 준석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의 피난처인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어머니들은 영아가 다 힘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를 알아갈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강한 공격성이 보일 때는 재빠르게 개입하여 영아의 행동을 조절하고자 하였다.

(2) ‘우린 친구지’와 안아주기: 친구의 개념 소개하기

영아들의 힘 사용은 또래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출현하는 양상이었으며 어머니들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가 친구임을 알려주고자 하였다. 즉, ‘우린 친구지.’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서로 손을 잡거나 악수하기, 안아주기 등의 행동을 제안함으로써 구체적인 행동으로 친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였다.

준석이가 거실 바닥에 누워 있자 수지가 준석이 위에 엎어져서 눈과 코를 만져본다.

그러다가 갑자기 준석이의 코를 꼭 누른다. 준석이는 가만히 있다.

수지모: 어 그러면 안 돼. 친구잖아. ‘친구야, 미안해’ 하고 손잡아 줘.

그러자 준석이가 수지의 손을 잡는다.

수지: 미안해.

둘이 손잡고 부엌으로 간다.

수지모: 딱딱딱따~~~, 딱딱딱따~~~친구야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거지?

(관찰, 2006. 3. 16, 수지:17개월, 준석:18개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지는 준석이의 얼굴을 이리저리 들여다보며 만진다. 그러다가 코를 세게 누르는 행동을 보고 수지의 엄마는 언어적

인 제지를 통해 수지의 행동을 멈추게 하였으며 동시에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친구에게 잘못된 행동을 사과하는 의미에서 손을 잡아주도록 하였으며 수지와 준석이는 엄마의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엄마는 수지의 행동을 통해 친구가 무엇인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언어적인 타이름과 손잡는 행동을 통해 친구의 개념을 알려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한 사례1, 2에서와 같이 수지와 준석이는 놀잇감을 가지고 다투다가 수지가 준석이를 때리자 수지의 엄마는 친구를 때리는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서로를 안아주도록 함으로써 친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이이고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관계임을 인식하도록 이끌고 있었다.

<사례 1>

수지와 준석이가 놀잇감을 가지고 다투다가 준석이가 수지의 얼굴을 때린다.

준석모: 준석이 이리와. 친구 때리 지마. 수지는 친구야. 친구! '친구' 해 봐. '사랑해'하는 거야.

준석이의 몸을 수지 쪽으로 돌리자 준석은 수지를 살짝 껴안는다.

준석모: 수지야 준석이가 미안하대. 사랑한대.

수지는 가만히 준석이를 쳐다본다.

(관찰, 2006. 3. 2, 수지:17개월, 준석:18개월)

<사례 2>

준석이 미끄럼대를 밟고 미끄럼틀로 올라간다.

준석이 내려오려다가 수지를 보고 뒤로 물러나 앉는다.

수지모: 준석아 수지 올라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자 갑자기 수지를 밀치려고 한다.

수지모: 준석아 우린 친구지.

둘을 한꺼번에 안더니, 준석이와 수지를 서로 안아주도록 한다.

수지모: 수지하고 준석이는 사이좋은 친구지?

(관찰, 2006. 5. 25, 준석:20개월, 수지:19개월)

이와 같이 어머니들은 상황에 따라 영아들에게 안아주거나 손을 잡는 행동과 ‘사랑해’, ‘사이좋게 지내자’등의 언어를 통해 친구란 무엇이며 서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가르치고자 했으며 영아들은 이러한 가르침과 만남의 반복을 통해 또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서로에게 친근한 감정을 느낌으로써 또래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주기도 하였다.

<사례 1>

준석이 태현이에게 기차를 가져다준다. 태현은 말없이 받는다.

태현모: 준석이는 자동차 종류는 다 태현이 것인지 알아. 저거 봐. 알아서 가져다주잖아.

(관찰, 2006. 4. 12, 태현:준석:19개월)

<사례 2>

태현이가 밖에 나가자고 현관 앞에서 울고 있다.

엄마가 태현이를 달래고자 하는데 준석이가 장난감 버스를 가지고 나와 태현이 앞에 놓는다.

태현이는 장난감 버스를 보더니 울음을 그치고 버스를 밀며 놀이한다.

(관찰, 2006. 5. 10, 태현:20개월)

위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20개월인 준석이는 태현이가 자동차를 무척 좋아한다는 것을 파악하여 자동차를 보면 태현이에게 가져다주었으며 태현이가 밖에 나가자고 우는 상황에서도 준석이는 태현이가 좋아하는 자동차(장난감 버스)를 가져다줌으로써 태현이의 마음을 달래고자 함으로써 이 시기의 영아들도 친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며 타인을 위로할 줄 아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또래에 대한 친근한 마음은 또래가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속상해할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행동으로 표출됨으로써 또래간의 의사소통을 하였다.

<사례 1>

태현이 탁자에 올라간다. 준석이 소파에서 일어나 손짓하며 “떠러어”하고 소리를 지른다.

수지도 자동차를 타다가 일어나 “이놈!” 한다.

태현모: 그래. 이놈 맞다.

태현이 탁자에서 내려오더니 웃는다. 준석이와 수지도 마주보며 웃는다.

(관찰, 2006. 6. 16, 태현·준석:21개월, 수지:20개월)

<사례 2>

태현이가 자동차가 다니는 길 쪽으로 걸어간다.

수지가 이를 보고 “일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며 태현이 엄마를 쳐다본다.

태현모: 태현이 걱정돼서 그러는구나. 괜찮아. 태현이 멀리 안 갈 거야.

그제 서야 안심이 되는 듯 수지는 놀이를 한다.

(관찰, 2006. 6. 23, 태현·준석:21개월, 수지:20개월)

사례1에서 보듯이 수지와 준석이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태현이가 염려스러웠으며 내려오라는 손짓과 능숙하지 못한 말로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였고 태현이는 친구들의 마음을 읽고 내려옴으로써 친구의 염려에 보답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영아들은 웃음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교류하고 친근한 서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시기 영아들도 친구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3) 친구의 행동 칭찬하도록 유도하기

어머니들은 또래의 행동을 서로 칭찬하게 함으로써 또래의 행동을 인식하게 하고 그를 통해 서로의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였다. 즉, 또래가 자신에게 무엇을 나누어 준다든가 어떤 일을 완수했을 때 박수를 치게 함으로써 고맙다는 뜻을 전하게 하거나 잘했다는 칭찬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긍정적인 눈으로 또래를 바라보도록 하였다.

<사례 1>

태현이 강아지 인형을 들고 있다.

수지가 태현이의 인형을 잡아당긴다.

태현이 수지에게 인형을 준다.

태현모: 태현이 잘 했어요.

수지모: 수지도 박수쳐야지. 태현이가 인형 줬잖아.

하며 박수를 치자 수지도 함께 박수를 치며 웃는다.

(관찰, 2006. 3. 9, 태현:18개월, 수지:17개월)

<사례 2>

준석 엄마가 바나나 한 개를 준석이에게 준다.

준석이 껍질을 벗기더니 반을 잘라서 태현이에게 준다.

준석모: 준석이가 태현이 바나나 줬어? 박수!

태현이 엄마가 같이 박수를 친다.

태현모: 태현이도 박수 쳐야지. 준석이 잘했다고....

태현이 웃으며 박수를 친다.

준석이는 신난다는 듯이 뛰어서 방으로 들어간다.

(관찰, 2006. 5. 15, 준석·태현:20개월)

사례1에서 태현이는 수지에게 인형 주는 행동을 통해 친근함을 나타냈으며 태현이 엄마는 태현이의 이러한 행동을 칭찬함으로써 또래에 대한 호의적인 표현을 격려하였다. 수지의 엄마 또한 태현이의 행동을 박수로 칭찬함과 동시에 수지도 태현이의 행동을 칭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또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사례2에서도 바나나를 잘라서 나누어 주는 준석이의 행동에 태현이 엄마는 태현이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더불어 잘 했다는 의미로 박수를 치게 함으로써 준석이의 행동을 칭찬하게 하였으며 준석이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나오는 행동을 통해 기쁨을 표현함으로써 긍정적인 감정의 교류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현이가 자동차를 세 개 쌓고 “엄마”한다.

태현모: 태현이가 자동차를 쌓았어? 잘 했어요.

수지모: 와아, 수지야 태현이 좀 봐. 자동차 쌓았네. 태현이 잘 했다고 박수 쳐주자.

수지는 태현이를 보며 박수를 친다.

태현이도 수지를 쳐다보며 웃는다.

(관찰, 2006. 4. 19, 태현:19개월, 수지:18개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지 엄마는 자동차 쌓기에 성공한 태현이의 행동을 수지와 함께 박수로 칭찬하였으며 이에 기분이 좋아진 태현이와 수지는 서로 마주보며 웃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지와 태현이는 긍정적인 감정을 상호 교류하게 될 것이고 긍정적인 감정의 교류는 원만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2)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사회적 기술 습득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

: 타인 배려적인 또래 관계 지원하기

영아들은 또래와 상호작용을 할 때 사물 중심적인 특성을 지니며(이영자 외, 2001), 동시에 같은 사물을 향할 때는 갈등 상황이 유발되기도 한다. 실제로 놀잇감으로 인한 또래 갈등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어머니들은 또래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상황에 맞는 놀이방법을 제안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대안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기르도록 도움으로써 원만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양상이었다.

(1) '양보하자'와 빌려주기: 놀잇감 사용 방법 제안하기

영아들의 놀잇감 다툼으로 인한 갈등은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이 때 어머니들은 상황에 따라 놀잇감 사용 방법에 대한 제안을 통해 또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또래에게 놀잇감을 양보하게 한다든가, 서로 바꾸어 놀이하자 등의 제안을 통해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놀잇감 사용 방법을 영아들에게 알려주었다.

수지는 마이크를 들고 엄마와 함께 노래를 부른다.

“아빠 힘내세요~~~”

그 때 준석이 다가와 수지의 마이크를 뺏으려고 한다.

수지모: 수지야, 마이크 준석이에게 주자. 수지 물건 친구에게 빌려주는 거야. ‘준석이 가지고 놀아’하자. 응? 준석이 주자.

수지는 엄마 얼굴을 쳐다보며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

수지모: 준석이한테 잠깐 빌려주는 거야.

수지엄마가 마이크를 살짝 빼내서 준석이한테 준다. 준석이는 마이크를 입에 대고 “아아~”하고 있으며 수지는 준석이 노래하는 것을 지켜본다.

(관찰, 2006. 3. 9, 수지:17개월, 준석:18개월)

수지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데 준석이 다가와 뺏으려고 한다. 이에 수지의 엄마는 마이크가 수지의 것임에 준석이에게 빌려주자는 말로 다툼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수지는 빌려주자는 말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음에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엄마는 수지 손에 쥐어진 마이크를 살짝 빼내어 준석이에게 전해 준다. 즉, 수지의 엄마는 마이크가 수지의 것이었음에 준석이에게 빌려주자는 제안을 하였던 것이고 빌려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수지는 엄마의 얼굴을 살핍으로써 그 말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하였으며 수지의 엄마는 마이크를 준석이에게 전해줌으로써 빌려주는 것에 대한 모델링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아래의 사례에서 보듯이 어머니들은 놀잇감 다툼이 벌어질 때 영아들에게 ‘양보하자.’라든가 또는 ‘서로 바꾸어 노는 거야.’ 등의 말로 다툼을 완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영아들은 어머니의 제안에 순순히 따르는 양상이었다.

태현이가 변기를 끌고 거실로 와서 앉는다.

수지가 태현이를 밀려고 한다.

수지모: 수지야 태현이에게 양보하자. ‘태현아 네가 먼저 가지고 놀아.’하자.

수지가 엄마를 쳐다보며 변기에서 손을 떼더니 쇼핑카를 민다.

(관찰, 2006. 3. 16, 태현:18개월, 수지:17개월)

어머니들은 놀잇감으로 인한 갈등이 유발할 때 놀이 방법에 대한 제안을 통해서도 놀잇감 다툼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즉, 아래의 사례는 준석이가 자동차를 타려는데 수지가 준석이의 뒤에 무턱대고 앉아버림으로써 놀잇감 다툼이 발생하게 된 상황이다. 이 때 수지의 어머니는 서로를 밀어주고 번갈아 타는 놀이방법을 제안함으로써 놀잇감 다툼을 해소하였을 뿐 만 아니라 영아들은 이를 통해 놀이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가짐으로써 어머니의 제안으로 배운 놀이 방법대로 놀이를 실행하기도 하였다.

준석이가 봉봉카를 타자 수지가 뒤로 가서 준석이 뒤에 무조건 앉는다.

수지모: 준석이 먼저 타고. 수지는 준석이 밀어주자. 서로 번갈아 타는 거야.

그러자 수지가 준석이의 자동차를 밀어준다.

잠시 후, 수지가 자동차를 타자, 놀이방에서 놀고 있던 준석이 달려와 밀어준다.

(관찰, 2006. 5. 11, 준석:20개월, 수지:19개월)

영아들은 이러한 행동의 반복 과정을 통해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이

해하게 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의 증진을 통해 서로의 놀잇감을 자동적으로 교환하여 사용하거나 번갈아가며 놀이를 하기도 하였다.

태현이와 준석이가 자동차를 탄다.

준석이는 뽕뽕이 차를, 태현이는 그 보다 작은 낮은 자동차를 탄다.

잠시 후 준석이가 자동차에서 내려 놀이방으로 가자, 태현이가 뽕뽕이 차를 탄다.

준석이 놀이방에서 나오더니 태현이가 타던 차를 탄다.

태현이 일어나자 준석이도 일어난다. 서로의 자동차를 바꾸어 탄다.

준석모: 아! 애네 이제 알았구나. 번갈아 타네.

태현모: 이젠 안 싸운다.

준석모: 신기하네.

태현이가 미끄럼틀을 타자 준석이도 따라서 탄다.

(관찰, 2006. 5. 25, 준석·태현:20개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준석이와 태현이는 각각의 자동차를 타고 있다가 준석이가 놀이방으로 가자 태현이가 준석이가 타던 자동차로 옮겨 탄다. 잠시 후 준석이가 놀이방에서 나오더니 태현이가 타던 자동차를 타고 다시 태현이가 자동차에서 일어서자 준석이도 함께 일어서더니 서로의 자동차를 바꾸어 탔다. 즉, 뽕뽕이 자동차는 준석이와 태현이가 모두 선호하는 자동차로 두 영아들을 자주 다투게 하는 요인이 되었는데 어머니들은 영아들의 다툼이 있을 때마다 번갈아 타거나 바꾸어 타기 등을 제안해 주었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영아들의 행동은 어머니들의 제안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진다.

(2)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대안적 행동 제시

: 상황적 맥락에 따라 역할 변화시키기

영아들의 놀잇감 다툼은 놀잇감을 뺏으려는 영아의 행동과 빼앗기지 않으려는 저항 행동의 충돌로 인해 갈등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는 양상이었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머니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을 제안하고 반복적으로 상기시켜주는 현상들이 보여 졌다. 즉, 놀잇감을 빼앗는 영아의 행동에 어머니들은 두 손을 내밀며 ‘주세요.’라는 대안 행동을 제시해줌으로써 비폭력적이고 공손한 태도를 형성시키고자 하였으며 또래를 밀거나 때리는 행동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모델링하거나 언어적인 대안을 통해 사회에서 용인되는 행동을 습득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 행동은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으로 인해 영아들은 내적 갈등을 겪기도 하였으며 이 때 어머니들은 상황적 맥락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변화시켜 나가기도 하였다.

A. 뺏기의 대안적 행동: 두 손 내밀어 ‘주세요.’

영아들은 또래가 가지고 노는 놀잇감을 원할 때, 무조건적으로 빼앗는 양상이었으며 이로 인해 상대 영아가 울거나 때리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 때 어머니들은 영아의 행동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차지하고자 빼앗거나 미는 등의 행동은 두 손을 모아 내밀음으로써 ‘주세요.’ 라는 의미를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영아들은 어머니가 제안해주는 행동을 상황에 맞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태현이 엄마가 영양제를 한 통 꺼내오자 준석이가 달려가 통을 빼앗으려고 한다.

준석모: 준석아, ‘주세요.’ 해야지.

준석이 열른 두 손을 모아 내민다.

태현모: 준석이 ‘주세요’ 했어? 여기 있다.

준석이는 기분이 좋은지 영양제를 입에 넣고 웃는다.

(관찰, 2006. 3. 9, 준석:18개월)

준석이는 태현이 엄마가 들고 있는 영양제 통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며 이를 본 준석이 엄마는 ‘주세요.’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었고 준석이는 이러한 어머니의 제안에 따름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준석이의 행동은 연구자에게 많은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왜냐하면 위의 사례가 관찰되기 전까지 준석이는 친구들의 놀잇감을 빼앗아 자주 갈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준석이의 어머니는 또래 속에서의 준석이 행동을 보고 집에서 뺏는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주었으며 갖고 싶을 때의 바람직한 방법인 ‘주세요.’를 가르쳤다고 한다.

준석이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호기심도 많고 샘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남의 것을 무조건 빼앗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주세요.’하라고 했지요. 이젠 덜 뺏겠지요.

(면담, 2006. 3. 9)

즉, 준석이의 어머니는 ‘주세요.’라는 말은 아직 못하지만 그 의미를 담은 두 손을 모아 상대방에게 내미는 관습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뺏는 행동의 대안으로 제시해줌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하루아침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석이는 가끔씩 뺏는 행동을 보였고 뺏는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준석이의 어머니는 ‘주세요.’라는 말로 준석이의 기억을 깨우쳐 주고 제안해줌으로써 ‘주세요.’행동이 자동적으로 형성되도록 하였다.

준석이가 연구자에게 다가와 연구자의 펜을 뺏는다.

준석모: 어허 ‘주세요.’ 해야지 뺏지 말고.

준석이 엄마를 쳐다보더니 손을 겹쳐 내민다.

연구자: 준석이가 ‘주세요.’ 했구나. 자 여기 있다.

준석이는 볼펜을 받아들고 수첩에 몇 번 휘젓더니 다시 연구자에게 돌려준다.

(관찰, 2006. 5. 25, 준석:20개월)

이와 같이 ‘주세요.’의 의미를 함축하는 행동인 두 손 내밀기는 영아 자신이 원하는 사물을 갖고자 할 때마다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주세요.’는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할 때는 효과가 있었으나 또래를 대상으로 사용할 때 때로 상대 영아의 거부적인 행동으로 인해 좌절을 하고 그것이 왜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내적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준석이 풍선을 발견하고는 풍선을 빨고 물며 가지고 논다.

수지가 다가와 풍선을 뺏는다.

준석이 두 손을 내민다. -‘주세요.’ 그러나 수지는 몸을 돌린다.

준석이 “아~아~”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살짝 치며 운다.

수지모: 수지야 준석이가 ‘주세요.’ 했잖아.

수지가 풍선을 돌려주자 준석이 울음을 그친다.

(관찰, 2006. 3. 16, 수지:17개월, 준석:18개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준석이는 수지에게 뺏긴 풍선을 힘으로 뺏기보다는 ‘주세요.’라는 친사회적인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줄 알았으나, 수지가 거부함으로써 커다란 좌절을 겪게 된 것이다.

즉, 엄마가 가르쳐 준 방법대로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음이 이해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머리를 치는 행동을 통해 ‘왜 안 되느냐’를 엄마에게 되물었던 것이다.

한편 수지의 어머니는 준석이가 먼저 가지고 놀았을 뿐 만 아니라 ‘주세요.’ 했으니 준석이에게 주어야 한다고 수지를 설득함으로써 풍선을 다시 돌려주도록 하였다. 어떤 식으로든 준석이는 ‘주세요.’가 효과를 발휘하는 경험을 가졌으며 준석이는 빼앗기보다는 ‘주세요.’를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준석이의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다시 거부당하는 경험을 통해 ‘주세요.’가 언제나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준석이가 쇼핑카를 끌고 있는데 수지가 다시 다가와 쇼핑카를 뺏는다.

준석이 두 손을 모아 내민다. -‘주세요.’

그러나 수지는 다른 쪽으로 끌고 가버린다.

그 순간 준석이 얼굴이 빨개지도록 큰 소리로 운다.

“아~~~~아~~~~”

그러더니 준석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변기가 있는 방으로 가더니 변기 의자에 앉는다.

준석모: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생각해 본다는 거야. ‘주세요.’ 했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지?

준석은 계속 두 손을 모으는(주세요) 행동을 한다.

준석모: 준석아 네가 ‘주세요.’ 했는데 수지가 안 줬어? 그런데 ‘주세요.’ 해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야.

준석이 더 큰 소리로 운다.

준석모: 준석아, 엄마 말 들어보자. ‘주세요.’ 해서 안 될 때는 친구가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우리 기다리는 동안 다른 거하고 놀자.

준석이 엄마가 인형을 들고,

준석모: 예쁜 양아, 너도 여기 앉아 생각해보자. 우리 준석이가 얼마나 속상해 하는지....

준석이는 엄마를 쳐다보느라 울음을 그쳤다.

(관찰, 2006. 3. 16, 수지:18개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준석이는 엄마가 가르쳐 준대로 ‘주세요.’했는데 왜 그것이 안 통하느냐를 엄마에게 울음으로 질문하였다. 즉, 준석이는 엄마에게서 배운 의사소통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음으로 인해 괴로운 상황을 생각해보고자 엄마의 손을 이끌고 의자로 가 스스로 앉는다. 이러한 준석이의 행동은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자신의 답답함을 엄마가 설명해 달라는 의미 있는 몸부림이었으며 이에 준석의 엄마는 ‘주세요.’가 통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말로 설명해주고 다른 놀잇감을 이용해 준석이가 기다릴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준석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으며 기다린 결과, 자신이 원하던 놀잇감을 획득함으로써 기다림이 주는 또 다른 기쁨을 경험하였다.

준석이의 엄마는 이러한 경험이 준석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 아파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태현이 엄마는 ‘주세요.’가 항상 통하지 않음을 깨닫는 과정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친구에게 거절당한 것이 몹시 힘들었나보다. 잘 울지 않는데. 수지에게 ‘주세요.’했건만 거절당해서 준석이가 몹시 속상한 듯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고 조금 당황했다. 이제부터 거절당했을 때 속상해하지 말고 친구랑 타협하고 기다리는 걸 가르쳐야 할 것 같다.

(저널. 2006. 3. 16)

태현모: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거 아닐까? 즉, ‘주세요.’해서 안 줄 때는 기다려야 한다든지, 상황에 따라 ‘주세요.’가 안 통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하나의 방식으로 모든 게 통할 수는 없잖아. 다른 놀잇감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고 기다리게 해야지 않나.

(엄마들의 이야기. 2006. 3. 23)

이러한 영아들의 경험과 어머니들의 반복적인 제안들의 결합을 통해 영아들은 뺏는 행동보다는 두 손 내밀어 요청하는 ‘주세요.’가 우리사회에서 용인되는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깨달아갔으며 ‘주세요.’가 통하지 않을 때는 영아 스스로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림으로써 갈등 상황을 피해가고자 하였다.

태현이가 자석 놀잇감을 담고 있자 준석이 따라가 뺏으려고 한다.

태현이는 계속 장난감을 잡은 채로 준석을 쳐다본다.

준석이 갑자기 두 손을 내민다-‘주세요.’

그러나 태현이 주지 않자, 준석이 포기하고 놀이방으로 간다.

(관찰, 2006. 5. 25, 태현-준석:20개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준석이는 태현이의 놀잇감을 빼앗으려다가 얼른 ‘주세요.’라는 행동으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태현이는 준석이의 요구를 외면하였으며 이에 준석이는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림으로써 태현이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B. 때리기: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 제시하기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는 행동과 더불어 이 시기 또래관계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부정적인 행동은 때리기였다. 영아들은 때리기를 통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양상이었으며, 따라서 때리는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즉, 영아의 때리기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뿐 만 아니라 또래에 대한 친근함과 반가움을 표현할 때, 상대방부터 거절당하여 당황하거나 무안함을 느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이

때 영아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와 상황에 따라 때리는 행동의 강도를 달리하여 표현하는 양상이었다.

수지, 수지엄마와 함께 준석이네 집에 도착했다.

준석이는 현관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준석이 웃으며 놀이방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나온다.

수지모: 준석아, 다시 만나서 반가워.

수지가 준석이한테 다가가더니 준석이의 얼굴을 살짝 때린다.

준석이와 수지는 서로를 쳐다보며 웃는다.

수지모: 수지야, 준석이 때리는 거 아니야.

수지는 무안한 듯 엄마를 쳐다보더니 놀이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준석도 따라 들어간다.

(관찰, 2006. 5. 18, 준석:20개월, 수지: 19개월)

준석이네 집에 도착한 수지는 자신의 엄마가 준석이에게 반가움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준석에게 반갑다는 인사로 준석의 얼굴을 살짝 때린다. 그러나 성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수지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고 이를 지적하자 수지는 자신의 마음을 잘못 이해한 엄마를 피하여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러한 수지의 행동을 보고 수지의 엄마는 때리는 행동의 많아져서 걱정이라고 하였으며 실제로 관찰 초기에 잘 보이지 않았던 수지의 때리는 행동이 자주 목격되었다.

수지모: 우리 수지가 친구들을 자꾸 때려서 걱정이야.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어떻게 해야 할지.

태현모: 수지가 나쁜 생각으로 때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야.

수지모: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준석모: 애들은 그런 것 같아. 일정한 시기가 있어. 우리 준석이도 그랬었잖아. 한참 갔거든. 그런데 이제 안 때리잖아. 수지는 이제 시작된 거고, 조금 있으면 없어 질 거야.

(엄마들의 이야기, 2006. 5. 18)

준석이를 때리는 수지의 행동을 보고, 수지의 엄마는 최근 들어 수지의 때리는 행동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자신의 심정을 자연스럽게 토로하였으며 이미 그러한 일을 겪어 보았던 준석의 엄마는 그러한 행동은 일정기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고 위로하였다. 실제로 준석이는 관찰 초기 당시(3월) 때리고 뺏는 행동을 많이 하였으나 엄마의 지도로 그러한 행동은 많이 완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관찰 초기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수지의 때리는 행동이 4월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엄마의 고민거리로 등장할 정도로 빈번하게 출현하였다. 연구자 또한 ‘왜 그럴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었으며 면담 결과 수지의 엄마는 때리는 행동이 3월 이후부터 시작된 것 같다고 하였다.

다음의 사례는 수지의 엄마가 수지가 때리는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으로 여기는 상황에 대한 것으로 연구자 또한 이 사례에 대한 상세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때, 수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때리는 행동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던 것 같다.

수지가 친구들과 놀잇감을 두고 다룰 때마다 엄마는 ‘우리 집에 놀러 온 친구를 위해서 양보하자’는 식으로 수지의 놀잇감을 계속 양보하도록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례 1>

수지가 쇼핑카를 밀며 거실 쪽으로 오자 준석이가 쇼핑카를 뺏으려고 한다.

수지는 준석이를 밀어버린다.

준석모: 수지가 먼저 가지고 놀았잖아. ‘수지야 나도 가지고 놀게’ 해

수지가 들은 척도 하지 않자,

준석모: 준석이꺼 하고 교환하자고 해.

장난감 숟가락을 수지에게 주고 준석이 쇼핑카를 민다.

준석모: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사례 2>

그러자, 수지는 장난감 숟가락으로 자신의 엄마를 숟가락으로 때린다.

수지모: 수지야, 엄마 때리면 안 돼.

준석모: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행동은 강하게 잡아야 해.

그러더니 준석 엄마가 수지를 장난감 숟가락으로 한 대 살짝 때린다.

준석모: 수지야 너도 아프지? 이렇게 하면 아픈 거야.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

수지는 준석 엄마만을 쳐다본다.

준석엄마가 수지를 다시 한번 살짝 때리며 “아프지? 아프게 하면 안 돼.”

한다. 수지는 엄마를 쳐다본다.

(관찰, 2006. 3. 2, 수지:17개월, 준석:18개월)

위의 사례는 관찰을 시작한지 2시간 정도 흐른 후에 발생한 사례로 이를 살펴보면, 수지는 준석의 계속되는 뺏는 행동으로 인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준석이 엄마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루어진 장난감 교환은 수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속상함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엄마에게로 향하였으며 엉겁결에 엄마를 때리게 된다. 그런데 엄마와 준석이의 엄마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기보다는 때리는 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똑같은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때리는 행동이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인의 대처는 수지에게 때리기가 가진 힘의 위력을 모델링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수지에게 커다란 충격과 놀라움으로 각인되었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주 수단이 되어 빈번하게 사용하였던 것이다. 즉, 수지는 때리는 행동이 ‘나쁘거나 좋은 행동이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행동의 효과성만을 인지하였고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성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때리는 행동은 그 즉시로 교육시켜야 하는 나쁜 행동이라는 생각에 때리는 행동이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고보다는 강

압적으로 소거시키고자 하였으나 때리기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반복되는 때리기 행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어머니들은 영아의 때리는 행동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깨달아가기 시작하였다.

태현이가 자동차 조종기로 놀고 있다. 그러자 수지가 손을 내민다.

태현이가 수지에게 준다.

수지는 몇 번을 돌려 보더니 태현이에게 다시 준다.

태현이는 받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

수지가 따라가더니 갑자기 태현이 얼굴을 때린다. 태현이는 엄마를 쳐다본다.

수지모: 수지야, 태현이를 왜 때려? 뭘 잘못했는데? 수지가 가끔 저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해요. 말릴 새도 없이. 지금도 왜 때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태현모: 수지야 태현이가 안 받아서 화가 났어? 그런데 태현이가 가지고 놀고 싶지 않은가봐. 거기에 그냥 두면 돼. (수지 엄마를 향해) 수지가 진짜로 때린 게 아니야. 태현이한테 다시 돌려주었는데 태현이가 다른 데로 가버렸잖아.

왜 거절하느냐는 거지.

수지모: 그래도 왜 때리는 거야.

태현모: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직 모르는 거지.

(관찰, 2006. 6. 10, 수지:20개월, 태현:21개월)

수지는 자신이 가지고 놀던 놀잇감이 태현이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잠시 가지고 논 후에 다시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태현이가 받지 않자 수지는 ‘왜 안 받느냐.’는 표현으로 태현이를 때린다. 다른 곳을 보고 있던 수지의 엄마는 수지의 때리는 행동만을 보았고 따라서 수지가 왜 그랬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지만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던 태현이 엄마는 수지의 마음을 읽어내고 적절하게 대처하였다. 태현이 엄마를 통한 수지 엄마의 깨달음은 수지의 때리기 행동이 발생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방법으로 변화되었고 수지는 점차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갔다.

수지와 태현이가 함께 고리 끼우기 놀잇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서로 마주 보고 웃는다.
수지가 웃으며 태현이의 얼굴을 살짝 때린다.
태현이는 수지를 쳐다보며 웃는다.
수지모: 수지야 태현이가 좋아서 그랬구나. ‘태현아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
할 때는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야.
하며 태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수지도 따라서 태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관찰, 2006. 7. 6, 수지:21개월, 태현:22개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지와 태현이는 함께 놀잇감을 가지고 놀면서 즐거움과 기쁨의 웃음을 통해 서로에게 친근함을 표현한다. 그러나 친근함에 대한 수지의 표현은 웃음과 동시에 때리는 행동으로까지 표현되었으며 이러한 맥락을 이해한 수지의 어머니는 수지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언어로 표현해 줌과 동시에 친근함에 대한 표현 방법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적절한 방법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수지는 어머니의 제안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3) 부정적 감정 조절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

: 이성과 감정의 반복적인 딜레마

영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상황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데 또래와 다툼으로 인한 화난 감정이나 영아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어머니의 반응 등은 부정적인 기질을 형성하여 (Schudlich et al., 2004) 때리거나 던지기, 뺨기, 강한 몸부림과 소리치기 등의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어머니들은 영아들이 불만스러운 자신의 감정을 부정적인 행동으로 표출할 때 행동이 발생된 상황을 맥락적으로 이해하여 긍정적인 의미로 전환시켜주거나 대안적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영아의 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였다. 또한 영아의 속상한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해줌으로써 영아를 달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사과와 약속을 통해 상황을 마무리하거나 어머니의 화난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영아의 행동을 제지시키기도 하였다.

(1) 긍정적인 의미의 해석을 통해 친사회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키기

어머니들은 영아들이 또래의 놀잇감을 빼앗거나 또래를 때릴 때 등과 같은 행동을 할 때 친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해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으로 영아를 유도하여 나가고 있었다. 즉, 영아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한 상황을 근거로 그에 적절한 긍정의 의미의 해석로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영아는 엄마의 해석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는 현상들이 보였다.

수지가 태현이한테 버스를 달라고 했는데 태현이가 몸을 돌려 놀이를 한다.

그러자 수지가 태현이의 등을 때리려고 한다.

수지모: 태현이 사랑해 하려는 거야?

수지는 엄마를 보고 씩스러운 듯이 웃더니 태현이를 살짝 안는다.

태현이는 수지의 행동을 쳐다본다.

수지모: 태현아, 수지가 태현이 좋대. 사랑해 하는 거래.

태현이는 버스를 굴리며 다시 놀이를 하고 수지는 놀이방으로 간다.

(관찰, 2006. 6. 10, 수지:20개월, 태현:21개월)

위의 사례에서 수지는 태현이에게 놀잇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마음을 앙갚음하기 위하여 때리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 모습을 본 수지의 어머니는 ‘태현이 사랑해 하는 거야.’라는 말을 함으로써 때리려는 수지의 행동을 거두게 하였으며 수지는 엄마의 해석을 수용하여 태현이를 안는 행동으로 전환하였다. 즉, 수지는 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

을 감행하려고 하였지만 어머니의 긍정적인 의미 전달에 때리는 행동을 멈추고 엄마의 의도에 맞춰 변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어머니들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영아의 마음을 파악하고 속상함을 인정해줌으로써 영아의 행동을 전환시키기도 하였다.

준석이와 수지 엄마가 함께 책을 본다.

수지가 책을 뺏으려고 한다.

수지모: 우리 수지도 읽어달라고?

둘을 나란히 앞에 앉히고 읽어준다.

준석이는 책을 보고 있고 수지는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

잠시 후, 준석이는 책을 들고 자신의 엄마에게로 가 준다.

(관찰, 2006. 3. 2, 수지:17개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지는 준석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속상한 마음을 책을 빼앗으려는 행동으로 표출하였다. 이에 수지의 엄마는 속상한 수지의 마음을 함께 읽자는 말로 표현해 줌으로써 수지의 마음을 이해해주었고 준석이와 함께 앞에 나란히 앉힘으로써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수지의 요구를 수용해 주었다. 이에 수지는 뺏는 행동을 멈추고 준석이에게 책 읽어주는 엄마의 행동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영아들은 자신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자신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또래로 인해 속상해하거나 똑같은 행동으로 대처하려는 양상을 보였다. 이 때 어머니들은 상대 영아의 행동을 긍정적인 의미로 설명하고 해석해줌으로써 속상한 마음을 달래고 영아의 부적절한 행동이 멈추도록 하였다.

<사례 1>

태현이 자동차를 굴리며 놀고 있다.

수지가 태현이가 굴리던 자동차를 발로 밟는다.

태현이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간다.

태현모: 태현아 수지가 같이 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수지랑 같이 놀자.

태현이와 수지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웃는다. 태현이 엄마는 수지와 태현이를 나란히 앉혀놓고 모양 맞추기를 한다.

(관찰, 2006. 6. 10, 태현:21개월, 수지:20개월)

<사례 2>

수지와 태현이가 같은 자동차를 서로 타겠다고 달려가던 상황에서,

수지가 자동차에 먼저 올라앉자 태현이가 자동차 뒤로 가 민다.

수지는 태현이를 밀치려고 한다.

수지모: 수지야, 태현이가 밀어준대.

수지는 자동차를 타고 태현이는 한번 밀더니 수지를 쳐다본다.

(관찰, 2006. 8. 21, 태현:23개월, 수지:22개월)

사례1에서 보듯이 태현이는 수지가 자신의 자동차를 밟음으로써 공격당했다고 느꼈고 울면서 엄마에게 갔다. 이에 엄마는 수지가 같이 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라는 설명을 통해 태현이를 이해시켰으며 수지 또한 태현이 엄마의 해석대로 행동함으로써 둘이 함께 놀이를 하였던 것이다.

사례 2에서도 수지의 어머니는 수지를 밀쳐내려는 태현이의 부정적인 행동을 친구를 밀어주려 한다는 친사회적인 해석을 해 줌으로써 밀치려는 태현이의 행동을 밀어주는 행동으로 변화시켰으며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려는 수지의 행동도 멈추게 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들은 영아의 부정적인 행동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으로 이끌고자 하였으며 영아 또한 어머니들의 해석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해나감으로써 어머니의 요구와 기대에 순응하고자 하였다(Waters, Kondo-Ikemura, & Richters, 1990).

이러한 어머니들의 해석은 상황에 따른 정확한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

어지기 보다는 영아들의 다툼을 방지하고 그 상황이 긍정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어머니들의 마음에서 유래하고 있었다.

좋게 말해야 서로 친하게 잘 지내잖아요. 싸우지도 않고. 물론 수지가 진짜 때리려고 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때리지 말라고 말리기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지 엄마와의 면담, 2006. 6. 10)

우리 준석이기도 그러는데. 애네들도 벌써 어떤 행동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아나 봐요. 제가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하지마’보다는 좋은 쪽으로 얘기해주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준석 엄마와의 면담, 2006. 6. 10)

위의 면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들은 영아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줌으로써 영아의 행동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으며 또한 영아들은 엄마들이 얘기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맞추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어머니들은 친사회적인 방향으로 영아의 행동을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으나, 때로는 상황적인 맥락이나 영아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 어머니의 편익에 따라 해석함으로써 영아의 마음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즉, 어머니는 영아의 견지에서 영아를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영아의 행동을 해석할 때가 있었으며 이럴 때 영아는 욕구불만적인 감정을 부정적인 행동으로 표출하기도 하였다.

특히 어머니는 영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축소하여 말함으로써 영아의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준석이가 보행기에서 내려와 쇼핑카로 달려가다가 넘어진다.

준석: 아~양

준석모: (다른 곳을 보며 일상적인 어투로) 괜찮아, 울지 마.

준석이는 더 큰 소리로 운다.

준석모: 괜찮아, 준석이 안 아프다. 울지 마.

준석이 태현이에게로 가더니 갑자기 자동차를 뺏으려 한다.

태현이가 뺏기지 않으려고 몸을 돌리자 태현이를 때리고는 준석이 운다.

(관찰, 2006. 3. 2, 준석:태현:18개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준석이는 놀잇감을 가지러 달려가다가 넘어짐으로써 속상하고 아파서 울음으로 엄마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렸다. 그러나 엄마는 준석이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기 보다는 ‘괜찮아.’, ‘안 아프다.’ 등의 말로 준석이의 감정을 축소하여 해석함으로써 준석이를 더욱 속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준석이는 태현이의 장난감을 빼앗고 때리는 행동을 통해 욕구불만적인 자신의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갈등 상황을 유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영아의 감정을 정면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어머니의 편이에 따라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해석할 경우 영아는 욕구불만적인 감정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은 다시 부정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 “우리 태현이 화가 많이 났네.”: 영아의 마음 읽어 주고 인정해주기

영아들은 속상하거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또 자신의 감정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감정은 때리기, 밀기, 넘어뜨리기, 던지기 등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때 어머니들은 영아의 마음을 바르게 읽어 주고 인정하

여 수용해줌으로써 영아들의 행동을 전환시켜 나갔으며 영아들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는 어머니의 태도만으로도 부정적 행동이 완화되었다.

놀이터에 나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는데 태현이가 계단으로 내려간다.

수지모: 태현아 그곳은 위험해.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자.

태현이는 “으응~~~”하며 무조건 계단 쪽으로 뛰다시피 간다.

수지 엄마가 달려가 태현이를 잡자 자동차를 던진다. (몹시 화를 냄)

그 때 태현이 엄마가 나와 “우리 태현이 화가 많이 났네.” 하자 태현이는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관찰, 2006. 6. 16, 태현:21개월)

태현이는 계단으로 내려가고 싶은 자신의 행동이 제지당함으로써 화가 났고 자동차를 던짐으로써 화난 감정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이에 태현이 어머니는 ‘태현이 화가 많이 났네.’라는 말로 태현이의 감정을 이야기해줌으로써 엄마가 화난 네 마음을 충분히 알겠다는 의사를 전달한다. 이러한 엄마의 인정만으로도 태현이는 화가 풀어져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놀이터로 무사히 나갈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들은 영아가 화난 감정을 표현할 때의 상황과 영아의 관심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토대로 영아의 관심을 돌림으로써 부정적인 행동을 멈추도록 하기도 하였다.

태현이가 준석이에게 공을 뺏기고 큰 소리로 운다.

태현이는 울면서 분유통을 쳐다본다.

태현모: 태현아 속상하지? 엄마랑 이거 가지고 놀자.

엄마가 분유통을 가까이 가져다주자 울음을 그치고 분유통을 만지작거린다.

분유통을 열어놓더니 두드린다. 분유통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며 웃는다.

(관찰, 2006. 6. 10,준석·태현: 21개월)

위의 사례에서 보여 지듯이 태현이는 준석이에게 자신의 물건을 빼앗

김으로써 생긴 욕구 불만적인 감정을 울음으로 표현하였으며 어머니는 속상한 마음을 읽어주고 태현이의 시선이 머문 사물을 기초로 관심을 돌리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어머니의 방법은 태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은 영아의 부정적인 행동으로 당하는 상대 영아의 마음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도 영아의 부정적인 행동을 전환시켜나갔다.

태현이가 영아용 크레파스를 (속이 비어 있고 끝이 뾰족하여 쌓을 수 있음) 8개 쌓았다.

수지모: 태현아, 크레파스를 그렇게 높이 쌓았어?

태현이 엄마와 수지 엄마가 “와아! 멋지다.” 하며 박수를 친다.

태현이는 기분이 좋아 웃는다.

수지가 다가가 발로 차서 쓰러뜨리자 태현이는 엄마를 쳐다보며 울려고 한다.

수지모: 수지야. 그렇게 하면 태현이가 속상하대.

태현이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쌓기 시작한다. 수지가 다가가더니 같이 쌓는다.

태현이와 수지는 다 쌓은 후에 서로 쳐다보며 웃는다.

(관찰, 2006. 8. 21, 태현:23개월, 수지:22개월)

위의 사례에서 수지는 칭찬받는 태현이의 행동에 대한 질투심을 태현이가 쌓아놓은 크레파스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통해 표현하였다. 이에 수지의 엄마는 태현이의 마음이 어떨지에 대해 이야기해줌으로써 태현이의 마음도 달랠을 뿐 만 아니라 태현이를 도와서 함께 놀이를 구성할 수 있는 수지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어머니들은 영아의 부정적 행동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고려를 통해 영아의 마음을 인정해 주었으며 그러한 어머니의 태도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영아의 행동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여 졌다.

(3) 화내기를 통해 행동 제지시키기

영아의 부정적 행동 표출은 어머니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따라서 어머니들은 때론 화난 감정을 큰 소리로 표현하여 부정적인 영아의 행동을 제지시켰다. 또한 화의 감정은 영아를 쳐다보지 않고 외면함으로써 영아 스스로 압박감을 가지게 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어머니들의 방법은 영아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였다.

사례1에서 보듯이 준석이는 자신의 행동이 제지당함으로써 생긴 불만의 감정을 핸드폰을 던지는 행동을 통해 표출하였다. 이에 화가 난 엄마는 준석이를 옆으로 데리고 갔으며 큰 소리로 준석이의 행동을 야단침으로써 화난 엄마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준석이는 엄마의 강압적인 행동에 놀라 엄마의 얼굴만을 바라보았으며 엄마의 말투가 부드러워지자 다시 놀이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사례 1>

준석이가 안경을 하나 집어 들고 나오자 준석의 엄마가 안경을 빼앗는다.

그러자 준석이는 다른 손에 있던 핸드폰을 집어 던진다.

준석모: 준석이 엄마하고 얘기해야겠다. (다른 방으로 준석이를 데리로 들어가 큰 소리로) 준석이 이거 뭐하는 거야? 던지는 거야?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 응!
준석이는 엄마를 쳐다보고 있다.

준석모: 집어 던지는 거 아니야. 알았지?

준석 일어나 거실로 나오고 엄마도 뒤따라 나온다.

(관찰, 2006. 3. 16, 준석:18개월)

<사례 2>

태현이가 준석이의 손가락을 깨물고 난 후의 상황에서,
태현이는 엄마의 주위를 맴돌며 논다.

준석모: 쳐다 보지마. 나 아직 화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

태현모 준석 엄마의 말에 태현이를 외면한다. 태현이는 엄마의 눈치를 보는 듯 놀이를 하다가 한 번씩 엄마를 쳐다보거나 엄마 곁으로 왔다 가곤 한다. 그러나 엄마는 태현이를 쳐다보지 않는다.

태현이가 쇼핑카를 미는데 문턱에 걸려 잘 움직이지 않는다.

태현모: 저거 봐. 다른 때 같으면 벌써 울거나 나를 쳐다보았을 거야. 지금 내가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저러고 있지.

태현이는 다시 쇼핑카를 뒤로 끌었다 앞바퀴를 살짝 들어서 민다.

(관찰, 2006. 3. 9, 태현:18개월)

사례 2는 준석이가 태현이의 장난감을 자꾸 빼앗았고 이에 화가 난 태현이는 깨무는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일어난 상황이다. 태현이의 깨무는 행동은 엄마의 화를 돋우는 아주 강력한 행동이었으며 태현이 엄마는 태현이를 외면함으로써 화난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태현이는 엄마 곁을 맴돌며 화가 풀리기를 기다렸으며 문제 상황에 직면해서도 엄마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다. 즉, 태현이는 애정 철회적인 엄마의 행동을 통해 화난 엄마의 감정을 읽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들은 갑작스러운 영아의 강한 부정적 행동이 출현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거나 영아를 위협하게 되는 현상들로 인해 가슴 앓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준석이가 갑자기 나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질 때는 나도 모르게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야. 그래서 소리를 지르게 되고. 강하게 준석이 행동을 제압하게 돼. 그 순간은 무지 화나는데 잠시 생각해보면 준석이가 괜히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거든.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어느 순간 화를 내게 돼.

(엄마들의 이야기, 2006. 3. 25)

잠든 모습의 태현이를 바라보니 마치 천사가 누워있는 듯 사랑스럽고 예쁘다. 낮에 태현이에게 화냈던 것이 더욱 미안해지는 마음이다. 태현이가

될 안다고...몰라서 그랬을 텐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만 태현이를 야단쳤으니, 지는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했을까?

(저널, 2006. 4. 7)

위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준석이와 태현이의 엄마는 영아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화를 낼 때가 있으며 그로 인해 속상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아가 아무 이유 없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지만 행동이 출현할 때 보이는 강하고 부정적인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 현상들이 보이기도 하였다.

(4) 사과와 약속 가르치기

영아의 부정적인 행동 표출로 인해 또래 갈등이 유발될 때 어머니들은 상대 영아에게 잘못된 행동을 사과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영아는 엄마가 주도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였다. 즉, 이 시기 영아에게 ‘미안해’가 의미하는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음에 이끌려갔다.

놀잇감을 가지고 다투던 중에 준석이가 수지의 얼굴을 때린다.

준석모: 준석이 이리와.

준석이는 인형을 놓고 엄마 앞으로 간다.

엄마는 준석이를 앞에 세워 놓고 야단치듯 말한다.

준석모: 친구 때리 지마. ‘수지야 미안해’ 해. 그리고 ‘사랑해’하고.

준석이의 몸을 수지 쪽으로 돌리자 준석은 수지를 살짝 껴안는다.

준석모: 수지야 준석이가 미안하대. 사랑하대.

(관찰, 2006. 3. 2, 준석:18개월, 수지:17개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준석이는 수지와와의 놀잇감 싸움 끝에 자신의 화난 감정을 때리는 행동으로 표출하였다. 이에 준석이의 어머니는 수지를 때린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야단치고 잘못을 사과하도록 준석이에게 지시하였고 준석이는 엄마의 지시대로 행동함으로써 상황이 종료되었다. 또한 어머니들은 영아의 부정적인 행동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속이라는 사회적 규약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때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약속은 영아의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방적인 행동으로 영아에 의해 거부당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어머니의 강압에 이끌려가는 양상이었다.

수지가 쇼핑카를 가지려고 준석이를 쫓아다니다가 안 되자 준석이를 때린다.
 둘이서 서로 다투다가 준석이가 쇼핑카를 뺏기고 준석이는 몸부림치며 울다가 장난감을 던진다.
 준석모: 준석이 장난감 던지면 돼? 안 돼? 엄마하고 그러지 않기로 약속했지?
 준석이는 “아빠빠빠~~~~”하며 큰 소리로 운다.
 준석모: 안 돼. 준석이 그렇게 하면 선생님하고도 못 놀아. 아빠하고도 못 놀아.
 안 던진다고 약속해.
 준석: 으~~응~~
 준석모: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어. 여기서 생각해. 생각. 이제 엄마하고 안 던지기로 약속하자. 약속해?
 준석: (울음소리가 줄어 듦) 응.

(관찰, 2006. 3. 16, 준석:18개월, 수지:17개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지는 준석이의 놀잇감을 빼앗으려다 안 되자 준석이를 때림으로써 놀잇감을 차지한다. 이에 화가 나고 속상한 준석이는 자신의 감정을 장난감을 던지는 행동으로 표출하였으며 어머니는 준석이의 행동만을 보고 또 다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자고 종용하였다. 자신의 억울함과 속상함은 외면한 채 어머니는 약속만을 강요하였으며 준석이는 더 큰 소리로 울었으며 어머니 또한 생각하

는 의자에 앉아서 생각하라는 더 강렬한 방법으로 준석이의 행동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준석이는 어머니의 강압을 이길 수 없음을 하는 수 없이 어머니의 방법에 따랐고 이로써 상황은 종료되었다. 준석이의 약속 거부는 약속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속상함을 알아주지 않는 어머니의 야속함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다음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사례이다.

태현이가 준석이 옆으로 다가가 마이크를 뺏으려고 손을 뻗어본다.

준석은 열린 마이크로 태현이의 머리를 살짝 때리자 태현이는 “아!”하고 운다.

준석모: 때렸어? 준석이 이리와. 준석아 이걸로 사람 때리면 돼, 안 돼? 마이크는 노래 부르는 거지 때리는 게 아니야. 이제 친구 때리지 않기로 약속하자. 약속!

그러자 준석이는 큰 소리로 울며 약속에 응하지 않는다.

준석모: (수지엄마를 향해)준석이는 약속하면 잘 지켜. 그런데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아앙’하고 큰 소리로 울어. 지킬 수 있을 때만 약속해. (준석을 향하여)준석이 태현이에게 마이크 주자. 친구도 가지고 놀아야지.

(관찰, 2006. 3. 6, 준석-태현: 18개월)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준석이는 약속을 하면 꼭 지켜야 되는 규범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이크를 뺏으려는 태현이의 행동으로 인해 준석이의 때리는 행동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석이의 때리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약속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어머니의 행동에 준석이는 더욱 더 억울함을 느꼈고 이에 약속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일방적인 행동은 관찰 기간 동안 많이 탐색되어 연구자는 때리기를 자주 하는 준석이와 수지 어머니들에게 왜 때리는 행동만을 야단치는지 질문을 하였다.

친구를 때리는 행동은 나쁘잖아요.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사과해야겠지요. 또 약속을 통해 때리거나 던지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준석이는 자기가 지킬 약속만 해요.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절대 안하던데.....

(준석 엄마와의 면담, 2006. 3. 16)

저는 수지가 친구를 때리면 이유를 불문하고 야단치고 사과 시켜요. 맞은 애한테도 미안하지만 그 애 엄마는 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저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수지 엄마와의 면담, 2006. 4. 12)

위의 면담 내용에서 보여 주듯이 준석이의 엄마는 때리는 행동은 나쁜 행동으로 규정하여 때리는 행동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수지 엄마는 맞은 영아에게 미안한 마음에 때린 행동을 사과시킨다고 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성을 우선시하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여 졌다. 특히 때리는 행동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엄하게 사과하도록 지도함으로써 기초적이 도덕 교육을 시작하였다.

3. 영아의 지식 습득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주변에서 접하는 사물에 관한 지식을 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영아의 사회화를 돕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이 시기 영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지식은 사물의 이름과 쓰임새, 사물 모양 탐색하기 등과 같이 사물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또한 인사, 공손한 태도, 어른 먼저 드리기 등과 같은 사회적 규범들도 강조하여 습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들은 지식의 형태나 상황에 따라 직접 가르치기도 하였으며 생활 속에서 접하는 사물을 직접 만져보고 느끼게 하거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식을 구성하고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양상이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사물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은 어떠하며 규범과 규칙 습득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1) 영아의 사물에 대한 지식 구성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

어머니들은 흔히 ‘책’을 매개로 사물과 동물의 이름과 특성, 모양과 쓰임새 등을 영아들에게 알려주고 실생활에서 찾아보거나 영아의 경험과 연결해 보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도록 하는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험을 동반하는 사물이나 사물의 느낌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영아들이 직접 경험해 보도록 시도함과 동시에 그 사물의 느낌에 대한 사회적인 표현을 가르치고자 하는 현상들이 보여 졌다.

(1) ‘그림책’을 매개로 사물에 대한 지식 구성해 주기

어머니들은 영아들이 가져다주는 그림책을 중심으로 상호작용하였는데 이 때 영아들이 선택한 책은 주로 ‘과일’, ‘동물’, ‘자동차’ 등의 그림이 있는 작은 책이었다. 어머니들은 영아들이 책을 가져오면 읽어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함께 동물이나 사물의 그림을 가리키며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용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은 책을 자신이 선택하기보다 영아들이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책 속에 있는 그림의 이름이나 움직임, 맛 등에 대해 말해주고 질문하고 주변에서 찾아보게 하거나 직접 움직여보게 하는 등 그림과 상황을 연결하여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여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수지가 책 한권을 가져다 엄마에게 준다.
 엄마는 책을 펼치고 그림을 손으로 가리키며
 수지모: 이건 뭐야?
 수지: 신발, 포도, 새.....
 엄마: 새는 어떻게 날지?
 수지가 양 손을 벌려 아래위로 흔든다.
 수지모: 이건 뭐지? 수지야.
 수지: 짜..계
 수지모:(주변을 둘러보며) 시계... 어디 있나? 수지야 시계 찾아 봐.
 수지는 엄마와 같이 벽을 탐색하다가 시계를 찾아 가리킨다.
 바이올린 그림이 나오자,
 엄마: (손 양쪽으로 들고 바이올린을 켜듯이)바이올린은 이렇게 하지.
 수지도 해 봐.

(관찰2006. 2. 8, 수지 16개월)

수지는 평소에 자주 보던 책 한 권을 엄마에게 가져다준다. 엄마는 책에 있는 그림을 보고 수지가 경험한 사물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여 사물의 이름을 상기시켜 주었으며 사물이 가진 움직임은 포착하도록 함으로써 사물의 특성을 익히게 하였다. 또한 집안에서 볼 수 있는 사물이 나올 경우에는 집 안에서 찾아보게 유도함으로써 책과 실제 사물을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 있었다.

책을 통해 얻어진 사물에 대한 지식은 가정을 벗어난 현장에서 발견될 때 다시한번 재구성되는 기회를 갖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아는 책에서 얻은 간접 경험을 실제와 연결해 봄으로써 사물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생생하고 흥미롭게 쌓아갈 수 있는 것이다.

수지모: 수지야 저기 코끼리 있다. 코가 긴 코끼리. 수지 책에서 봤잖아.
 코끼리가 잘 보이는 쪽으로 유모차를 끌고 갔다.
 수지는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하고 말한다.
 수지모: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수지 그 코끼리 아저씨야. 진짜

코가 길다. 그렇지?

수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코끼리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

(관찰, 2006. 5. 4, 수지:19개월)

수지는 책에서만 볼 수 있었던 코끼리를 동물원에서 실제로 봄으로써 코끼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수지에게 아주 놀랍고 흥미로운 경험으로 코끼리뿐 만 아니라 원숭이와 기린, 공작새 등을 볼 때마다 수지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반가워하며 뛰어가서 관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수지의 모습에 어머니는 계속하여 책에서 보았던 경험을 상기시켜주면서 책과 실제 경험을 연계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책에 담긴 사물에 대한 지식은 주로 어머니의 언어를 매개로 영아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영아들은 어머니들이 전달해주는 지식들을 가만히 듣거나 말을 따라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습득해나가기도 하였다.

<사례 1>

준석이가 책 한권을 가지고 태현 엄마에게 갖다 준다.

태현모: 준석아, 우리 책 볼까?

준석이는 대답대신 태현 엄마의 무릎 위에 올라앉는다.

그러자 태현이 엄마에게로 다가가 옆에 앉는다.

태현모: (공을 가리키며) 이건 뭘까?

준석은 다리 한쪽을 들어 책에 있는 공 그림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한다.

준석모: 재, 공을 차는 거야.

수지와 태현이는 그러한 모습을 한쪽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다.

태현모: (흔들의자 그림) 준석이 이런 거 본 적 있니?

준석이가 그림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소파로 가서 쿠션을 한 개 가지고 오더니

태현이 엄마 앞쪽에 놓고 올라앉는다.

준석모: 저게 의자라고 하는 거야. 지가 만들어서 다 해봐야 한다니까.

쥬스 그림을 보자 자기의 엄마를 이끌고 냉장고를 간다.

준석모: 주스 먹어야 하는 거야. 컵에 따라서 한잔 마셔야 한다니까.

냉장고에서 주스를 조금 따라 주자 그것을 마시고는 다시 태현 엄마에게로 가 앉는다.

수지가 다가와 준석이 놓아둔 쿠션에 앉으며 웃는다.

(관찰, 2006. 3. 16, 준석·태현:18개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준석이는 책에 있는 공 그림을 보고 발로 차는 행동을 함으로써 공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였으며 주스 그림을 보고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 마셔보고 방식으로 의자를 만드는 행동을 통해 책에서 얻은 지식을 실생활과 스스로 연결하였다. 한편 옆에서 함께 책을 보고 있던 태현이는 엄마와 준석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탐색만 함으로써 사물 지식의 습득에 대한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영아의 발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또한 영아마다 자신을 표현하는 행동 양식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수지가 공을 가리키며 엄마를 쳐다본다.

수지모: ‘뽕’ 하고 차는 공!

수지: 뽕 차는 공.

준석모: 수지는 말로 ‘뽕’하잖아. 그러면 우리 준석이는 벌써 자기 발이 나갔어.

태현모: 태현이는 일단은 먼저 살피는 거부터 하는데.

준석모: 맞아. 태현이는 항상 탐색부터 하더라. 우리 준석이는 무조건 가서 만지고 꺼내서 확인해봐야 한다니까. 책을 보다가 주스가 나오면 냉장고 열고 확인해야 하고 의자가 나오면 의자에 가서 앉아봐야 한다니까.

(엄마들의 이야기, 2006. 3.9)

위의 사례를 보면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수지는 엄마의 말을 따라함으로써 지식을 습득하지만 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준석이와 태현이는 각기 행동적 표현과 탐색을 통해 사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어머니들은 영아가 가져다주는 책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으로 공유된 지식을 활용하여 사물의 이름이나 움직임, 생김새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안내에 따라 형성된 지식은 또 다른 경험과의 결합을 통해 영아만의 독특한 표현을 만들기도 하였다.

책을 보다가 토끼 그림이 나오자,

수지: 까꿍, 까꿍.

엄마: 깡충깡충하지?

수지: 아~~아(아니라는 듯이), 까꿍 까꿍.

엄마: 그래... 토끼야 까꿍(텔레비전 프로그램 이름)이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수지는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지만 엄마의 행동을 따라 한다.

수지모: 텔레비전에서 하는 ‘토끼야 까꿍!’이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토끼 그림이 나오면 ‘까꿍까꿍’이래요. 애는 참 신기해요.

(관찰, 2006. 2. 9, 수지:16개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지는 토끼 그림을 보고 ‘까꿍까꿍’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음성표현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였다. 즉, 수지는 ‘토끼야, 까꿍’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토끼에 대한 표현을 배웠고 어머니를 통해 ‘깡충깡충’이라는 일반화된 표현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 ‘까꿍까꿍’을 만들어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영아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된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연결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을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자신의 표현이 존중받기를 원하기도 하였다.

수지와 엄마가 함께 책을 보고 있다. 별 그림이 나오자,

수지모: 빠까 빠까지?

수지: 빠까 빠까(양손을 들고 반짝반짝 흔든다.)

수지모: (수지의 손 흔드는 행동에 맞추어)반짝반짝 작은별~~~

수지:(얼굴을 찡그리며) 아~~~아~~~

수지모: 알았어. 빠까빠까 작은 별~~

수지모: 수지는 별만 보면 반짝반짝하지 않고 ‘빠까빠까’하며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별 모양만 보면 ‘빠까빠까’해요. 아마 스폰지 송(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의 별가와 반짝 반짝을 합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관찰, 2006. 2. 16, 수지:16개월)

수지는 별 그림을 보고 ‘빠까빠까’라고 표현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별 표현은 ‘반짝반짝’으로 노래를 부를 때도 항상 양 손을 반짝이며 ‘반짝반짝 작은 별~’로 표현하는데 수지는 이와는 조금 다른 음성으로 별을 표현하였다. 이에 어머니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수지를 유도해 보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으면서 거부하였고 수지의 어머니는 그러한 수지의 태도를 존중해주었다. 수지의 어머니는 수지의 표현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과 ‘반짝반짝’이라는 말을 합해서 나름대로의 표현을 만든 것 같다고 여기고 있었다.

수지는 태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있다.

태현모: 반짝반작 별이네. 별.

수지: (양손을 반짝이며) 반짝반짝~

태현이도 수지를 따라 손을 반짝여 본다.

(관찰, 2006. 6. 21, 수지:20개월, 태현:21개월)

그러나 이러한 영아의 독특한 표현은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경험들에 의해 점차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표현으로 전환되는 양상이었는데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별에 대한 수지만의 독특한 표현인 ‘빠까빠까’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표현인 ‘반짝반짝’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게 하기

: 사물과 언어적 상징 연계해 주기

영아들은 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보였는데 이 때 어머니들은 영아들이 만져보게 하거나 사용해보도록 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특성을 직접 느끼게 하였으며 동시에 그 느낌에 대한 사회적인 표현을 말로 직접 이야기 해줌으로써 사물의 느낌에 대한 언어적인 표현을 가르쳐주고자 하였다. 즉, 부드러움, 미끌미끌함, 까칠까칠함, 폭신함 등의 느낌은 언어적인 상징만으로는 형성할 수 없는 지식일 뿐 만 아니라 그 느낌에 대한 사회적인 표현 또한 직접적인 접촉만으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영아들이 직접 만지고 느낄 때의 감촉을 언어적 상징으로 표현해주었다.

<사례 1>

수지가 물고기 모양과 별 모양의 책을 가져와 엄마에게 준다.

(물고기 모양의 책은 비닐로 되어 있음)

수지모: 수지야, 물고기 책 만져봐. 비닐이야. 종이랑 틀리네.

수지가 물고기 책을 만져본다.

수지모: 어때? 맨질맨질 하지? 비닐은 맨질맨질 한 거야.

(관찰, 2006. 2. 16, 수지: 16개월)

<사례 2>

수지는 모래를 처음 밟아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태현모: 수지야 발로 모래를 밟아 보니까 어때? 까끌까끌 하지?

수지: 까끌까끌? 까끌까끌해.

태현모: 그래. 모래는 까끌까끌해.

(관찰, 2006. 7. 13, 수지: 21개월)

위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수지의 어머니는 수지에게 비닐을 만져보게 함과 동시에 ‘맨질맨질하다’라는 느낌을 언어로 표현해주었으며 모래를 만질 때는 ‘까끌까끌하다’는 표현을 제시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사회적인 표현을 가르치고자 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은 영아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사물에 호기심을 보일 때에도 직접 만져서 경험하게 하면서 동시에 ‘아프지? 아야 하는 거야’등의 표현을 통해 사물이 가진 위험성을 깨닫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례 1>

수지엄마가 커피를 가져오자, 태현이가 컵 안을 들여다본다.

수지모: 커피야.

태현이가 손으로 커피를 가리킨다.

수지 엄마는 태현이의 손을 이끌어 컵에 대 보게 한다.

태현이가 놀라듯이 손을 뺀다.

수지모: 앗! 뜨거지? 커피는 뜨거운 거야.

태현이는 다시 한번 컵에 손을 대는 척하며 웃다가 얼른 손을 뺀다.

(관찰, 2006. 3. 9, 태현: 18개월)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지의 어머니는 뜨거운 커피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는 수지의 손을 커피 잔에 직접 대보게 함으로써 뜨거움을 직접 경험해보게 하면서 동시에 ‘커피는 뜨거운 거야’라고 표현해주었다. 이를 통해 수지는 커피는 뜨겁다고 표현하는 것이며 뜨거운 것을 만지면 위험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즉, 커피 잔을 한번 만져 본 수지는 뜨거움에 깜짝 놀랐고 다시 만져보겠냐는 어머니의 권유에 손을 뒤로 뺌으로써 뜨거운 것이 자신을 해할 수 있음을 직접 경험하였던 것이다.

사회화 과정에서 영아의 안전에 대한 조치와 예방은 어머니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인데 위험한 사물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방법은 사물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어머니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었다.

준석이 장미 꽃밭으로 간다.

태현모: 야, 준석이 위험하다. 나오라고 해.

준석모: 그냥 뒤. 직접 꺾어 봐야 돼.

수지모: 그러다가 진짜 크게 다치면 어떡해?

그 때 준석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

준석모: 거 봐. 준석아 ‘아아아아’ 했지? (장미를 가리키며) 아야 한 거야. 아야!

준석이 울음을 그치고 태현이 있는 쪽으로 간다.

준석모: 저렇게 꺾어봐야 돼. 직접. 그래야 다시는 안하지. 그리고 저 정도는 괜찮아. 애들 무시 하지마. 크게 다칠 것 같으면 안 만져.

(관찰, 2006.5. 4, 준석: 20개월)

사례에서 보듯이 준석이 엄마는 장미꽃에 호기심을 보이는 준석을 말리기보다는 직접 만져보게 함으로써 장미가시가 가진 위험성을 경험하게 하였다. 태현이 엄마와 수지 엄마는 장미꽃밭에서 넘어질 경우 크게 다칠 수 있음을 우려해 준석이 행동을 만류해보고자 하였지만 준석이 엄마는 많이 다칠 것 같으면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아래 그냥 놓아두고 보았던 것이다. 실제로 준석이는 장미 가시에 손가락을 세 군데나 찢리는 아픔을 겪었으며 장미꽃밭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즉, 준석이 어머니는 영아 스스로가 위험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태현이 엄마와 수지의 엄마는 위험의 수준에 따라 영아의 행동을 조절해야 한다고 봄으로써 위험한 사물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방법은 사물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어머니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었다.

2) 사회적 규범 형성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

: 예절 바름과 공손함의 미덕 강조하기

어머니들은 사회적 규범의 특성에 따라 또는 상황에 적절하게 역할을 달리함으로써 우리 문화에서 중요시하는 인사와 공손한 태도, 물건 드리기 등과 같이 예절과 관련된 규범들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양상이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예를 중시하여 자녀에게 군자다운 자세의 기본으로 인사하는 방법과 경어 사용법을 먼저 가르쳤던(정낙찬 외, 2002) 문화적 특성이 어머니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이러한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생활 속에서 자동적이고 습관적으로 실천하였으며 직접적인 제안이나 가르침, 칭찬과 격려, 길들이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적인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1) 자동적이고 습관적으로 인사하기

어머니들은 인사나 나눠주기 같은 사회적 규범과 규칙들을 생활 속에서 자동화되고 습관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영아에게 이러한 규범들이 자동적으로 스며들어가게 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사회 문화적인 관습과 관념, 행동 규범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정현숙 외, 2002) 어머니는 생활 속에서 자동적이고 습관적인 실천을 통해 사회 규범과 생활의 규칙을 습득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여 졌던 사회 규범은 인사였다. 인사는 옛날부터 모든

예절의 으뜸으로(구영본, 2003)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인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인간관계를 형성해나가며 유지해 나간다.

연구자와 영아, 영아의 어머니들 또한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인사를 나누는 일이었다. 서로가 대상에 맞게 ‘안녕하세요.’, ‘안녕’, ‘어떻게 지내셨어요?’ 등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인사말은 달랐지만 인사로 서로의 만남을 시작하는 것은 항상 똑같았다. 즉, 만남의 시작은 인사로 개시되었고 헤어질 때 또한 인사를 통해 만남이 마무리되었다. 또한 어머니들은 자신뿐 만 아니라 영아들에게도 인사를 하도록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으로 생활 속에서 자동적으로 실천되고 있었다.

<사례 1>

태현모: 안녕하세요?

수지모: 안녕하세요. 잘 찾아 오셨네요. 수지야 이모 오셨다.

수지가 현관 쪽으로 걸어 나와 태현 엄마의 얼굴을 쳐다본다.

수지모: 수지야, ‘안녕하세요.’ 해 봐.

수지는 고개만 까닥 하더니 웃는다. 인사를 한 것이다.

(관찰, 2006. 2. 1, 수지:16개월)

<사례 2>

수지모: 준석아, 태현아 안녕! 다음에 만나자. 안녕히 계세요.

태현모: 애들아, 수지 가네. ‘안녕’ 해야지. 이모한테도 ‘안녕히 가세요.’하자.

태현이와 준석이 현관으로 뛰어나와 수지를 쳐다본다.

준석이는 고개를 숙여보고 태현이는 웃는다.

태현모: ‘안녕히 가세요.’ 한 거야?

(관찰, 2006. 6. 16, 수지:20개월, 준석:태현:21개월)

위의 사례에서 보여 지듯이 영아들과 영아들의 어머니는 사람을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습관적으로 인사를 하였으며 연구자 또한 인사로 영아

와 어머니들의 만남을 열곤 하였다. 즉, 인사는 우리 사회 문화의 핵심적 가치로 여겨져 왔으며 사람들은 인사를 통해 만남을 열고 인사를 통해 만남을 마무리 지었는데 영아의 가정 또한 우리 사회의 축소판으로 어머니들은 인사라는 행동을 통해 영아의 초기 사회화를 돕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습관적 실천을 통해 형성된 인사 행동은 영아 스스로 다양한 생활의 장에서 실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수지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수지가 요즘에 인사를 90도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머니네 갔다가 집에 오려고 하면 고개를 90도 숙여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이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는지. 제가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수지야 '이제 집에 가자.'고 하면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면담, 2006. 3. 23)

위의 면담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수지는 인사를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자동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구사하게 되면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확대시켜 나갔다.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은 인사 행동을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수지는 스스로의 의지로 인사를 일상생활에서 즐기게 되었던 것이다.

수지는 불임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나 보고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 '안녕, 아휴 예쁘다.', '인사 잘하네.' 하며 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 있지를 못한다니까요. 창피해서.....(웃음)

(면담, 2006. 7. 12)

또한 영아의 인사 행동은 만나거나 헤어질 때 이외에도 놀이를 하거

나 물건을 주고받을 때 또 음식을 먹을 때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중에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 때 영아의 인사는 고개를 까닥이거나 숙이는 정도였는데 어머니들은 영아의 행동이 발생된 상황과 연계하여 영아의 행동을 인사 행동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줌으로써 영아의 인사행동을 강화시켰다. 즉, 어머니들은 영아가 주는 작은 행동에는 항상 ‘고맙습니다.’라고 하거나 영아에게 실수 했을 때는 ‘미안해’라는 인사를 습관적으로 실천하였다.

태현 엄마가 물 컵 두개를 상에 놓으며 “물도 먹어.”한다.

태현이 물 컵 하나를 수지에게 준다.

수지는 태현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을 먹는다.

수지모: 수지야, 고맙다고 한 거야?

수지는 웃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인다.

(관찰, 2006. 8. 21, 수지:22개월, 태현:23개월)

수지의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는 수지의 행동과 그 이전의 상황을 연계하여 영아의 행동에 ‘고맙다고 한 거야?’ 라고 언어로 표현해줌으로써 영아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다. 영아의 작은 행동에 붙여지는 사회적 의미는 어머니로부터 오는 것이고 어머니가 부여하는 의미들은 영아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즉 사회 문화로부터 전수된 것이며 생활 속의 실천을 통해 영아는 자연스럽게 사회의 규범들을 습득해 나가는 것이다.

성인의 생활화된 인사는 자연스럽게 영아들의 행동 모델이 되고 함께 하는 과정 속에서 영아들은 인사를 놀이로 즐기기도 하였다.

수지가 태현이와 놀다가 블록을 발로 밟게 된다.

수지: 미안해.

태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웃는다. 그러자 다시 블록을 또 밟는다.

수지: 미안해.

태현이는 더 큰소리로 웃더니 블록을 밟고는 고개만 까닥한다.

수지모: 지난번에는 인형을 때리고는 ‘미안해’하더니 오늘은 블록이네.

(관찰, 2006. 8. 28, 수지:22개월, 태현:23개월)

수지는 ‘미안해’라는 말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인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놀이를 하다가 우연히 블록을 발로 밟게 되었고 블록을 향해 ‘미안해’라고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였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태현이가 웃자 수지는 일부러 또 한번 블록을 밟고는 ‘미안해’라고 말하였으며 태현이도 수지를 따라서 블록을 밟고는 고개를 까닥임으로써 ‘미안해’를 따라 해 보았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습관적인 예절 실천은 영아에게 모델링이 되고 영아는 자율적이고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자신에게 습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2) 어른 먼저 드리기, ‘응’은 ‘네’로 수정하고 가르치기

어머니들은 생활 속에서 출현하는 영아들의 행동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수정해주거나 때로는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 영아의 행동이 사회적 규범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즉, 어머니의 기준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동은 어머니들의 가르침의 대상이 되어 수정되었으며 영아 또한 어머니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사례 1>

수지모: 수지야 이모 먼저 드리는 거야. 이모 갖다 드리자.

수지는 엄마가 전해주는 파인애플을 받아 준석이 엄마에게 준다.

준석모: 파인애플이네. 수지야 고마워.

수지모: 이제 준석이도 주고 태현이도 주자.

(관찰, 2006. 3. 2, 수지: 17개월)

<사례 2>

부엌에서 준석엄마와 태현엄마가 할아버지의 밥상을 차리고 있다.

태현이와 준석이가 밥상으로 달려가더니 숟가락을 든다.

태현모: 이건 태현이꺼 아니야. 할아버지 먼저 진지 드시는 거야.

태현이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준석엄마가 태현이와 준석을 향해 “할아버지 진지 드세요.” 하고 말하자,

태현이와 준석이는 할아버지에게로 달려간다.

(관찰, 2006. 5. 12, 준석·태현: 20개월)

위의 사례1에서 보듯이 수지 엄마는 수지에게 또래보다 어린인 준석이의 엄마에게 먼저 과일애플을 주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행동규범인 어른 먼저 드리기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사례2에서 준석이와 태현이는 엄마들이 상을 차리자 먼저 달려가 숟가락을 집어 든다. 그러자 태현이의 엄마는 할아버지 먼저 숟가락을 든 다음에 숟가락을 들도록 수정해줌으로써 일찍부터 우리의 전통적인 식사예절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영아의 어머니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행동은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으며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으로 여기고 있었다.

아이들도 가르치면 다 해요. 말로 잘 표현은 못하지만 말은 다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은데.....너무 어린가. 그런데 어른

먼저 드리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가르쳐야 애들이 알잖아요.

(면담, 2006. 5. 12. 준석 엄마)

또한 어머니들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소중하게 여겨오던 공손함의 미덕을 영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였다. 즉, ‘응’이라는 영아의 대답을 ‘네’로 수정해주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는 한 손이 아닌 두 손을 내밀도록 가르침으로써 공손한 우리의 사회 문화를 생활화하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래의 예

를 보면 태현이 엄마는 태현이의 ‘응’이라는 말을 ‘네’로 고쳐주고 따라 해 보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양상은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영아들은 그 때마다 어머니들의 요구대로 따라 하였다.

수지 엄마가 태현이에게 떡볶이를 먹이고 있었다.

수지모: 태현아, 다 먹었어?

태현: 응

태현모: 응이 뭐야. ‘네’해야지. 태현아 ‘네’ 해 봐.

태현: 응? 네.

그러자 옆에 있던 수지가 “네” 하고 말한다.

태현모: 수지는 ‘네’도 잘 해요.

태현: (웃으며) 네.

(관찰, 2006. 7. 6, 수지:21개월, 태현:22개월)

이러한 가르침은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영아들에게 그대로 습득되어 자동적으로 실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아의 ‘네’라는 대답은 존칭의 의미를 가지기 보다는 어머니들의 일방적인 가르침에 따르는 무조건적인 반응현상으로 보여 졌다. 즉, 지시적인 가르침에 의해 습득된 ‘네’는 영아의 이해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어머니에게 만족감과 기쁨을 주는 행동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사례 2>

준석모: 준석이가 요즘에 대답을 잘해요. 아빠가 ‘준석이 밥 잘 먹어’하면 ‘네’하고, ‘잘 놀아’해도 ‘네’하고 ‘엄마 말 잘 들어’하고 물어도 ‘네’하고 대답해요. 자동적으로 ‘네,네,네’. 대답은 잘해요.

태현모: 우리 태현이도 그러는데. 아마 태현이한테 매일 ‘네’라고 대답해야지 하고 강요해서 그런가?

(면담, 2006. 8. 25)

준석이와 태현이는 아빠나 엄마가 질문을 할 때는 ‘네’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자동적으로 실천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들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태현이와 준석이의 ‘네’는 성인의 물음에 대한 참다운 의미의 반응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이고 의례적인 양상을 가지는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어머니가 원하는 영아 행동 형성을 위한 길들이기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어울려 잘 살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규칙과 규범이 존재한다. 어머니들은 생활의 규칙을 습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길들이기를 시도하였는데 길들이기는 어머니가 원하는 영아의 행동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는 양상이었다. 즉, 자신의 놀잇감을 정리정돈하거나 휴지는 일정한 곳에 버리기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형성시키기 위한 길들이기에서 영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르기 위한 길들이기까지 어머니들은 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길들이기를 시도하였다.

태현이가 놀이방에서 블록 통을 꺼내 바닥에 쏟으려고 한다.

태현모: 태현아, 안 돼.

준석모: 하루 이틀이나. 그냥 뒤.

태현모: 안 돼. 요즘에 태현이 길들이는 중이야. 장난감을 쏟지 못하게 습관들이는 중이거든.

엄마가 쫓아가 말리려고 하지만 태현이 꾀사게 쏟아 버리고 웃는다.

태현모: 태현아, 그러면 가지고 놀고 있다가 담아. 꼭 정리하는 거야.

태현: 응.

(엄마들의 이야기 & 관찰, 2006. 5. 25, 태현:20개월)

태현이는 놀이를 할 때 먼저 통이나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놀잇감을

모두 쏟아 놓고 놀이를 한다고 한다. 놀잇감을 한꺼번에 다 쏟는 태현이의 행동은 어머니에게는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교육의 대상이었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길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태현이는 어머니의 길들이기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쏟는 행동을 계속함으로써 어머니의 행동을 조절하고자 하였으며 어머니의 반응을 즐기는 것 같았다.

이러한 어머니의 길들이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관찰되었는데 아래의 사례를 보면, 태현이는 놀잇감을 꺼내는데 도움이 필요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차적 대상인 어머니를 부른다. 그러나 태현이 어머니는 곧바로 가기보다는 찾아올 때까지 가지 않음으로써 태현이가 혼자서 해결하기를 길들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태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결국에는 어머니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상황은 종료되었다.

태현이 놀이방에서 “엄마!”, “엄마” 하며 부른다.

태현이 엄마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다.

준석모: 야. 네 아들이 부르잖아, 엄마가 왜 가지고 반응 좀 해 줘라.

태현모: 저렇게 부르다가 엄마가 진짜로 필요하면 자기가 와. 나는 태현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엄마를 부르던 태현이가 거실로 나와 “엄마”하고 부른다.

태현모: 태현아, 왜?

태현이에게로 가자 태현이가 놀잇감을 손으로 가리킨다.

태현모: 꺼내 달라고?

놀잇감을 꺼내 주고 거실로 돌아오고 태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관찰, 2006. 5. 18, 태현:20개월)

이러한 길들이기는 영아의 행동을 엄마의 의도대로 조절하고 영아의 독립성을 기르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라는 것을 어머니들과의 면담을 통

해서 알 수 있었다.

태현이가 원한다고 언제나 다 응해줄 수는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일도 있고 필요한 사람이 다가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엄마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강해지고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거니까.....그리고 일일이 반응해줘 버렸더니 너무 엄마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태현 엄마 면담, 2006.5. 18)

나도 어디선가 들었는데,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다고 즉각적으로 달려가면 안 된다. 적당히 조절을 해야 한 대. 그렇지 않으면 의존성만 더 키운다고 하더라.

(엄마들의 이야기, 2006. 5. 18)

그러나 이러한 길들이기는 때로 영아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외면함으로써 욕구불만의 감정을 형성하는 양상이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였다.

아래의 사례에서 준석이는 미닫이문을 가지고 놀다가 손가락이 문에 끼어서 아팠고 자신의 아픔을 달래 줄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다. 그러나 준석이 어머니는 위로가 필요한 준석이가 와야 된다는 생각에 준석을 그대로 놓아두어 버렸다. 준석이는 어머니로부터 위로 받지 못한 욕구불만을 옆에 있는 수지를 때림으로써 표출하였고 이는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되었다.

준석이 미닫이문에 손가락이 살짝 들어가자, “아앙~”하고 소리 내어 운다.

준석모: 괜찮아. 엄마한테 와.

준석은 계속 선 채로 운다.

태현모: 가서 달래줘.

준석모: 난 재가 올 때까지 안가. 자기가 와야 해.

그 때, 준석이가 울음을 그친다.

준석모: 거봐. 괜찮다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수지를 때린다.

준석모: 준석! 왜 그러는데?

준석이 엄마에게로 가더니 울면서 수지 엄마를 쳐다본다.

(관찰, 2006. 3. 2, 준석:18개월)

이와 같이 길들이기를 통하여 어머니는 영아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영아의 마음을 외면한 길들이기는 오히려 영아의 부정적인 감정만을 조장함으로써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4) 제안을 통해 나누는 행동 유도하기

어머니들은 영아들에게 어떤 사물을 나누어 주거나 또 나눔의 의미를 가진 주기 행동을 제안하고 영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림으로써 ‘나누기’라는 규범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이 때 어머니들은 영아들에게 가르치거나 강요하기보다는 제안을 통해 영아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영아에게 있어 나눠 주는 행동은 실천하기 어려운 행동 규범이었다.

태현이가 요술봉을 가지고 놀자 준석이 다가와 요술봉을 손으로 가리킨다.

태현모: 준석아 태현이 먼저 가지고 논 다음에 놀자. 조금 기다리자.

준석이는 모양 맞추기 놀이를 잠깐 하더니 다시 요술봉을 가리킨다.

태현모: 태현아 준석이도 요술봉을 가지고 놀고 싶대. 이제 태현이는 자동차 가지고 놀자.

태현이는 잠깐 엄마를 쳐다보더니 요술봉을 엄마에게 준다.

태현이 엄마는 준석이에게 준다.

(관찰, 2006. 3. 23, 준석·태현: 18개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요술봉을 가지고 싶어 하는 준석이를 위해 태현이 엄마는 태현이에게 다른 놀잇감을 가지고 놀 것을 제안하고 태현이는 잠시 동안의 생각 끝에 요술봉을 엄마에게 준다. 즉, 태현이는 주고 싶은 마음에서 주는 행동을 실천하기보다는 엄마의 유도적인 제안에 의해 선택을 강요받음으로써 망설였지만 제안을 거부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물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영아들은 성인의 제안에 따라 아무 망설임 없이 주는 행동을 실행하였다.

준석엄마가 계란을 삶아 상에 갖다 놓는다.

태현이 계란 한 개를 잡더니 상에 부딪친다.

준석모: 태현아 선생님도 드리자.

태현이가 계란 한 개를 가져다 연구자에게 준다.

연구자: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준석이도 주자.

그러자 이번에는 준석이에게도 주고 엄마에게도 준다.

계란이 다 없어지자 준석이 앞에 있는 계란을 가져간다.

(관찰, 2006. 5. 18, 준석·태현: 20개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태현이는 자신의 계란을 먼저 챙긴다. 그 모습을 보고 준석이 엄마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 줄 것을 제안하고 태현이는 아무 망설임 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계란을 준다. 즉, 태현이는 자신의 것을 먼저 갖고도 계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줄 것을 제안 받았을 때 쉽게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나눠주기나 나눔의 의미를 가진 주는 행동은 성인의 유도하에 실행되었는데, 아래의 사례를 보면 주는 행동이 이 시기 영아에게 있어 자율적 의지로 실천하기에는 얼마나 어려운 행동 규범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태현이 엄마가 바나나를 가져온다.

태현모: 태현아, 수지야 바나나 먹을까?

태현이 얼른 다가가 바나나를 받아든다.

태현모: 태현아 한 개는 수지 주자.

수지 엄마가 바나나 껍질을 벗기자 태현이 얼른 한 입 베어 먹더니 새것을 자기 품에 안고 한 입 베어 문다.

수지모: 태현아, 이게 태현이 건대. 그건 수지 주자.

태현이 모른 척하고 부엌 쪽으로 간다.

(관찰, 2006. 8. 21, 태현:23개월, 수지:22개월)

태현이 엄마는 태현이가 수지에게 나눠 주리라는 기대를 갖고 바나나 2개를 태현이에게 준다. 그러나 태현이는 그대로 주기보다 자신이 먼저 한 입 먹은 것을 수지에게 줌으로써 선뜻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 하였던 것이다. 자아중심성이 강한 이 시기 영아들의 행동 발달 면에서 볼 때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이타적인 행동인 주기는 자율적 의지로 실행 하기에는 어려운 사회적 규범인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끊임없이 영아들에게 나눠 주기를 제안하는 양상이었는데 이는 나누기 행동을 중요시 하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가치(김예빈·박성연, 2005)가 반영된 결과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여 진다.

(5) '잘 했어요.'와 박수치기: 긍정적 표현을 통해 강화시키기

어머니들은 영아들이 스스로 인사를 하거나 물건주기 같은 사회적 기대에 맞는 행동을 할 때나, 정리정돈과 휴지통에 쓰레기 버리기 같은 바른 생활 습관들이 보여 질 때 '잘 했어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등의 언어적인 격려와 더불어 소리 지르기, 환호하기, 박수 쳐주기 등을 통해 사회적 규범 행동을 강화시키고 생활 규칙을 형성시켜 나갔다.

<사례 1>

수지 엄마가 아이들에게 치즈를 한 장씩 준다.
각자 엄마들이 치즈를 조금씩 떼어 먹여 준다.
수지가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쓰레기통에 치즈 비닐을 버리고 온다.
수지모: (큰 소리로)수지야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어. 아이고 예뻐라.
준석이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고 태현이도 달려간다.
수지모·태현모: (웃으며)모두 잘했어요.
영아들도 서로 쳐다보며 웃는다.

(관찰, 2006. 3. 2, 수지: 17개월)

<사례 2>

준석이 엄마가 바나나 껍질을 벗긴 후에 준석이에게 준다.
준석이 반을 푹 잘라서 태현이에게 준다.
준석모: 준석이가 태현이 바나나 줬어? 박수!
모두가 같이 박수를 친다.
준석은 신난다는 듯이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나온다.

(관찰, 2006. 5. 11, 준석·태현: 20개월)

위의 사례1를 보면 수지는 치즈를 먹고 난 후 스스로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온다. 수지의 엄마는 수지가 훌륭한 일을 해냈다는 듯이 큰 소리로 ‘예쁘다’하며 칭찬을 한다. 이를 본 태현이와 준석이도 쓰레기 버리기 행동을 실천을 하고 어머니들은 ‘잘 했어요.’라는 칭찬을 하고 이에 영아들은 만족과 기쁨의 웃음을 웃었다.

사례2에서 준석이는 엄마가 준 바나나를 태현이에게 나누어 주었고 이를 본 엄마는 준석이의 행동을 박수로 칭찬해주고 이에 신이 난 준석이는 뛰어다니며 기쁜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있는 규범과 규칙들을 스스로 실천하는 영아들의 행동을 환영해주고 격려해줌으로써 규범에 맞는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규범을 강화시키는 어머니들의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박수였

다. 박수는 많은 사회에서 남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어머니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박수를 일상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영아들의 행동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즉, 영아가 음식을 먹었을 때나 어떤 일을 완수했을 때, 또 친구에게 놀잇감이나 음식을 나누어 주었을 때 등 영아가 사회적 기대에 맞는 행동을 할 때 ‘잘 했어요.’하는 의미를 담아 박수로 표현해 주었다.

<사례 1>

태현이 약을 먹는다.

수지도: 태현이 약 먹었어. 약 잘 먹네. 박수!

박수를 쳐준다. 그러자 수지도 박수를 친다.

(관찰, 2006. 5. 25, 수지:19개월)

<사례 2>

태현이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태현모: 태현아 ‘쉬’하고 나가자.

태현이 다시 들어와 변기로 가서 소변을 본다.

태현모: 잘했어요.

큰소리로 웃으며 박수를 친다. 태현이도 박수치며 웃는다.

(관찰, 2006. 8. 21, 태현:23개월)

사례1은 태현이가 약을 잘 먹어서 예쁘다는 수지 엄마의 마음을 박수로 전하고 있는 것이며 사례2는 태현이 엄마가 소변 훈련을 위해 현재 상황의 칭찬과 더불어 앞으로도 잘 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박수에 담아 태현이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박수는 영아들에게 언어와 동작을 같이 해 줄 때 더욱 의미가 강조되어 효과적인 강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습관적인 사용은 영아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영아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자동적으로 박수를 활용하는 양상이었다.

수지 엄마가 물고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센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여덟 마리.”
준석이와 수지가 박수를 치며 소리 내어 웃는다.
준석이 자기 엄마의 손을 잡아끈다.
준석모: 나도 수지 엄마처럼 하라고. 한 마리, 두 마리.....여덟 마리!
준석이 소리 내어 웃으며 박수를 친다.

(관찰, 2006. 5. 18, 준석:20개월)

위의 사례를 보면 준석이와 수지는 엄마가 물고기 숫자를 세는 모습을 보고 ‘엄마 잘했어요.’라는 의미의 박수를 쳤으며 준석이는 자신의 엄마도 물고기를 세 볼 것을 요구한다. 이에 엄마는 준석이의 요구를 받아들여 물고기를 세었고 이러한 엄마의 행동에 준석이는 웃음과 박수로 엄마를 칭찬하였다. 이와 같이 박수는 영아와 어머니, 영아와 영아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의미의 행동적 표현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졌다. 또한 영아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하였는데 이 때 영아는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내포하는 행동으로 박수를 유도하였던 것이다.

태현이 분유통을 3개 쌓은 후에 연구자를 쳐다보며 분유통을 가리킨다.
연구자: (박수를 치며) 와아, 3개나 쌓았어?
연구자가 박수를 치자, 태현이 웃는다. 준석이도 그것을 보고 박수를 친다.
그러더니 손으로 쳐서 쓰러뜨린 후 다시 쌓는다.
이번에는 태현이가 박수를 친다. 준석이 연구자를 가리킨다.
연구자: 박수 치라고?
연구자가 박수를 치자 태현이 엄마와 준석이 엄마를 가리킨다.
태현이 엄마와 준석이 엄마가 함께 박수를 친다.

(관찰, 2006. 5. 25, 준석·태현:20개월)

태현이는 자신이 한 일을 연구자에게 알리고 칭찬해 줄 것을 요구함

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박수를 유도하였다. 연구자는 태현이에게 ‘네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의미의 표현과 더불어 박수로 칭찬을 하였으며 이를 보고 있던 준석이도 박수를 침으로써 태현이의 행동을 칭찬하였다. 준석이 또한 태현이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함으로써 칭찬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여과 없이 드러내었을 뿐 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성인들의 박수까지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박수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인정받고자 하는 영아들의 행동은 빈번하게 출현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태현이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오늘 아침에 있잖아. 태현이가 자동차를 위로 쌓아 놓고는 나보고 와서 보래. 그래서 그냥 ‘응, 잘했어’ 하고 말했더니 ‘으 응~~응’ 하며 자동차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리고는 다시 쌓고 또 나를 부르는 거야. 이번에도 그냥 ‘잘했어’ 이랬지. 그랬더니 또 ‘으으~’하며 고개를 흔드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더니 또 무너뜨리고 쌓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태현이 아주 잘했어. 멋지다’하며 박수를 쳐주었더니 자기도 좋다고 박수치며 소리 내어 웃는 거야. 박수가 그리 좋은가.

(어머니들의 이야기, 2006. 3. 23)

또한 영아들은 자신이 한 일을 보고 스스로 박수를 치며 좋아하기도 했는데 이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기만족감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아래의 사례를 보면 영아가 혼자서 놀잇감 맞추기를 성공시킨 후, 박수를 침으로써 성공감과 자기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태현이 퍼즐을 두 조각을 맞추더니 스스로 박수를 치며 좋아한다.
또 퍼즐 조각을 맞추고 박수를 친다.
옆에 있던 준석이도 짹짹 소리를 내며 박수를 친다.

(관찰, 2006. 3. 23, 준석·태현:18개월)

수지는 모양 맞추기 놀이를 하다가 잘 안되면 “아~아”하며 짜증을 낸다.
모양 조각이 통에 들어가자 웃으며 박수를 친다. 또 다시 모양을 들어 여기
저기 넣어본다.

모양이 또 들어가자 박수를 친다. 잠시 후 다른 곳으로 간다.

(관찰, 2006. 4. 12, 수지:18개월)

이와 같이 어머니들은 ‘잘 했어요.’와 같은 언어적인 격려와 더불어 ‘박수’라는 행동을 통해 영아들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규범들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어머니들이 사용한 강화 방법 중에서 박수는 영아들에 의해 빈번하게 활용되었는데 이는 이 시기 영아들의 의사소통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도 보여 진다. 즉, 음성적 언어 사용의 제한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 다양한 몸짓과 신호를 사용하는(Slaughter & McConnell, 2003) 영아의 발달 특성이 ‘박수’라는 행동적 언어를 선호하게 하였던 것이다. 또한 박수를 칠 때 어머니들이 보여준 웃음과 환호는 영아들에게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의미가 담긴 행동 규범으로 전달됨으로써 영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박수를 빈번하게 사용하였던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최초의 환경인 가정에서의 영아와 어머니, 또래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탐색함으로써 영아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회화 되어 가며, 영아의 사회화 과정에서 보여 지는 어머니 역할은 상황적인 맥락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연구자는 영아들과 어머니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하고자 가정과 영아와 어머니와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생활의 장을 중심으로 참여관찰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면담과 저널, 어머니들의 이야기 등을 통해 관찰을 통해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영아의 생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영아의 자아개념 형성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

자아개념이란 자기 자신의 특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체계화된 내적, 개인적 생각으로 그 속에는 자신의 신체적인 특성과 성별, 행동경향성, 정서적 특성, 능력, 흥미 그리고 목표가 포함되는 것으로 영아들의 자아개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자아개념은 자아 인식에서 출발하는데 어머니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영아의 이름을 불러주거나 여

러 가지 사물에 대한 소유권을 알려주고 영아 중심의 호칭을 사용하거나 영아의 행동에 대해 말로 해석해줌으로써 영아 스스로 타인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아를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어머니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영아를 지칭하는 이름이나 생김새, 소유물 등을 통해 자기를 인식하도록 조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 요약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는 영아들에게 지속적으로 자기라는 개념을 형성시켜 주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어머니들은 생활 속에서 영아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고 매 상황마다에서 영아의 이름을 언급하였는데 어머니들의 습관적인 이름 불러주기는 영아에게 자아에 대한 인식을 깨닫게 해주며 영아가 타인과 다른 자신의 독특성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여 졌다. 남과 나를 구별해주는 이름은 영아의 생활 전반에서 영아를 지칭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으며 영아는 자신의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고개를 돌려 쳐다보거나 자신을 가리킴으로써 자기의 이름이 자신만을 지칭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들은 주변의 사물을 이용하여 영아의 이름을 써서 보여줌으로써 영아의 자아와 구체적인 사물을 연결하여 자기 인식을 확고히 해주었다. 또한 여러 가지 사물에 비친 영아의 모습을 인지하도록 유도하거나 사진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게 함으로써 영아 스스로 독특한 자신의 모습과 이름을 연계해보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 때 어머니들은 영아의 이름 앞에 긍정적인 의미의 수식어를 곁들여 언급하였으며 영아들은 웃음과 미소로 자신의 모습을 주시하였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영아가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수용과 존중을 받을 때 형성되며(Coopersmith, 1967) 부모의 태도나 표정, 목소리가 이 시기 영아의 자아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Pipp, 1992)를 볼

때 긍정적인 의미의 수식어와 함께 언급되는 이름 불러주기는 영아의 자아 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영아는 자신은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자신만의 이름을 내면화하게 되고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자신의 이름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하거나 이름과 자기 자신을 연계하여 생각하게 됨으로써 남과는 다른 독특한 자아상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영아들은 자신을 가리킬 때 항상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이름을 통해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를 이름을 통해 표현하는 것은 영아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기 때문이며(Lewis & Brooks-Gunn, 1982)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구체적인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여겨진다.

둘째, 어머니들은 생활 속에서 직접 만나서 사람이나 텔레비전이나 책, 그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하여 영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였는데 이 때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호칭은 친족관계에서 사용되는 친족 용어로서 영아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어머니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영아들의 입장에서 호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여아의 어머니는 영아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 아이를 보면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영아에게 알려주고자 하였으며 남아의 어머니는 ‘누나’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영아가 자신의 관점에서 타인을 구별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영아는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호칭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뿐 만 아니라 그들과 자신의 관계를 알고 그것을 기초로 타인과 자기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어린 시기부터 친족용어인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영아는 주위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호감을 가

질 수 있으며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는 토대가 된다. 또한 호칭의 사용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의 문화 특히,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반영된 우리 사회의 문화 특수적 현상으로 개인중심적인 서양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개인 간 호칭과는 대조적인 문화 현상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영아들은 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물을 접하고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보임과 동시에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였는데 이 때 어머니들은 사물에 대한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자신과 타인에게 속해 있는 사물을 구분해 주어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게 하였는데 이를 통해 영아들은 타인과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영아는 소유에 대한 주장을 통해서 영아는 소유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기도 하였는데 자기 소유물을 주장한다는 것은 영아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라고 보는 모든 것이 자기 속에 포함되기 때문이다(Cooley, 1930). 그와 동시에 영아는 타인의 소유물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행동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이는 영아가 사물의 소유권에 대한 개념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인식할 뿐 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각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 교육의 초보적이고 필수적인 형태이며 영아단계부터 어머니들은 타인의 소유물을 인정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이 엿보였다.

넷째, 영아는 가정과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생활의 장에서 보이는 사물과 상황에 호기심을 갖고 탐색하고 모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함으로써 자신의 경험 세계를 확대해 가는 양상이었는데, 어머니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보여 지는 영아의 행동을 언어로 표현해줌으로써 자신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들려다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아는 행위자로서의 자기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됨으로써 자아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들은 영아의 행동을 표현해 줄 때 사회적인 의미를 담아 해석해줌으로써 사회 문화의 가치 기준을 영아가 습득하도록 이끌어가는 양상이었다. 즉, 어머니들은 영아의 단순한 행동이 보여 지는 상황적인 맥락과 그 행동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결합하여 해석해줌으로써 영아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알려주었으며 이를 통해 영아는 자신의 행동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아가 크레파스를 잡고 아래로 선을 긋는 행동을 보고 어머니는 ‘일(1)이네, 일을 썼어.’와 같이 쓰는 행동과 아래로 선을 긋는 행위가 가진 사회적 의미의 하나인 ‘일’을 결합하여 해석해줌으로써 영아는 자신의 행동이 쓰는 행위임을 깨닫게 되고 아래로 선을 긋는 움직임은 ‘일’이라는 숫자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즉, 어머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적 규칙과 그 속에서 형성된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의 결합을 통해(Fishbein & Azen, 1975) 영아의 행동을 해석해주었으며 영아는 이를 통해 자신이 만들어낸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알게 된다.

2) 영아의 또래 관계 형성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

아동은 또래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되는데 영아들은 또래와 사물을 두고 다투거나 서로의 힘을 건주는 경험들을 통해 또래를 파악하였으며 또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한 기술들을 습득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영아들에게 또래관계에서 필요한 기술을 제안하거나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들은 또래를 처음 만나 서로를 쳐다만 보거나 장난감만을 가지고 놀았으며 또 주변을 탐색하는 가운데 또래를 탐색하는 등의 행동으로 서먹서먹한 관계를 보였다. 이 때 어머니들은 영아를 소개하고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친구의 행동을 칭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영아가 또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어머니들은 영아들이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을 서로에게 소개하였으며 잠시 동안 서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예의 시간을 두기도 하였는데 이 시간 동안 영아들은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면서 서로를 쳐다보거나 때로는 놀잇감을 빼앗는 행동을 통해 힘을 견주어 봄으로써 서로를 탐색해 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영아들은 서로 다투기도 하였는데 이 때 어머니들은 ‘우린 친구지’,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등의 언어적인 표현과 더불어 안아주게 하거나 손을 잡게 하는 등의 행동적인 표현을 통해 친구의 개념을 가르쳐 주고자 하였다. 즉, 어머니들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대인간 연결을 이끌어가는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Schiefenhovel, 1997) 친구에 대한 친근함을 심어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신체적 접촉과 언어적인 표현을 통한 반복적인 어머니들의 유도 행동에 영아들은 그대로 따라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아들은 점차적으로 또래를 파악하여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어머니의 반복적인 역할을 통해 영아들은 또래에게 친근한 감정을 느껴 또래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주기도 하였으며 또래가 위험

한 행동을 하거나 속상해할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행동의 표출을 통해 또래간의 정을 나누기도 하였다. 이는 영아도 울거나 슬픔에 빠져있는 친구에게 아주 빈번하게 반응하고 위로할 수 있으며(Ann, 1994)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뿐 만 아니라 고통 상태의 타인을 위로한다는 연구(Radke-Yarrow et al., 1984)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영아들은 초보적인 우정의 감정을 체험하고 친구에 대한 기초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들은 또래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래의 행동을 서로 칭찬하게 함으로써 서로의 행동을 인식하게 하고 그를 통해 서로의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또래가 자신에게 무엇을 나누어 준다든가 어떤 일을 완수했을 때 박수를 치게 함으로써 고맙다는 뜻을 전하게 하거나 잘했다고 또래를 칭찬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아들은 서로 긍정적인 감정의 교류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의 교류는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기쁨, 자랑스러움, 칭찬 등 긍정적 정서 행동과 박수를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긍정적 감정이 더욱 고조되었으며 강화 효과도 커지는 것으로 보여 졌다.

둘째, 어머니들은 또래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상황에 맞는 놀이방법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대안적인 행동을 제안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등 상황에 적절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원만한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영아를 돕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놀잇감 다툼으로 영아들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어머니들은 상황에 맞는 놀잇감 사용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주로 놀잇감의 주인인 영아의 배

려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놀잇감의 주인에게 ‘빌려 주자’나 ‘양보하자’ 등의 언어적인 제안과 더불어 놀잇감을 살짝 빼내어 상대 영아에게 줌으로써 빌려주거나 양보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들은 또한 ‘서로 번갈아가며 타자’, ‘바꾸어 놀자’ 등의 놀이 방법에 대한 제안을 통해서도 영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아들은 자신들의 놀이방법을 터득해나가는 양상이었다. 즉, 영아들은 스스로 놀잇감을 교환하여 가지고 놀거나 번갈아가며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어머니들의 반복적인 제안과 모델링을 통해 놀잇감의 사용과 놀이 방법이 영아들에게 학습되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셋째, 어머니들은 영아들이 뺏기나 때리기 같은 행동으로 또래를 괴롭히거나 공격하는 행동을 할 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부정적인 행동의 대안으로 제시해 주고 제시된 행동이 상황에 맞게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통해 친사회적인 행동을 습득하도록 하는 양상이었다. 즉, 또래의 물건을 차지하고자 빼앗거나 미는 등의 행동이 보일 때는 두 손을 모아 내밀음으로써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때리는 행동이 보일 때는 행동이 출현한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토대로 그에 적절한 대안 행동들을 제시하고 모델링함으로써 부정적인 영아의 행동을 친사회적인 행동으로 전환시켜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대안 제시로 유도된 친사회적인 행동은 한 번의 제안으로 형성될 수 없음에 어머니들은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언어적인 제안을 통해 영아의 기억을 깨워주고 반복해줌으로써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습득시키고자 하는 양상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행동은 가정에서 부모, 그 중에서도 어머니와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데

(Campbell et al., 2000; Ladd et al., 1993; Parke et al., 2001) 특히, 영아의 기억을 깨워주고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시켜 주는 어머니의 언어적 환경(Howes et al., 1992)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어머니에 의해 습득된 친사회적 행동은 때로 또래 관계에서 효과가 발휘되지 않음으로 인해 영아는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주세요.’를 습득한 영아가 또래를 상대로 적용했을 때 상대 영아의 거부적인 반응으로 ‘주세요.’가 항상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왜 안 통하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갈등을 겪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는데, 어머니는 ‘주세요.’의 행동이 가져다준 영아의 상처를 달래주면서 동시에 다른 놀잇감으로 영아의 관심을 돌려 기다리도록 유도하였고 이를 통해 영아의 내적 갈등은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러한 어머니의 역할은 상처받은 영아의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아는 기다림과 인내를 경험하고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영아의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기다림과 인내, 욕구 조절이라는 사회적 행동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영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촉진시켜 주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Dietz et al., 2005).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는 행동과 더불어 또래 관계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행동은 때리기였다. 영아들은 때리기를 통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때리는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즉, 영아는 또래의 물건을 빼앗거나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때리기를 활용하였을 뿐 만 아니라 또래에 대한 친근함과 반가움을 표현할 때나 당황하거나 무안함을 느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때리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때 영아는 자신의 감정 상태와 상황에

따라 때리는 행동의 강도를 달리하여 표현하였다.

어머니들은 처음에는 때리는 행동자체와 그 결과에만 초점을 두어 때리는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영아에게 부각시켜 말함으로써 무조건적으로 제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은 오히려 영아의 부정적인 행동을 증가시키기만 할 뿐(Dix et al., 1990; Field, 1995), 영아의 때리는 행동을 소거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거듭되는 관찰을 통해 때리기가 공격적인 성향만을 갖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에서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따라서 어머니들은 상황에 맞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제안하고 보여줌으로써 영아의 때리는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갔다.

이와 같이 어머니들은 상황적 맥락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변이시켜 나갔으며 이를 통해 영아들의 행동은 어머니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갔다. 즉, 어머니들은 때리는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제지시키는 역할에서 상황에 적절한 친사회적 행동의 모델자로서의 역할 변이를 통해 부정적인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영아가 때리기라는 부정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관점이 효율적인 역할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역할의 변화는 부정적인 영아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영아들은 또래 관계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때리거나 던지기, 뺨기, 강한 몸부림과 소리치기 등의 부정적인 행동으로 표출하였다. 어머니들은 영아들의 부정적인 행동이 출현 할 때, 행동이 발생된 상황을 맥락적으로 이해하여 긍정적인 의미로 전환시켜주거나 대안적인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영아의 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영아가 때리기 위해 손을 들면

‘사랑해 하는 거야?’하며 또래를 안아주는 행동으로 전환시키거나 밀치려는 행동은 밀어주는 행동으로 해석해줌으로써 영아 스스로 밀려는 행동에서 밀어주는 행동으로 변화 시키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아들의 부정적인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으로 전환하여 나갔다.

이러한 어머니의 해석은 친사회적인 행동을 습득시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소망이 반영된 결과에서 기인하고 있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영아는 어머니가 형성해주는 긍정적인 기대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어머니의 요구와 기대에 순응하고자 하는(Waters et al., 1990) 영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러한 어머니의 해석은 때로 상황적 맥락이나 영아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머니의 희망이나 편의에 따라 이루어짐으로써 영아의 마음을 무시하였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영아의 행동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즉, 영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머니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해석함으로써 영아의 감정을 좌절시키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행동을 촉발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영아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해석은 어머니의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머니들은 또한 영아들이 속상해하거나 욕구 좌절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해주고 인정하여 수용해줌으로써 부정적인 영아의 행동을 멈추게 할 뿐 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도 부정적인 감정의 표출을 완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어머니의 태도가 영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Dietz et al., 2005) 자기 통제 발달 같은 사회적 과정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줌으로써(Houck et al., 2002)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즉, 영아의 감정을 수용하고 공감해주는 어머니의 태도가 영아의 욕구불만을 해소시키는 요소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영아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영아의 부정적인 행동 표출로 인해 또래 갈등이 유발될 때 어머니들은 영아에게 사과시키고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도록 강요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화난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영아의 행동을 제지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영아의 부정적 행동 표출은 어머니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따라서 어머니들은 때로 화난 감정을 큰 소리로 표현하거나 아무 말 없이 영아를 외면함으로써 영아 스스로 압박감을 느끼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영아의 부정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행동은 때로 영아에게 일시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는 하였으나 모방적 행동이 많은 이 시기 영아의 행동 모델이 될 수 있으며(Bandura, 1986) 언어적인 화나 신체적 공격 같은 어머니의 부정적인 행동은 아동에게 내면화되어 문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음에(Cummings et al., 2002) ‘화’를 통한 영아 행동의 제지는 유의하여 사용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어머니들은 또한 영아의 부정적인 행동으로 인해 또래 갈등이 유발될 때 상대 영아에게 잘못된 행동을 사과하도록 강요하고 이러한 행동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약속이라는 사회적 규약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영아는 ‘미안해’가 의미하는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음에 이끌려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약속 또한 영아의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방적인 행동으로 때론 영아에

의해 거부당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어머니의 강압에 이끌려가고 있었다.

또한 사과와 약속은 갈등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상대 영아에게 해를 얼마나 끼쳤느냐 아니냐의 기준에 의거하거나 타인과의 관계성을 우선시하는 어머니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강압적으로 수행되었다. 어머니들은 영아들이 사과와 약속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듯이 보였으며 따라서 어머니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영아들을 이끌어 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억압적인 어머니의 태도는 영아의 부정적인 기질을 형성함으로써 또 다른 또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Schudlich et al., 2004) 영아의 부정적인 행동을 오히려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Dix et al., 1990; Field, 1995) 결과들에 비추어볼 때 사과와 약속은 강압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정확한 판단과 영아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3) 영아의 지식 습득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

어머니들에게는 영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영아의 안전이나 사물과 관련된 지식, 사회구성원으로 지녀야 할 사회적 규범 등과 관계된 지식들을 가르치고자 하였다. 즉, 이 시기 어머니들이 영아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지식은 주로 사물과 관련된 지식들이었으며 어머니들은 ‘책’을 매개로 하여 사물과 동물의 이름과 특성, 모양과 쓰임새 등을 영아들에게 알려주고 실생활에서 찾아보거나 영아의 경험과 연결해 보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들은 예절바름과 공손함의 미덕을 강조하는 사

회 규범과 정리정돈이나 놀잇감 가지고 노는 방법 등과 같은 생활의 규칙 같은 지식들을 습득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규범과 규칙은 상황과 규범의 특성에 따라 방법을 달리 하면서 상황에 적절하게 자신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어머니들은 생활 속에서 자동적이고 습관적인 실천을 통해, 때로는 직접적인 제안이나 가르침, 칭찬과 격려, 길들이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적인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들은 책을 매개로 하여 영아들에게 사물과 동물의 이름과 특성, 모양과 쓰임새 등을 알려줌으로써 사물에 대한 지식을 구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에 있는 사물이 영아가 알고 있는 것일 때는 질문을 함으로써 영아의 기억을 깨우쳐 주고 영아의 경험과 연계하려고 하였으며 책에 있는 사물과 실재를 연결하여 주변에서 찾아보게 하거나 또는 움직임을 따라하게 하거나 몸으로 사물의 모양을 만들어 보는 등 책 속의 그림과 현재 상황의 연결을 통해 사회적 지식을 구성해 나가도록 하였다.

영아들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운 지식들을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습득해나가고 있었는데 영아들은 어머니로부터 얻은 정보를 언어로 따라서 반복하거나 자신이 직접 주변에서 찾아보고 만져보고 그대로 행동해 보는 등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어머니로부터 안내된 지식을 재구성하고 습득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영아에 따라 발달적 특성이 다르고 행동 방식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며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아 영아기 때부터 개인차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곽금주 외, 2004).

어머니의 안내에 따라 습득된 지식은 또 다른 경험과의 결합을 통해 영아만의 독특한 표현을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영아는 자

기 방식의 표현이 존중받기를 원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반짝반짝’이라는 별의 표현은 어머니의 안내와 또 다른 경험과의 결합을 통해 ‘빠까빠까’라는 영아만의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영아의 독특한 표현은 반복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존의 사회 안에서 공인되는 표현으로 전환되어 가는 양상이었는데 이는 영아가 규범적인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예고하는 의미임과 동시에 영아만의 독특한 상상력과 창의성이 사회 문화적 규범에 맞추어 손실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영아들은 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보였는데 이 때 어머니들은 영아들이 만져보게 하거나 사용해보도록 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특성을 직접 느끼게 하였으며 동시에 그 느낌에 대한 표현을 말로 직접 이야기 해줌으로써 사물에 대한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사회적 상징을 가르쳐주고자 하였다. 즉, 부드러움, 미끌미끌함, 까칠까칠함, 폭신함 등의 느낌은 상징적인 언어만으로는 형성할 수 없는 지식일 뿐 만 아니라 그 느낌에 대한 사회적인 표현은 직접적인 접촉으로만 영아가 구성할 수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영아들이 사물을 직접 만지고 느끼게 함과 동시에 그 느낌을 언어로 표현해줌으로써 사물의 느낌에 대한 사회적 상징을 가르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영아가 모래를 만질 때, 어머니는 ‘꺼끌꺼끌한 거야’라고 언어적으로 표현해줌으로써 모래를 만지는 느낌과 꺼끌꺼끌한 것이라는 언어와의 연계를 통해 영아는 모래의 느낌에 대한 사회적 표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들은 영아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사물에 호기심을 보일 때에도 직접 만져서 경험하게 하면서 동시에 ‘아프지? 아야 하는 거야’ 등의 표현을 통해 사물이 가진 위험성을 깨닫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물리적 지식을 구성하는 데는 바람직한 방법

범이라 할 수 있으나, 자칫 영아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보여 지므로 사물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안전이 우선임을 고려하여 지도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사물에 대한 지식 구성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어머니의 언어였으며 어머니들은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소개하고 안내하였는데 이는 언어 자체가 사회적 지식이고 사물에 대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초기 사회화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지식 구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어머니의 언어적 환경이며(Howes et al., 1992) 언어 습득은 사회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셋째, 어머니들은 인사와 주기 같은 규범을 생활 속에서 자동적이고 습관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행동 모델이 되기도 하였으며 때에 따라서는 권유와 제안을 통해 영아들이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는 현상이 보여졌다. 이는 전통적으로 인사를 예절의 가장 으뜸으로(구영분, 2003) 여겨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강조했던 조상들의 방법이 시대적 흐름과 함께 전달되어 온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인사에 대한 어머니들의 습관적인 실천은 영아의 행동 모델이 되었으며 영아 스스로 생활 속에서 인사를 반복하고 연습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즉, 영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발적으로 인사를 함으로써 연습의 기회를 가졌으며 또한 또래와 놀이 과정 속에서 재현하고 반복함으로써 인사라는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기에 고개 숙이는 행동으로만 표현되었던 영아의 인사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과의 결합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로 부터 인사 행동을 인정받았으며 이를 통해 인사 행동이 더욱 확장되는 양상이었는데 이는 고개 숙이는 행동 자체만으로는 분명하게 이해될 수 없는 영아의 행동이 우리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언어로 표현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

다. 인사행동에 대한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은 영아의 인사 행동을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는 인사를 통해 경험한 긍정적인 즐거움이 내적 동기를 만들고 이러한 내적 동기는 다시 인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자극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또한 친사회적인 행동은 인간의 내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Cheah et al., 2003) 영아는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인사가 가져오는 즐거움을 경험함으로써 인사는 우리 사회에서 선호되는 행동임을 영아가 인지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넷째, 예절 규범과 관련하여 어머니들이 많이 가르치고자 했던 규범은 두 손 내밀기를 통한 ‘주세요.’와 ‘네’라는 대답의 강조 및 어른 먼저 드리기 등 이었는데 이는 자신의 의도나 동기와는 상관없이 사회문화적인 관습, 관념, 행동규범의 영향을 받음으로써(정현숙 외, 2002) 형성된 공손함의 미덕에 대한 어머니들의 소망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 진다.

공손한 행동의 형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영아의 행동이 출현할 때 수정해주고 가르치고자하는 어머니의 행동에서 출발되는 양상이었는데 이는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기준에 맞는 행동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신념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Mills et al., 1990). 즉, 어른보다 먼저 먹으려고 하거나 성인의 물음에 ‘응’이라고 대답하는 영아의 행동은 우리의 사회문화적 가치 기준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었으며 따라서 어머니들은 그러한 행동이 출현할 때마다 사회 문화적인 기준에 맞게 행동을 수정해주고 가르치는 반응을 통해 공손한 태도를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

이와 같이 어머니들은 영아들의 행동이 사회적 기대에 맞게 가르치고 수정해 줌으로써 영아의 행동을 규범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영아는 이에

적절하게 반응함으로써 어머니가 제시해주는 규범과 규칙을 받아들이고 동일시하였으나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가르침은 수동적인 영아의 행동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어머니들은 성인의 물음에 ‘응’이라고 대답하는 영아의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네’라는 대답으로 수정해주었는데 이러한 반복적인 가르침은 무의식적이고 의례적인 ‘네’의 실행을 가져옴으로써 수동적인 행동을 양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섯째, 어머니들은 생활의 규칙을 습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길들이기를 시도하였는데 길들이기는 어머니가 원하는 방향으로 영아의 행동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는 양상이었다. 즉, 놀잇감을 정리정돈하거나 휴지는 일정한 곳에 버리기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형성시키기 위한 길들이기에서 영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르기 위한 길들이기까지 어머니들은 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길들이기를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길들이기는 영아의 행동을 엄마의 의도대로 조절하고 영아의 독립성을 길러주려는 주도적인 어머니의 신념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Mills et al., 1990).

어머니의 주도적인 신념에서 시작된 길들이기는 영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보기도 하였지만 영아의 마음을 외면한 채 길들이려는 어머니의 태도는 오히려 영아의 부정적인 감정만을 조장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는데 이는 길들이기가 자신의 사회화에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Corsaro, 1997; Mayall, 2002) 영아의 의지와 맞물려 저항을 불러일으킨 결과로 보여 진다.

여섯째, 어머니들은 영아들에게 어떤 사물을 나누어 주거나 또 나눔의 의미를 가진 주기 행동을 제안하고 영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림으로써 ‘나눠주기’라는 규범을 실천하도록 하였는데 이 때 어머니들은

영아들에게 나누기를 가르치거나 강요하기보다는 생활 속에서의 제안을 통해 영아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영아들은 주는 행동에서 자주 망설이거나 자신의 것을 먼저 가지고 남았을 때에만 주기 행동을 실행하기도 영아기에 함으로써 주기 행동이 스스로의 의지로 실천하기 힘든 행위임을 보여 주었다. 이는 자아중심성이 강한 이 시기 영아들의 행동 발달 면에서 볼 때,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이타적인 행동인 주기가 영아의 자율적 의지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사회적 규범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나눠 주기는 영아 스스로의 의지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행동 규범으로 보여 졌으나 어머니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영아들에게 나눠주기를 제안하고 실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나누기 행동을 중요시 하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가치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 진다(김예빈 외, 2005). 즉, 어머니들은 습관적으로 때로는 의도적으로 영아들에게 과일이나 놀잇감, 과자 등을 성인이나 또래에게 나눠 주기를 제안함으로써 주기 행동을 유도해 나가는 양상이었는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나누기나 돕기를 가르치고자 할 때 모델링을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박성연, 2003; 김예빈 외, 2005)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모델링은 아동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지만 영아의 나누기 행동은 자율적 의지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행동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제안을 통해 주기 행동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어머니의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영아의 사회화는 어머니의 가치와 신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가기보다는 영아의 자율적 의지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주거나 나누기 같은 사회적 규범은 의도적인 가르침

과 병행하여 스스로 모범을 보일 때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일곱째, 어머니들은 영아들이 스스로 인사를 하거나 물건주기 같은 사회적 기대에 맞는 행동을 할 때나, 정리 정돈과 휴지통에 쓰레기 버리기 같은 바른 생활 습관들이 보여 질 때마다 ‘잘 했어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등의 언어적인 격려와 더불어 소리 지르기, 환호하기, 박수 쳐주기 등을 통해 사회적 규범 행동을 강화시키고 생활의 규칙을 형성시켜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규범을 강화시키는 어머니들의 방법은 위와 같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박수였다. 박수는 많은 사회에서 남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어머니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박수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아들의 행동을 촉진시켰다. 즉, 영아가 음식을 먹었을 때나 어떤 일을 완수했을 때, 또 친구에게 놀잇감이나 음식을 나누어 주었을 때 등 사회적 기대에 맞는 행동을 할 때마다 ‘잘 했어요.’라는 의미를 담아 박수로 표현해 주었다.

이러한 성인의 강화 행동은 영아에게로 전이되어 영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표현할 때나 자신의 행동 수행에 대한 칭찬을 유도할 때에 박수를 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동조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이는 음성적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인해 다양한 몸짓과 신호를 사용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Slaughter et al., 2003) 이 시기 영아의 발달적 특성이 ‘박수’라는 행동적 언어를 선호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 지며 또한 박수를 칠 때 어머니들이 보여준 웃음과 환호가 영아들에게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의미가 담긴 행동 규범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2. 결론 및 제언

다음에서는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을 중심으로 연구의 의의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들은 영아의 자아개념을 형성해 주었는데 구체적인 예로 일상생활 속에서 영아의 이름을 불러주거나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소유권을 알려주고 영아 중심의 호칭을 사용하거나 영아의 행동에 대해 말로 해석해줌으로써 영아 스스로 자아를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타인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돕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들이 생활 속에서 영아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고 매 상황마다에서 영아의 이름을 언급하였으며, 영아는 자신의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고개를 돌려 쳐다보거나 자신을 가리킴으로써 자기의 이름이 자기만을 지칭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어머니들의 이름 불러주기는 영아가 타인과 다른 자신의 독특성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아는 다른 사람과의 구별선인 자신의 이름을 내면화하게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이름과 자기 모습을 연계해봄으로써 남과는 다른 독특한 자아상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들은 또한 생활 속에서 직접 만나는 사람이나 텔레비전, 책, 그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호칭과 사물에 대한 소유권을 알려주었는데 이를 통해 영아는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알고 그 관계의 중심에 있는 주체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어머니들은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영아의 행동을 언어로 표현해줌으로써 자신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영아는 행위자로서의 자아를 인식하고 행동을 만들어내는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가는 양상이었다. 이 때 어머니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적 규칙과 그 속에서 형성된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의 결합을 통해 영아의 행동을 해석해주는 양상이었는데 이를 통해 영아는 자신이 만들어낸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알게 되고 사회 문화 속에 존재하는 자아를 인식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영아의 또래 관계 형성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또래를 소개하고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또래의 행동을 칭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통해 또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시간 동안 영아들은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면서 서로를 쳐다보거나 때로는 놀잇감을 빼앗는 행동을 통해 힘을 견주어 봄으로써 서로를 탐색해 나가는 양상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영아들은 서로 다투기도 하였는데 이 때 어머니들은 ‘우린 친구지’,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등의 언어적인 표현과 더불어 안아주게 하거나 손을 잡게 하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친구의 개념을 가르쳐 주고자 하였으며 또래의 행동을 칭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또래에 대한 친근함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 속에서 영아들은 또래에게 친근한 감정을 느껴 또래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주기도 하였으며 또래가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속상해할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행동의 표출을 통해 또래간의 정을 나누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영아는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영아들은 또래와 동시에 같은 사물을 향할 때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였는데 이 때 어머니들은 또래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상황에 맞는 놀이방법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대안적인 행동을 제안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등 여러 가

지 방법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어머니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타자’, ‘바꾸어 놀자’ 등의 놀이 방법에 대한 제안을 통해서 영아의 갈등을 해결하고 뺏기나 때리기 같은 행동으로 또래를 괴롭히거나 공격할 때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대안적 행동을 제시해 주었으며 제시된 행동이 상황에 맞게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영아의 기억을 깨워주고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들은 영아들의 부정적인 행동이 출현 할 때, 행동이 발생된 상황을 맥락적으로 이해하여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친사회적인 행동으로 전환시켜 나갔으며 때론 영아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줌으로써 욕구불만적인 감정을 해소시켜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영아의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해주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태도는 상호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영아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영아의 부정적인 행동 표출로 인해 또래 갈등이 유발될 때 어머니들은 영아에게 사과시키고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도록 강요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화난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영아의 행동을 제지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행동은 영아에게 일시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는 하였으나 어머니의 부정적인 행동은 내면화되어 문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모방적 행동이 많은 이 시기 영아의 행동 모델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영아들은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물을 중심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식은 주로 책과 어머니의 언어를 매개로 하여 영아의 경험과 연계하기, 실생활에서 찾아보기를 통해 구체화시켜 나가는 양상이었다. 영아들은 어머니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된 지식들을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구성해 나갔으며 또 다른 경험과의 결합을 통해 영아만의 독특한 표현을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영아의 독특한 표현은 반복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인된 표현으로 전환되어 갔는데 이는 영아가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예고하는 의미임과 동시에 영아만의 독특성과 개성이 사회 문화적 가치 기준에 의해 사라지는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어머니들은 영아를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사물은 영아가 직접 경험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잘못 사용하면 영아를 해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사물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행동 수준을 조절하여 사용하여야 하겠다. 특히, 사물 지식 구성 과정에서의 중요한 요소는 어머니의 언어였으며 어머니들은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소개하고 안내하였는데 이는 언어 자체가 사회적 지식이고 사물에 대한 언어를 배우는 것이 곧 사회화의 한 과정이기 때문이며 어머니의 언어적인 환경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어머니들이 이 시기 영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사회적 규범은 인사와 나눔의 의미를 가지는 주기, 두 손 내밀기를 통한 ‘주세요.’와 ‘네’라는 대답의 강조 및 어른 먼저 드리기 등과 같이 예절과 관련된 규범이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손함의 미덕에 대한 어머니들의 소망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 진다. 어머니들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동적인 실천을 통하여 이러한 규범들을 익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으며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 영아의 행동이 출현하는 것을 기점으로 바람직한 사회적 규범에 맞게 수정하고 가르침으로써 사회 문화적 가치에 맞는 규범들을 습득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영아들은 자동적으로 사회적 규범을 습득하였으며 어머니가 수정하고 제안해주는 방법을 그대로 수용하여 생활 속에서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양상

이었는데 이는 자동적이고 습관적인 어머니의 실천이 영아들의 사회적 규범 형성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어머니들은 또한 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길들이기를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길들이기는 영아의 행동을 어머니의 의도대로 조절하고 영아의 독립성을 길러주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며 때로 영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보기도 하였지만 영아의 마음을 외면한 채 길들이려는 어머니의 태도는 오히려 영아의 부정적인 감정만을 조장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하였는데 이는 길들이기가 자신의 사회화에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영아의 의지와 맞물려 저항을 불러일으킨 결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사회적 규범과 규칙 습득을 강화시키기 위해 ‘잘했어요.’와 같은 언어적인 격려와 환호성 지르기, 박수 쳐주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영아들이 가장 선호하고 많이 따라하는 방법은 박수 치기였다. 이는 다양한 몸짓과 신호를 사용하여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하는 이 시기 영아의 발달적 특성이 ‘박수’라는 행동적 언어를 선호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 지며 또한 박수를 칠 때 어머니들이 보여준 웃음과 환호가 영아들에게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의미가 담긴 행동 규범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문화기술적인 연구 방법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영아와 어머니의 생활사를 면밀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이 시기 영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회화 되어 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영아의 사회화 과정에서 보여 지는 어머니의 역할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떠한 상황적인 맥락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하게 전개되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 맞는 어머니 역할을 정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영아의 사회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의 영아를 가정에서 관찰함으로써 사회화가 가져다주는 인간의 변화 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동시에 가정에서 보여 지는 사회화의 내용은 영아 사회 교육의 내용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정과 기관의 연계를 통한 영아 사회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술적인 연구를 통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영아의 사회화 내용과 그에 따른 어머니 역할의 역동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영아 사회화에 기여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상황적 맥락과 어떻게 연계되어 나타나는지를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르는 사회화과정과 그에 따르는 어머니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연령을 변인으로 사회화에 대한 탐색을 함으로써 연령에 따르는 사회화 내용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아동의 사회화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영아의 사회화 과정에서의 어머니 역할만을 살펴봄으로써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나 다른 가족 구성원, 가족을 둘러싼 생태적인 변인 등과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 역할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인 변인과 그 속에서 어머니들이 겪는 역할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머니의 어

려움은 영아의 사회화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아의 사회화에 공헌하는 효율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영아의 사회화 과정에서 보여 지는 어머니의 역할에만 초점을 둬으로써 자신의 사회화에 기여하는 영아의 역할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연령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여, 영아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탐색을 통해 사회화 과정에서의 영아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곽금주(2005). **한국영아발달 연구**. 서울: 학지사.
- 곽금주 · 김민화 · 한은주(2004).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 방식과 영아기 사회적 의사소통능력. **아동학회지**, 25(5), 111-128.
- 곽금주 · 김수정 · 정윤경(2005). 어머니 신체접촉 변화에 대한 영아 반응의 민감성. **아동학회지**, 26(5), 123-137.
- 구영본(2003).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절**. 서울: 도서출판 형설
- 김경혜(1993). 아동의 지적 특성, 양육, 교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난실 · 김용희(2002). 영아기의 또래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림산업정보대학 논문집**, 32, 239-262.
- 김동위(2001). **교육사회학 신강: 풀어 쓴 교육 · 사회이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민정(2006). 유아의 공격 및 위축행동에 대한 부모의 신념 및 사회화 전략.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화 · 곽금주(2004). 장난감 중심 상호작용 상황에서 보이는 영아-어머니 주도성과 반응성.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7(2), 19-35.
- 김문정(2000). 사회적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개념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승경(1998). 영아-어머니간 상호작용 측면에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천(1998). **학교교육 현상 탐구를 위한 질적 연구의 방법과 과정**.
- 이용숙 · 김영천(편).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과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영희(1996). 기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33-146.
- 김예빈·박성연(2005). 남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회화 양육신념. **아동학회지**, 26(6), 145-160.
- 김은지(2002). 아버지의 사회화 신념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23(2), 187-203.
- 김정호(2004). **신교육사회학**. 서울: MJ미디어
- 김진영·김정원·전선옥(2000). **유아-부모-교사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창지사.
- 김태련 외(200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혜영(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본 생활습관과의 관계. **아동연구**15(1), 51-81.
- 김혜경(2005). 어머니의 부모역할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희진(1995). 자녀 양육에 대한 한국과 미국 어머니들의 신념 비교 연구, **유아교육연구**, 15(2), 5-22.
- 도현심·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 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문혁준(2000).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의 훈육방법. **대한가정학회지**, 38(6), 29-41.
- 박성연(2003). Korean mother's proactive socialization beliefs regarding preschoolers' social skill. 2003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International Conference. pp 65-188.
- 박성연(2006). **아동발달**. 서울: 교문사.
- 박성연·도현심(2001). **아동발달**. 서울: 동문사.

- 박성연 · 서소정 · Bornstein, M.(2005). 어머니-영아간의 상호작용방식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5), 15-30.
- 박수연(2005). 영아의 성 및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수행에 대한 귀인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및 양육지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부정남(1988). **사회과학개론**. 서울: 나남.
- 서봉연 · 이순형(1993). **발달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 서희정(1995).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성영혜(1992). **아동사회학**. 서울: 문음사.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정선(1997).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특성. 전남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윤은미(2004).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한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윤형주 · 조복희(200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가정의 양육 환경 및 그 관계성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2), 59-88.
- 이소희 외(2004).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서울: 현학사.
- 이영 · 나유미(1999). 유아의 애착 및 어머니-유아 상호작용과 또래 상호작용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19-32.
- 이영자 · 유효순 · 이정옥(2001). **유아사회교육**. 서울: 교문사

- 이용숙·김영천(2005).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이용숙(2005). **교육인류학; 연구방법과 사례**. 서울: 아카데미
- 이은화(1987). **한국 어머니의 유아 사회성 교육**.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은화·김영옥(2000). **유아사회교육**. 서울: 양서원.
- 이재훈 역(1999).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 한국 심리치료 연구소.
- 이형민(2006). 어머니의 양육 유형 및 민감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임정미·이명조(2000). 한국 및 일본 유치원 학부모의 자녀 양육: 한국
Y유치원, 일본의 K유치원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1),
137-159.
- 장유경·김소연(2005). 한국 영아의 초기 의사소통. **아동학회지**, 26(1),
155-167.
- 정낙찬·이동기·채취균 편저(2002). **한국의 전통교육**. 경북: 영남대학교
출판부
- 정현숙(2002). 유아의 완수경향성과 수행 성취도 및 부모 양육행동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조성일·신재흡(2004). **교육사회학**. 서울: 학이당.
- 조용기.(2005). **교육의 쓸모**. 서울: 교육과학사.
- 조용환(1999c). **질적 연구 : 방법과 사례**. 서울: 과학교육사
- 조정문·장상희(2001). **가족사회학**. 서울: 아카넷.
- 주영희(2001). **유아 언어 발달과 교육**. 서울: 교문사.
- 편은숙(200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역할 인식과 자녀 양육 스
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성은(2005). 14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순영(2003). **인간의 사회 · 성격 발달심리**. 서울: 학지사.
- 한지현 · 이영환(2005). 영아의 기질 및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상황에 따른 모-영아의 상호작용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287-303.
- 현미숙(2004). 유아기 부모를 위한 부모 역할 지능 척도(PIS)의 개발. **아동학회지**, 25(6), 15-34.
- 현온강(1994). 어머니의 역할만족도와 관련변인.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혜정 · 김경희 · 이해경 · 어주경 · 나유미(2003). **아동과 환경**. 서울: 학지사.
- Arnett, J. J.(1995). Broad and narrow socialization: The family in the context of a culture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617-628.
- Azuma, H.(1986). Why study child development in Japan? In H. Azuma, & Hakute(Eds.),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in Japan*, (pp. 3-12). NY : Freeman.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umrind, D.(1991). *Effective parenting during the early adolescent transition*. In P. A. Cowan & E. M. Hetherington (Eds.), *Advances in family research*. (Vol. 2). Hillsdale, NJ: Erlbaum.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692-705.
- Berk, L.(1994). *Infants and children*. Boston: Allyn & Bacon.
- Bergin, C. A., Bergin, D. A., & French, E.(1995). Preschooler's prosocial repertoires: parent's perspectiv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 81-103.

- Bogdan, R. C. & Biklen, S. K.(2003).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heory and methods* (3rd ed.).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Bornstein, M. H.(1991). Approaches to parenting in culture. In M. H. Bornstein(Ed.), *Cultural Approaches to Parenting*. 3-19.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 Inc.
- Bornstein, M. H.,(2002). *Handbook and parenting*. 2nd ed. Mahwah, NJ.:Erlbaum.
- Bornstein, M. H., Azuma, Tamis-LeMonda, C. S., & Ogino, M.(1990). Mother and infant activity and interaction in Japan and in United States : A comparative macroanalysis of naturalistic exchang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13, 267-287.
- Bornstein, M. H., & Tamis-LeMonda, C. S.(1990). Activities and interactions of mothers and their firstborn infants in the first six months of life: Covariation, stability, continuity, correspondence, and prediction. *Child Development*, 61, 1206-1217.
- Bowlby, J.(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ive and prospect. *Amer. J. Orthopsychiat*, 52(4), 664-678.
- Brenner, V., & Fox, R. A.(1998). Parental discipline and behavior problems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9, 251-256.
- Bronson, W.(1981). Toddlers' behavior with agemates: Issues of interaction, cognition and affect. Norwood, NJ: Ablex.

- Campbell, S. B., Shaw, D. S., & Gilliom, M.(2000). Early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oddlers and preschoolers at risk for later maladjustment.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12*, 467-488.
- Chamberlain, P., & Patterson, G. R.(1995). Discipline and child compliance in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Applied and practical parenting, 4*, 205-225. Mahwah, NJ: Erlbaum.
- Cheah, C. S., & Rubin, K.(2003). European American and Mainland Chinese mothers' socialization beliefs regarding preschooler's social skill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3*, 1-22.
- Chess, S., & Tomas, R.(1984). *Origins and evolution of behavior disorder*. New York: Brunner/Mazel.
- Clarke-Stewart, K. A.(1987). *Predicting child development from child care forms features: The Chicago study, Volume1*.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Cooley, C. H.(1930). The development of sociology of Michigan. In Angell, R. G.(Ed.), *Sociology theory practice*. 3-19. New York: Holt.
- Corsaro, W.(1997). *The sociology of childhood*. Thousand Oaks, California: Fine Forge Press.
- Coie, J. D., & Dodge, K.(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779-862). New York: Wiley.

- Cote, L. R., & Bornstein, M. H.(2001).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acculturation: II. Behaviors coherence and correspondence in Japanese American and South American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25(6), 564–576.
- Crockenberg, S., & Litman, C.(1990). Autonomy as competence in 2–year–olds: Maternal correlates of child defiance, compliance, and self–assertion. *Development Psychology*, 26, 961–970.
- Cummings, E. M., & Davies, P. T.(2002).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 Recent advances and emerging themes in process–oriented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8, 123–139.
- Dietz, L. J., & Jennings, K. D. & Abrew, A. J.(2005). Social skill in self–assertive strategies of toddlers with depressed and nondepressed mother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6(1), 94–116.
- Dix, T. H., Reinhold, D. P., & Zambarano, R. J(1990). Mother’s judgment in moment of anger. *Merrill–Palmer Quarterly*, 36, 465–486.
- Dunn, J.(1994).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of emotions, relationships, and memberships in a particular culture. In P. Ekman, & R. Davidson (Eds.), *The nature of emotion: Fundamental questions*. 352–35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urkheim , E.(1982).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s*. London: McMillan.

- Erikson, E.,(1963). *Child and society*(2nd ed.). New-York: Norton.
- Fagot, B. I., & Kavanagh, K.(1993). Parenting during the second year: Effects of children's age, sex, and attachment classification. *Child Development, 64*, 258-271.
- Field, T.(1995). Infants of depressed mother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8*, 1-13.
- Field, T.(2003). *Touch*.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 Fishbein, M., & Azen, I. B.(1975). *Attitude Intens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Freud, A.(1946). *The psychoanalytic treatment of children*. London: Imago.
- Gecas, V.(1976). The socialization and child care roles. In F.I Nye(Eds.). *Role structure and analysis of the family*.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Gonzalez-Mena, J.(1992). Taking a culturally sensitive approach in infant-toddler program. *Young Children, 47*(2), 4-9.
- Goodnow, J. J.(1984). Parents' ideas about parenting and development; A review of issues and recent work. In M. E. Lamb, A. L.Brown & Rogoff (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3*, 193-242. Hillsdale, NJ : Erbaum.
- Goodnow, J. J.(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2), 296.

- Goodnow, J., & Collins, W. A.(1990). *Development according to parents: The nature, source, and consequences of parents' idea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rusec, J. E., & Kuczynski, L.(1980). Direction of effect in socialization: A comparison of the parent vs. the child's behavior as determinants of disciplinary technique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1-9.
- Grych, J., & Fincham, F.(2001).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mner, T. J., & Turner, P. H.(2001).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4th ed.). Boston, MA : Allyn & Bacon.
- Harkness, S., & Super, C.(1995). *Parents' cultural belief systems*. New York: Guilford.
- Harwood, R. L., Schoelmerich, A., Schulze, P. A., & Gonzalez, Z.(1999). Cultural differences in maternal beliefs and behaviors: A study of middle-class Anglo and Puerto Rican mother-infant pairs in four everyday situations. *Child Development*, *70*(4), 1005-1016.
- Houck, G. M. & Lecuyer-Maus, E. A.(2002). Maternal limit-setting patterns and toddler development of self-concept and social competence.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25*, 21-41.
- Howes(1988). Peer interaction of young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3*, (Serial No. 217), 1-78.

- Howes(1997). Children's experiences in center-based child care as function of teacher background and adult : child ratio. *Merrill-Palmer Quarterly*, 43(3), 404-424
- Howes, C., Phillips, D.A., & Whitebrook, M.(1992). Thresholds of quality: Implications for the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center-based care. *Child Development*, 63, 449-460
- Hughes, F. P.,(2003). 놀이와 아동발달. 김광웅외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저 1999년 출간)
- Kennedy, J. H.(1992). Relationship of maternal beliefs and childrearing strategies to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 children. *Child Study Journal*, 22, 39-60.
- Kochanska, G.(1997). Mutually responsive orientation between mothers and their young children: Implications for early socialization. *Child Development*, 68, 94-112.
- Kochanska, G. & Kuczynski, L.(1991). Maternal autonomy granting: Predictors of normal and depressed mothers'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with the requests of five-year olds. *Child Development*, 62, 1449-1459.
- Ladd, G. W., LeSieur, K. D., & Profilet, S. M.(1993). Direct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children's peer relations. In S. Duck (Ed.), *Learning about relationships: Understanding relationship process series*. 2. 152-183. Thousand Oaks, CA: Sage.
- Lamb, M. E., & Easterbrooks, M. A.(1981). Individual difference in parental sensitivity: Origins, components, and consequences. In M.D. Lamb (Eds.), *Infant social cognition: empirical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Hillsdale, NJ: Erlbaum.

- Lamborn, S. D., Mounts, N. S., Steinberg, L., & Dornbusch, S. M.(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 LeVine, R.(1980). A cross-cultural perspective on parenting. In M. Fantini, & R. Cardenas(Eds.), *Parenting in a multicultural society*. 17-26. New York: Longman.
- LeCompte, M. D., & Preissle, J.(2003).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2nd Ed.).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Lerner, J. V.(1984). The important of temperament for psychosocial functioning: Tests of a "goodness of fit" model. *Merrill-Palmer Quarterly, 30*, 177-188.
- Lewis, M., & Brooks-Gunn, J.(1979). *Social cognition and the acquisition of self*. New York: Wiley.
- Lewis, M., & Michalson, L.(1983). *Children's emotions and moods :Development theory and measurement*. New York : Plenum.
- Marriam, S. B.(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Mayall, B.(2002). *Towards a sociology for childhood: Thinking from children's lives*.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 McCartney, K., Scarr, S., Phillips, D.,& Grajek, S.(1985). Day care as invention :Comparisons of varying quality program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 Mead, G.(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llis, R. L., & Mullis, A. K.(1990). The effects of context on parent-child interaction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1*(3), 411-413.
- Mills, R. S., & Rubin, K. H.(1990). Parental beliefs about social behaviors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138-151.
- Okagaki, L., & Divecha, D. J.(1993). Development of parental belief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35-6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Orlick, T., Zhou, O., & Partington, J.(1990). Co-operation and conflict within Chinese and Canadian Kindergarten setting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2*, 20-25.
- Parke, R. D., Kim, M., Flyr, M., Mcdowell, D. J., Simpkins, S. D., Killian, C. M., & Wild, M.(2001). Managing marital conflict: Links with children's peer relations. In J. Grych & F. Fincham (Eds.),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development*. 291-3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isner-Feinberg, E. S., Burchinal, M. R., Clifford, R. M., Culkin, M. L., Howes, C., Kagang, S. L. et al.(2001). The relation of preschool child-care quality to children's cognitive and social developmental trajectories through second grade. *Child Development*, *72*(5), 1534-1553.
- Radke-Yarrow, M., & Waxler, C.(1984). Roots, motives and patterns i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In Staub, E., Bar-Tal, D., Karylowski, J., & Reykowski.(Ed.), *Development and maintain of prosocial behavior: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positive behavior*. 81-99. New York: Plenum.

- Rheingold, H., & Eckerman, C.(1971). Departures from the mother. In H. Schaffer(Eds.), *The origins of human social rel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 Richards, M., & Light, P.(1986). *Children of social world*. Cambridge: Polity Press.
- Ross, H. S., Conant, C. Cheyne, C. A., & Alevizos, E.(1992). Relationships and alliances in the social interactions of kibbutz toddlers, *Social Development, 1*, 1-17.
- Rubin, K. H., Bukowski, W., & Parker, J. G.(1998).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3*, 619-700. New York: John Wiley & Sons.
- Rubin, K. H., Hastings. P., Chen, X., Stewart, S. & McNichol. K.(1998). Interpersonal and Maternal Correlates of Aggression, Conflict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Toddlers. *Child Development, 69*(6), 14-29.
- Schiefenhovel , W.(1997). Universals in interpersonal interactions. In U. Segerstrale & P. Molnar(Eds.). *Noverbal communication: Where nature meets culture*. 61-79.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chudlich, Td., D. R., Shamir, H. & Cummings. M.(2004) Marital conflict, children's representations of family relationships, and children's dispositions towards peer conflict strategies. : *University of Notre Dame*. Blackwell Publishing Ltd.
- Shaffer, D. R.(1994). *Social & Personality*. Brooks/cole.

- Shimar, H., Du Rocher Schudlich, T., & Cummings, E. M.(2001). Marital conflict, parenting styles, and children's representations of family relationship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 123-151.
- Slaughter, V. & McConnell, D.,(2003). Emergence of joint attention: Relationships between gaze following, social referencing, imitation and naming infancy.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4*(1), 54-71.
- Snow, C.(1998). *Infant Development*(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pradly(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이희봉 역, '참여관찰방법').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Stack, D, M., LePage, D. L., Hains, S., & Muir, D. W.(2001). *Differential touch as a function of instruction during mother-infant interactions: Application of the Caregiver-Infant Touch Scale (CITS)*. Manuscript under revision.
- Stimpfl, J., Zheng, F., & Meredith, W.(1997). A garden in the motherland: A study of a preschool in China.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29*, 11-26.
- Sun, L. & Koopnarine. J.,(1996). Mother-infant interactions and involvement in childcare and household labor among Taiwanese families. *Infant and Development, 19*, 121-129.
- Thomas, A., & Chess, S.(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Thompson, R. A.(2000). Early experience and socialization. In A. Kazdin (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Washington, DC. & New York: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d Oxford University Press.
- Tompson, R. A.(1997). Sensitivity and security : New questions to ponder. *Child Development*, 68, 595-597
- Vygotsky, L. S.(1978). *Mind in society :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Waters, E., Kondo-Ikemura., & Richters, J.(1990). Learning to love: Milestones and mechanisms in attachment, identity, and identification. In M. Gunnar, & L. A. Sroufe(Eds.), *Minnesota Symposia in Child Psychology, 23. Self process in development*. Hillsdale, NJ: Erlbaum.
- Wolcott, H. F.(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London: Sage.
- Yarrow, L. J.(1979). Historical perspective and future directions in infant development. In J. D. Osofsky(Eds.),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John Wiley & Sons, New York.
- Zigler, E., & Child, I. L.(1973). *Socialization and personality development*. Massachusetts: Addison-Wesley.

An Ethnography Study of Mothers' Roles in Infants' Socialization

Kwon, Kyung-Sook
Dep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how mothers' roles in infants' socialization are manifested in situational contexts by observing everyday lives of infants and mothers at home.

Three infants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ethnographic study. Observations were made once a week from February 1, 2006 to August 30, 2006 at the participants' homes, which is the most natural and friendly environment for infants. Each observation lasted longer than 5 hours. Informal in-depth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were frequently made. Data were collected from participant observations, interviews with mothers, videotaping and photographing, and mothers' journals. For data analysis, field-notes from participant observations, interview transcripts, and mothers' journals were read many times and organized and categorized into major themes. The research questions emerged in the process of the study.

The selected research questions and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1. What are mothers' roles in the development of infants' self-concept?

In their daily lives, mothers guided infants to recognize themselves as being different from others and to become aware of their selves by calling their names, informing their ownership for various objects, and using infant-oriented names or interpreting infants' behaviors in appropriate words. This study found that mothers supported infants to become aware of their selves in their social relationships with others. With mothers' guidance, infants understood the boundaries between themselves and others, and became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ir unique selves as different from others.

2. What are mothers' roles in the construction of infants' relationships with peers?

In the construction of infants' peer relationships, mothers introduced peers and provided opportunities to understand one another. By encouraging them to compliment on peer's behaviors, mothers also helped infants to have positive perspectives on their peers. In addition, mothers attempted to teach their children the concept of friendship by directly saying "we are friends" along with making friendly physical contacts.

Conflicts occurred when infants and their peers wanted to have the same object at the same time. Mothers tried to resolve their conflicts by teaching them how to share toys and play together or by suggesting alternative prosocial behaviors. When infants expressed

their emotions in negative ways, mothers released infants' unsatisfied emotions by converting their negative behaviors into friendly behaviors through providing positive meanings to their behaviors or by accepting infant's emotions. Sometimes, mothers expressed their 'angry' emotions or forced infants to make apologies and promises, but these often resulted in the increasement of infants' negative behaviors.

3. What are mothers' roles in infants' acquisition of knowledge?

Infants acquired knowledge about various objects with the guidance of their mothers at home. Mothers helped their children to have concrete knowledge about objects by connecting their experiences as they read books together or by finding examples in real life. Infants reorganized their knowledge formed through the interaction with their mothers in their own way. They also created and used their own unique expressions by integrating their knowledge with new experiences. However, infants' unique expressions gradually were changed to fit to social and cultural norms. The social norms that mothers wanted to teach their infants during this period were related to etiquettes, such as greeting and sharing, politely saying "please give me" with presenting their two hands, responding to others by saying "yes", and offering things to adults first. Mothers had their infants acquire social norms and rules by encouraging them to practice until they automatically and habitually behave appropriately in the daily life, correcting their inappropriate behaviors on the spot, and using positive reinforcements such as verbal encouragement and cheering.